금주의 법구-〈숫타니파타〉
허풍을 떨며 실천하지 않는 사람
상대방의 결점을 노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참된 친구가 아니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196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2년 · 단기 4351년 음력 3월 24일) 2018년 5월 9일 수요일

백제 사찰 대통사지 주택신축에 묻힐 위기

백제학회 · 불교학연구회 등 12개 학회 온전 발굴조사 촉구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백제 최대 사찰로 알려진 대통사지로 추정되는 절터가 확인됐다. 하지만 공주시의 한옥신축 사업으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백제학회 · 불교학연구회 등 12개 학회는 5월 3일 흥사단 교육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사지의 온전한 조사와 보존을 문화재청과 공주시에 촉구했다. 한국사 관련 학회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선 것은 웅진 백제 시기 최대 사찰로 알려진 대통사지로 추정되는 위치가 최근 확인됐기 때문이다.

올해 1월부터 충남 공주시 반죽동 한옥주택부지에서 사전조사 형식의 발굴조사가 이뤄졌으며, 이중 한 부지에서 대통사의 위치를 밝힐 유물이 무더기로 발굴됐다. 좁은 발굴장에서만 기와편만 2만여 점이 나왔으며, 이중에는 '대통(大通)' 명문의 기와편도 출토됐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대통사는 527년 성왕이 백제 수도였던 웅진에 창건한 사찰이다. 성왕은 중국 양나라에서 경전을 전해 받고 당시 황제였던 무제를 위해 사찰을 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사는 통일신라 이후에도 존속됐지만 이후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어떤 활동이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보물 제150호 공주 반죽동 당간지주 부근에서 일제강점기 당시 '대통사(大通寺)'라고 새겨진 기왓조각이 나와 사지였음이 밝혀졌지만 더 자세한 것이 확인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당간지주에서 150m 떨어진 지점에서 대통사지로 추정될 수 있는 관련 유물이 쏟아지자 학계는 일제히 주목했다. 대통사는 현재까지 삼국시대에 세워진 사찰 중 사찰명과 건립연대, 장소를 알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사찰이기 때문이다.

노중국 계명대 명예교수는 "고구려 · 백제 · 신라 사찰 중 확인되는 가장 이른 시기사찰이 현재 대통사"라며 "성왕은 수도를 사비로 옮기면 사비백제를 열었다. 그곳에서 정림사를 창건했는데 대통사를 참고해서 사찰을 축조했을 것이다. 대통사를 확인하는 것은 웅진과 사비백제 왕경의 비밀을 푸는 작업"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대통사지는 다시 묻힐 위기에 놓여있다. 유물출토 지역이 주거 밀집 지역이고 공주시가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고도(古都)이미지 찾기 사업'을 진행하며 한옥 신축을 추진하고 있어 온전한 발굴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관련 학회 학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발굴조사를 촉구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학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대통사지 추정 유적은 다시 매몰되고 한옥이 건축될 예정"이라며 "공주시 반죽동 일대 한옥신축 사업은 문화재청 문화재보호기금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사업이지만 역설적으로 고도 경주의 핵심 유적인 대통사지가 파괴될 위험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현재처럼 좁은 면적 단위로 발굴조사가 이뤄지면 대통사지의 전모를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학자들은 "현재 조사가 진행되는 구간의 발굴허가 범위는 204㎡지만 안전지대 확보를 위한 공간을 제외하면 허가 면적의 1/2도 발굴하지 못했다"면서 "백제사만이 아니라 한국 고대사에서 매우 소중한 사찰인 대통사지가 발견됐음에도 전체 사역을 밝히기 위한 장기 계획의 수립, 보존과 유네스코 확장 등재 등의 논의는 이뤄지지 못하고 한옥 건축만 논의되는 작금의 상황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1월 한옥부지 사전조사 중
'대통' 명문 와편 등 발굴
대통사지 추정 위치 확인
웅진 왕경 비밀을 풀 열쇠

발굴지 매입해 보존해야
인접지역 체계 연구 필요

그러면서 "대통사지 발굴 지역은 보존돼야 하며, 보다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인접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면서 "백제사를 복원하고 고도 공주의 진면목을 세계에 알릴 천재일우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우를 범하지 말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학자들은 문화재청과 지자체에 △주민들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주거 이주책 마련 △대통사지 추정 지역 전체를 매수 후 장기 발굴 △대통사지 복원 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확장 등재 등을 제안했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각 스님은 "구전돼 오던 대통사지의 위치가 확인됐다. 이는 국가적으로 환영할 만하다"면서 "여러 학회의 학자, 연구자들이 연명을 해서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에 사적 지정 요청하고 우선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올림픽의 감동, 봉축등으로 평창올림픽에서의 감동이 부처님오신날에도 펼쳐진다. 5월 1일 서울 수국사에서는 이른바 '평창올림픽 에디션' 연등이 제작되고 있었다. 깜짝 은메달을 딴 스노보드 이상호 선수를 연상케 하는 스노보드 동자승연등을 비롯해 스키점프 동자승연등 등 다양한 동계 스포츠 연등이 선보일 준비를 마쳤다. 수국사 주지 호산 스님을 비롯해 연등 제작에 참여한 불자들의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가 넘쳐 흐른다. 글 · 사진=노덕현 기자

조계종 "PD수첩 편향보도, 책임 묻겠다"

5월 2일 대변인 브리핑… "소송서 모두 밝혀질 것"

"확인되지 않은 사실 방영해"
교계, 종단 옹호 · 비판 엇갈려

MBC PD수첩이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과 교육원장 현응 스님에 대한 의혹을 5월 1일 방영한 가운데, 조계종이 이를 '편향보도'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을 밝혔다.

조계종(총무원장 설정)은 5월 2일 오후 4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브리핑룸에서 대변인 브리핑을 실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편향적 입장만 듣고 방영한 PD수첩에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대변인 기획실장 금산 스님은 이 자리에서 "불교계 최대축제이자 국가무형문화재인 연등회, 그리고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MBC가 조계종과 관련한 의혹 수준의 문제제기 내용을 프로그램으로 제작, 방영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방송된 내용 중 불교닷컴 이석만은 피고의 지위에서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취득한 정보를 MBC에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전날 조계종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본 것에 대해 윤승환 기획차장은 "PD수첩이 자료를 편집해 송출한 그 자체가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하지만 불교닷컴이 법원에 제출된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은 명백한 위반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산 스님은 PD수첩이 제기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친자의혹과 관련해서는 "현재 불교닷컴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관계로 소송을 통해 의혹을 해소하겠다. 설정 스님은 5월 10일 본인 유전자를 채취할 예정"이라며 "설정 스님은 더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유전자를 채취하겠다고 하실 정도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력문제에 대해서는 "2017년 9월 총무원장 선거 이전 교계언론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서울대 부설 방송통신대를 졸업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잘못을 시인하고 참회했다"며 "그럼에도 문제제기 하는 이들은 와전됐다는 일부 발언만을 꼬투리삼아 지속적으로 왜곡과 음해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건축박물관 문제와 관련해서는 "수덕사로의 소유권 이전은 증여 및 매매방식에 따라 진행됐다. 매매 대금은 약 44억여 원이고, 기채 금액 중 34억 원은 고건축박물관에 설정된 근저당 해제비용으로 금융기관에 지급됐다"며 "잔금은 부동산 소유권자였던 전흥수 씨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됐다. 사실관계가 이러함에도 불특정 스님을 등장시켜 커다란 의혹이 있는 것처럼 왜곡 · 날조했다"고 강조했다.

금산 스님은 이어 "최승호 사장은 2017년 9월 '공영방송이 정상화된다면 조계종 적폐 특집 방송을 내보내겠다' 등의 발언을 한 인물이다. PD수첩 이후 방송된 100분 토론에 명진 스님이 출연한 사실은 그 의도를 의심하기 충분한 상황"이라며 "PD수첩은 종단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명진 스님과 불교와 무관한 이들의 인터뷰 등을 화면으로 내보냈다. 공영방송으로서 가져야할 최소한의 균형성마저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PD수첩 방영 이후 불교계는 종단 옹호와 비판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포교사단은 PD수첩 방영을 '불순한 의도'로 규정했으며, 참여불교재가연대와 성평등불교연대는 총무원장과 교육원장의 참회와 책임을 촉구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평화통일기원 분청팔만대장경 조성 기금마련 선서화전

귀의삼보하옵고

금번 분청대장경연구소는 서울 봉은사 보우당에서 '평화통일기원 분청팔만대장경 조성 기금마련 선서화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분청기법'이라는 새로운 경판제작기법을 개발한 분청대장경연구소가 남북평화통일기원 대장경 조성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전시로 범주스님의 달마도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설정스님의 서예 작품 등 총 200여점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평화통일기원 분청팔만대장경'의 완성은 약 15년이 걸리는 대작불사입니다. 사부대중께서는 무루 방문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2018년 5월 13일(일) 오후 3시 ~ 5월 22일(화)
장 소 : 서울 봉은사 보우당
주 최 : 분청대장경연구소
후 원 : 상주 달마선원 ·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문 의 : ☎ 1899-9505 (분청대장경연구소)



분청기법이란 : 분청대장경연구소 소장 정우스님이 1년여 연구에 걸쳐 개발한 새로운 경판제작기법이다. 도자기를 제작할 때 사용하는 '분청'을 이용해 경판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기존의 목판이나 동판을 이용해 제작한 경판보다 내구성이 뛰어난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보관상태에 따라 반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다.

선학원 비대위 출범… 상임대표 자민 스님

5월 2일 광진구 기원정사서 "대중 권익 위해"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선학원 이사회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선학원 개혁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과거 '선학원의 미래를 생각하는 분원장 모임'이 보다 확대된 것으로 상임대표는 자민 스님이 맡았다.

선학원 개혁 비대위는 5월 2일 서울 광진구 기원정사에서 출범식을 개최하고, 선학원 이사회 개혁을 천명했다. 상임대표는 천안 연대선원 창건주 자민 스님이 추대됐으며, 전국비구니회장 육문 스님과 前선미모 상임대표 법상 스님, 선학원 건물서 단식정진에 나섰던 설봉 스님 등 40여 명의 스님들이 출범식에 참석했다.

비대위는 지난 3월 21일 시국선언을 한 원로들에 대한 선학원 이사회의 회의에 이어 설봉 스님 단식정진 과정을 거치며 조직 구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당시 선미모는 이사장 법진 스님과 분원장들 간의 갈등이 선학원 역사에 있어 총체적 위기상황이라고 판단, 현 집행부 이후를 대비해 제반 문제를 점검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이에 4월 9일 선미모 18차 운영위원회에서 비대위 발족을 결정하고, 위원장을 필두로 △자문단 △실무팀 △운영위원회 등을 조직했다.

비대위는 선미모의 활동을 계승하면서 △성추행 이사장 거취 처리 문제 △선학원 이사회의 조계종 제적원 제출 강요 △이행강제금 등 삼보정재 손실 △빈번한 사고사찰 지정 위기감 팽배 △분원장 임명권 남용 △조계종단과의 갈등 해결 난관 등을 핵심 현안으로 제기했다.


상임대표 자민 스님

선학원 이사장 사퇴 촉구한
선미모 확대… 원로도 동참
자문단 · 실무팀 · 운영위 구성
"이사회 개혁에 뜻 모아주길"



5월 2일 광진구 기원정사에서 열린 선학원 개혁 비대위 출범식.

"도제들, 선방도 못 다닌다"

이 자리서 상임대표 자민 스님은 "과거 어른스님들은 물이 오래 고이면 썩는다고 했다. 그런데 법진 이사장 물은 그 때보다 더 고였다"며 법진 스님의 이사장 3선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현재 입산자가 줄고 도제들은 설 땅이 없다. 선학원 도제라는 이유로 종단에서 각종 제재를 받는다. 법진 스님에게 분원장들의 고충은 들여다봤느냐고 물었지만 답이 없었다"면서 "제가 선학원에서 감사 18년, 이사 12년을 하면서 지금과 같이 이사장 하자는 대로만 하는 막된 이사회는 여태껏 없었다. 3월 21일 회의서도 문을 걸어 잠그고, 이사장은 경찰보호 아래 점퍼를 뒤집어쓰고 야반도주했다"고 강조했다.

자민 스님은 이어 "성찰과 혁신을 통해 이사회가 새롭게 정비되지 않으면 선학원은 미래가 없다. 시대를 선도할 새로운 비전을 마련하고, 이사회가 지금처럼 독주하지 않도록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모든 행정이 선학원대중의 권익을 위해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다음에 올 이사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중이 함께 나서자"고 당부했다.

자민 스님은 또한 "범어사에서 출가하고 절을 일궈 큰스님들의 조언에 따라 선학원에 등록했다. 다른 도반들을 설득해 선학원에 등록한 사찰만 20곳이 넘는데 지금은 도제들을 선방에조차 보내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하루 이틀에 해결될 일이라고 보지 않는다. 다만 대중이 뜻을 모아 뭔가 한다는 걸 다른 분원장들에게 보여줘야 할 때다. 선학원 창립정신을 회복해 혁신하는 그날까지 노력을 기울이자"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앞으로 선학원 이사회 개혁을 위해 정관 및 제 규정 등을 검토 후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분원과 대중스님들의 권익 선양을 비롯해 선학원 역점사업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비대위 상임대표 자민 스님은 1954년 범어사 대성암에서 혜진 스님을 은사로 사미니계를, 1962년 범어사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니계를 수지했다. 내원사 등 10안거를 성만하고, 개심사, 청용사, 운문사, 흥국사 등 비구니 강원 강주를 맡았다. 선학원 감사 및 이사, 제7~9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전국비구니회 수석부회장을 역임했다.

태고종-베트남승가회 공식교류 협약 맺어

각국 불교대학 교류도 합의

태고종(총무원장 편백운)은 4월 26일 베트남 국립불교승가회 본부에서 공식교류 조인식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과 베트남 국립불교승가회장 틱 티엔 넨 스님이 참석했다.

태고종은 베트남 승가회와 공식 채널을 가동, 정기적인 교류대회를 갖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양측은 △동방불교대학과 베트남불교대학의 학술 · 학생 교류 △한국 내 베트남사원 건립과 베트남 내 한국사원 건립을 합의했다. 또한 27일 동방불교대학과 베트남불교대학 MOU를 체결, 틱 지악 토안 상임부총장스님과 실무사항을 협의했다. 윤호섭 기자

총무원장 선출제도 개선 '적신호'

조계종 특위, 회의 성원 미달… 봉축행사로 난항 예상

5월 1일 회의에 4명 참석
6월 임시회 개최도 불투명

조계종 총무원장 선출제도 개선을 위한 중앙종회 동력이 점차 떨어지는 모양새다. 관련회의조차 제대로 열리지 못한데다 내달 6월 중앙종회가 소집될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조계종 중앙종회 총무원장 선출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초격)는 5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제7차 회의를 소집했지만 15명의 위원 중 4명만 참석해 성원 미달됐다. 참석자는 위원장 초격 스님과 위원 화림 · 선광 · 덕문(통도사) 스님. 특위는 회의 대신 간담회로 전환해 간략한 의견을 나눴지만 3월 14일 이후 현재까지 회의가 이뤄지지 않아 어떤 가닥도 잡지 못한 상황이다. 특위는 3월 27일 소집하려던 회의를 연기해 이날 열었지만 무산됐고, 결국 4월 중 개최키로 의견을 모았던 공청회 또한 '함흥차사'다.

특위는 간담회를 통해 차기회의서 직선제 · 추선제 · 간선제(현행) 보완 중 하나의 결론을 도출한 뒤 세부안을 정리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회의 참석률이 저조한 위원에 대한 교체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로 했다.

위원장 초격 스님은 "3월 13일 이후 오늘이 첫 회의다. 6월 종회 전까지 의안을 성안하려면 공청회와 지속적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일정이 안 맞은 것 같다"며 "원활한 회의를 위해 위원 교체 논의를 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선광 스님은 "우선적으로 추대, 간선, 직선 등 큰 틀을 잡아놓은 뒤 세부적으로 접근하는 게 순서다. 다음 회의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위 간담회는 20분 만에 종료됐다. 차기회의 일정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진 않았지만 부처님오신날까지 각종 종단 행사가 이어지기 때문에 회의는 5월 22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성안까지의 숨 가쁜 일정과 종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개원이 불투명한 6월 임시회가 특위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윤호섭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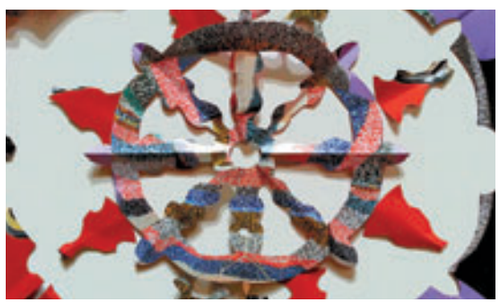


성운 스님의
보리수 아래서

팔정도 열반에 이르는 여덟가지 바른길

*팔정도(八正道)는 고(苦)의 원인인 갈애와 집착을 완전히 소멸하여 해탈 열반에 이르는 여덟가지 바른 수행의 길입니다. 쾌락과 고행의 양극단을 떠난 중도(中道)로서 사성제 중 도제(道諦)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팔리어의 '성스러운 여덟가지 요소의 길' 팔지성도(八支聖道)가 팔정도로 한역됐는데,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성스러운 길이라는 뜻입니다. 경전에서는 '어떤 사람이든 이 여덟가지 길을 걷게 되면 열반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잡아함 18권 염부차경〉


제목 · 팔정도 그림 · 조향숙

쾌락 · 고통 양극 떠난 中道
팔정도, 계 · 정 · 혜에 포함
여덟단계 서로 유기적 결합

*팔정도는 정견(正見)으로 시작합니다.

①정견 올바로 보는 것, 바른 견해입니다. 사성제와 연기, 삼법인의 이치를 바르게 보는 지혜입니다.

'집제가 있으므로 고제가 있고, 도제가 있으므로 멸제가 있다.'

이처럼 사제(四諦)를 닦을 때 법을 잘 결택하여 통찰하는 지혜가 있어야 팔정도 수행을 선도합니다.

②정사유(正思惟) 올바른 생각과 마음가짐입니다.

③정어(正語) 바르게 말하는 것으로 정사유에서 나오는 언어적 행위입니다. 거짓말(忘語), 이간질 하는 말(兩舌), 나쁜말(惡口), 속이는말(綺語)을 하지 않고 진실하고 유익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④정업(正業) 올바른 행동입니다. 살생, 도둑질, 사음하지 않는 것으로 정사유 뒤에 오는 선행입니다.

⑤정명(正命) 바른 생활입니다. 건전한 직업과 일상을 뜻합니다.

⑥정정진(正精進) 바르게 노력하여 선(善)을 닦는 것입니다.

⑦정념(正念) 올바른 마음 챙김입니다. 늘 맑은 정신으로 불교의 가르침을 잊지 않는 수행이죠.

⑧정정(正定) 올바른 삼매 또는 선정을 뜻합니다.

*팔정도는 계율 선정 지혜(戒 · 定 · 慧) 삼학(三學)에 포함됩니다.

덕목별로 분류하면 정어, 정업, 정명은 계(戒)입니다. 몸과 입과 뜻(身口意)의 삼업(三業)이 청정하여 탐진치 삼독 업의 덩어리를 다스립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익되는 올바른 말과 행동과 생활을 하는 도덕적 수행이며 사회 윤리 규범을 지키는 지계(持戒)의 삶입니다.

계를 지켜 모든 사(邪)가 정(正)이 될 때 선정(禪定) 즉 정념과 정정이 나옵니다. 정(定)은 모든 행동을 지켜보며 번뇌를 막고 집착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경지입니다.

정(定)에서 해탈로 가는 통찰의 지혜가 생깁니다. 그 지혜(慧)가 정견과 정사유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사물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깨달음입니다.

정정진은 모든 덕목에 해당됩니다.

지혜의 빛 양심의 자리가 여덟단계로 연결되어 있는 팔정도는 피안으로 가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열반전 밤늦게 찾아온 120세의 수행자 수바드라에게 팔정도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 수행자는 마지막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최초 · 최후의 제자에게 팔정도를 설하셨습니다.

개인의 수행 뿐 아니라 사회와 국가간의 관계에도 길을 제시하는 성스러운 팔정도의 길을 걸읍시다.

〈삼천사 회주 · 동국대 석좌교수〉

보련기획 BORYEON
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조립식 도량장엄등설치

전문인력, 장비없이 조립·해체 가능
다목적 활용으로 경제적
기둥을 최소화하여 공간활용 극대화
도량 면적과 형태에 따른 다양한 연출
법당연등 자동승강장치

법당 고정식 연등설치

천불전

인등

위패

공단등

만월등

불기등


사찰 고유의 디자인으로 제작 가능
www.boryeon.com
010-5381-9355 /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

韓·中불교 매년 유학승 상호 교류한다

조계종 · 중국 국가종교국 상호 논의 시작

訪中 현응 스님, 종교국에 제안 "미래지향적 긍정 검토" 화답해 양국 스님 10명 교환 초청 교류 동아시아 불교 발전 · 세계화 기여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 등 중국방문단은 4월 23일부터 27일까지 중국정부의 공식 초청으로 중국 승가교육 현장 탐방을 진행했다.

한국과 중국 불교가 매년 유학승은 상호 초청해 수학하는 등의 인적 교류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조계종 교육원은 5월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육원장 현응 스님 등이 지난 4월 23일부터 27일까지 중국정부의 공식 초청으로 이뤄진 중국 승가교육 현장 방문에 대한 성과를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조계종 교육부장 진광 스님은 "중국 승가교육 현장을 방문하고 중국 국가종교국 · 중국불교협회를 공식 예방했으며, 이 자리에서 한 · 중 양국 불교가 추천하는 유학승 및 교환학생을 약 10명씩 초청해 상호 교류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협의는 현응 스님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현응 스님은 위파(余波) 중국 국가종교국 부국장과 만난 자리에서 "한 · 중불교 교류 21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실질적 교류를 위해 양국 불교가 추천하는 10명의 유학승을 교환해 양국 불교교육기관에 수학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현응 스님은 교환 유학승에 대한 체류 경비는 초청 측에서 부담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위파 부국장은 "매우 의미있고, 미래지향적인 제안"이라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중국불교협회 장 학성 스님 역시 "매우 뜻 깊은 일이다. 정부 당국과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함께 배석했던 중국 외교부 아시아국 관계자들도 적극 지원할 뜻을 밝혔다.

현재 중국의 승려 수는 24만 명으로 각 지역마다 4년제 불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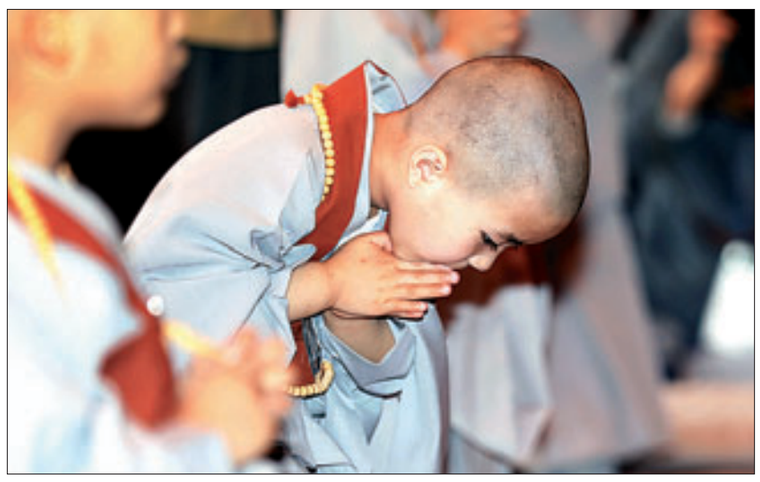
하지만 한국의 중앙승가대와 동국대와는 달리 중국의 불학원은 학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중국은 중앙승가대 등 한국의 승가교육 시스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계종 교육원은 중국 국가종교국과 협의 통해 교환 수준과 형태를 논의하고 최종적으로 상호협력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조계종 교육부장 진광 스님은 "한 · 중 불교는 오랜 역사와 문화 등을 공유하고 있다. 한 · 중 불교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면서 "한 · 중 불교간의 유학승들의 교류가 공식적으로 이뤄진다면 양국 불교 발전뿐만 아니라 불교 세계화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방문단은 현응 스님을 비롯해 중앙승가대 총장 성문 스님, 동국대 대외협력처장 종호 스님, 해인사 승가대학장 무애 스님 등이 함께 했으며, 베이징 용천사 · 법원사 · 서안 법문사 등의 불학원들을 방문했다.

한편, 중국불교협회 한국불교교육 고찰단은 오는 6월 3~8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중앙승가대 · 동국대 · 통도사 및 운문사 승가대학을 참관하며, 총무원장 설정 스님을 예방해 양국 불교 교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어리지만 부처님같이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서울 조계사에서 천진불들이 탄생했다. 5월 2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동자승 단기출가 삭발수계식에서 파르라니 머리를 깎은 동자승들은 부처님처럼 이 시대 많은 대중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평화와 자비 사상을 펼칠 것을 서원했다.
이날 단기출가 삭발수계식 이후 동자승들은 5월 7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과 JSA법당을 방문해 한반도 평화를 기원한다. 특히 도라산 전망대 등을 돌아보고 '화합과 평화의 발원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글=노덕현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익산 미륵사지 본격 정비 착수

문화재청 · 익산시, 기단부 · 강당지 앞 배수시설 정비

백제권 최대 사찰인 익산 미륵사지에 대한 정비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문화재청(청장 김종진)과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사업의 하나로 익산 미륵사지(사적 제150호) 내 강당지, 동 · 서 승방지, 동원 회랑(回廊) 등의 기단부와 강당지 앞 배수시설 개선을 위한 유적 정비를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4월 30일 밝혔다.

이번 기단부와 배수 시설의 보수정비 공사는 훼손된 건물지 기단부를 정비하고, 배수 문제로 인한 유구 훼손 방지와 관람환경을 개선하고자 이뤄지는 것이다.

문화재청과 익산시는 국보 제11호 익산 미륵사지 석탑의 보수정비공사 완공 시기를 고려해 정비를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익산 미륵사지는 1966년 최초 발굴조사 이후, 1980년부터 2000년까지 총 16차례에 걸친 발굴조사를 통해 미륵사지 조성 시기와 사역구조, 운영 시기 등 전반적인 사항들이 밝혀진 바 있다. 2015년에는 중앙 회랑지와 강당지 구간 사이에서 석재와 배수로가 발견되어 2016년 9월부터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문화재청은 2013년부터 유적정비와 복원 고증에 관한 연구를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미륵사지 석재유구 훼손도 연구', '배수문제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등을 진행해 왔다.

문화재청은 "향후 이러한 학술연구를 바탕으로 익산시와 함께 익산 미륵사지의 역사적 가치를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익산 지역의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을 통해 백제 왕도의 역사성 회복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윤이상 선생 고국 첫 추모재 봉행

조계종 사회노동위, 통영서

작곡가 윤이상 선생의 고국 첫 추모재가 고향 통영 묘소에서 봉행됐다. 평소 불교신자였던 윤 선생의 뜻을 기려 조계종이 앞장섰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찬)는 5월 2일 통영국제음악당 뒤편 윤이상 묘역에서 추모재를 봉행했다. 이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통영 · 고성사암연합회가 자발적으로 나서 유족과 협의해 추진했다. 조계종이 먼저 윤이상 선생을 기억하고 명복을 빌고자 유족에게 추모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노동위원장 혜찬 스님은 "음악을 통해 남북평화를 꿈꾸었던 윤이상 선생은 고향을 평생 그리워하셨다"며 "윤 선생이 통영 앞바다를 바라보며 극락왕생 하길 바란다. 우리도 함께 남북통일을 위해 정진하자"고 기원했다.

박진형 기자

종교계, 저출산 극복 위해 나선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4월 30일 프레스센터서 선언

결혼 전문업체 '가연'과 협약 "혼인서 출산 고리 만들자"


선언문을 발표한 조계종 사회부장 진각 스님 등 참석자들이 선언문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7대 종단 지도자들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결의했다.

사단법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이하 종지협)는 4월 30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종교계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민운동 선포식'을 열었다.

종지협은 불교, 원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 국내 7대 종교간 화합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이들은 이번 선언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종교계가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을 대신해 참석한 조계종 사회부장 진각 스님은 선언문을 통해 "저출산 문제는 가장 시급한 사회문제"라며 "이에 종교계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선언을 계기로 △가족 친화적 가치관 확산을 통한 사회문화 개선 △생명 존중 사상 전파 △아이와 부모가 행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배려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종지협은 그 시작은 결혼이라며, 결혼정보 전문업체 '가연'과 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 이후 구체적 방안은 7대종단 운영위원들과 지속적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김영주 가연 결혼정보 대표는 "미혼남녀 대상 매치코리아 무료 제공 서비스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한다면 연애 활성화와 혼인 성사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포식에 함께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출산 극복 선포식을 계기로 태어난 모든 아이가 소중하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행복이 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 우리 국민과 사회단체, 기업 모두가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선포식에는 조계종 사회부장 진각 스님, 원불교 한은숙 교정원장, 김희중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엄기호 대표회장, 유교 김영근 성균관장, 천도교 이정희 교령,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박우균 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보리수아래, 5월 16일 '연꽃들의 노래'

불자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공연 한마당인 '제11회 보리수아래 핀 연꽃들의 노래'가 5월 16일 오후 7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열린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열리는 이번 '연꽃들의 노래'에는 아시아장애인 공동시집 2권 발간과 대만 불교문화체험을 준비하는 의미를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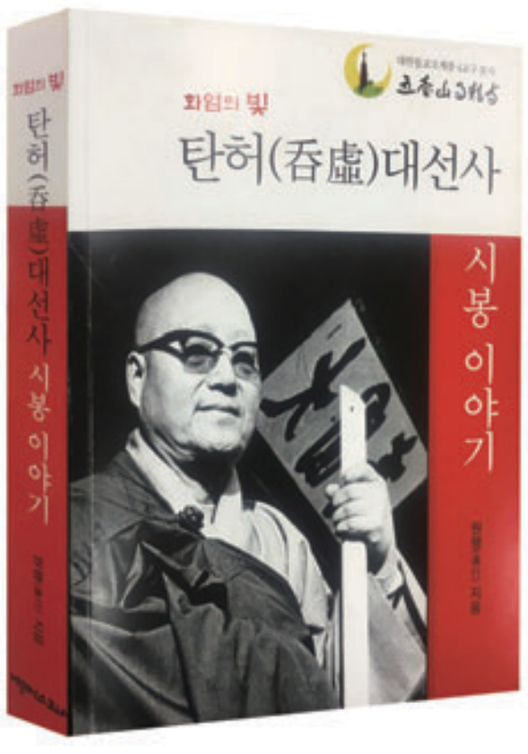
행사에서는 지도법사 법인 스님,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 격려사와 함께 유재필 보리수아래 회원과 엄하나씨의 부처님오신날 축하 시낭송, 가수 박경하, 시노래 풍경가수 진우, 조계사 사회국장 운문 스님, 연화원 발달장애부모난타팀, 이미령 북칼럼니스트, 해와달밴드, 중앙승가대 동아리 '자비나눔' 학인스님 등의 공연이 펼쳐진다.

한편, 불자 장애인 모임인 보리수아래는 현 조계사 주지인 지현 스님의 지원으로 2006년 7월 창립된 이후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장애인식 개선 활동과 문학활동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02)959-2611

노덕현 기자

오대산 월정사 조실 탄허(呑虛) 대종사 35주기 추모

출판법회 및 통일강연회



일시 : 2018. 5. 17목 am10:30

장소 : 서울 엠버서더 호텔(장충동)

① 제1부 한반도 통일 기도 - 원행스님(조계종 원로의원)

② 제2부 출판법회
• 탄허(呑虛)대선사 시봉이야기 - 서평 조정래(소설가 - 태백산맥 저자)

③ 제3부 통일 강연회
• 탄허(呑虛)의 한반도 통일론
가) 불교의 화엄사상으로 - 각성스님(부산 화엄사 조실)
나) 주역(周易)의 관점에서 - 기세춘 선생(묵점 : 주역대전 저자)
다) 동양사상의 예언속에서 - 장화수 교수(중앙대학교 명예교수)

귀의 삼보하옵고
무술년 춘절을 맞이하여 귀하의 건승을 기원 드리며 평창에서 싹튼 「평화! 새로운 출발」로 「4 · 27 판문점 남북협정」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대산 월정사 조실 『탄허(呑虛) 대종사 35주기 추모』, 『통일기도』와 『강연회』, 『시봉이야기』 출판 법회 등을 다음과 같이 봉행코저 하오니 무루 동참하여 귀하의 가피를 기원 드립니다.

후원 : 십시일반 농 협 351-0510-9355-03 김홍길(자광회장)
새마을금고 9003-2407-4526-6 김홍길(자광회장)

연락 : 아셈연구원 : 02-730-2740 자광회 : 02-764-7941
대한언론인회 : 02-732-4797 월정사 : 033-339-6800

오대산인 원행(遠行) 합장

봉축 앞둔 불교계, 자비 온도 뜨겁다

불교 각계 소외계층 돕기에 앞장
조계종 행복바라미 캠페인 전개
조계사 자비의 선물 전달 예정
각 지역 사찰 쌀·생필품 지원도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불자들의 따뜻한 자비 나눔행이 이어지고 있다. 가장 먼저 불교계를 대표하는 나눔문화 행사인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에 불자들의 성원이 뜨겁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날마다좋은날이 진행하는 행복바라미 대축전이 4월 27일 개막한 가운데 5월 3일 서울 도심에서는 행복바라미 거리 모금 캠페인이 펼쳐졌다.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포교사단 등 100여 명은 서울 인사동 일대와 풍문여고 앞 '행복바라미 모금소'에서 시민들과 모금캠페인에 동참했다.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피는 캠페인에 많은 불자들의 동참을 부탁드린다"며 이날 직접 캠페인 성금을 전달했다.

날마다좋은날 측은 5월 11일까지 서울 화계사와 도선사, 신도림역 등 전국 500여 행복바라미 모금소에서 나눔문화 캠페인을 벌이는 등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자비나눔을 실천할 예정이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도 5월 14일 지역 경찰관들에게 음료수 등 다양한 물품을 전달할 계획이며 이에 앞서 동아쏘시오홀딩스와 지원 협약을 맺었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오늘의 인연으로 소외 계층들을 돌보는 데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기흥 중앙신도회장이 풍문여고 앞 행복바라미 모금소에서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이 경찰관 및 관내 소외계층에 전달할 자비의선물 지원 협약을 맺고 있다.

각 지역에서도 불자들의 따뜻한 자비실천행이 이어지고 있다. 조계종 무산복지재단(이사장 금곡) 산하 양양군노인복지관은 5월 12일 오전 10시 '2018년 어르신 큰잔치'를 개최한다. 양양군노인복지관은 이날 어르신들에게 중식과 기념품을 제공한다.

양양군노인복지관은 "지역 어르신들을 부처님처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설악무산 스님의 뜻을 따라 지속적으로 어르신을 위한 잔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가정의달 맞이 행사에 지역 어르신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논산 안심정사(회주 법안)는 4월 30일 논산장애인 단체와 MOU를 체결하고 자비의 쌀을 지역 장애인 단체에 전달했다. 안심정사는 매년 30톤의 쌀을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군부대, 교도소에 보내왔다. 이날 안심정사는 지역 장애인 단체와 불교장애인복지타운, 호국연무사, 강경읍 등 자비의 쌀 10kg 쌀 250포를 전달했다.

부산 삼광사(주지 세운)도 4월 29일 점등대법회를 열며 부산진구(구청장 하계열)에 자비의 쌀 3000kg을 전달했다.

진주불교대학(학장 성공)도 4월 21일 진주 평거둔치 야외무대에서 '해피 붓다데이 동문체육대회'를 열고 아름다운동행에 쌀 10kg 1000포를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진주불교대학 총동문회, 포교사회, 염불봉사단이 주관했다.

진주불교대학 학장 성공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우리의 작은 손길이 모여 굶주리는 이웃이 없는 좋은 날이 되도록 도움을 주게 되어 기쁘다"며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룩한 뜻을 새기어 온 누리에 부처님의 자비하심이 가득하기를 염원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은 전국 군법당과 군부대 도서카페, 사찰 도서관 등에 불서 2000여권을 전달했다. 이번 불서 전달은 '불교 포교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됐으며, 진흥원은 "자비 나눔과 불교출판 진흥에 기여하기 위한 불서 보급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증한 불서는 경허 스님과 만해 한용운, 사명대사, 부처님생애, 불교문화와 상식, 최강의 명상법 등 19종이며, 이중 만화책이 다수 포함됐다. 또 진흥원은 4월 30일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와 연등회보존위원회에 봉축행사 지원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불교계 복지관 어버이날 행사 '풍성'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각 복지관에서는 풍성한 어버이날 행사가 앞 다퉈 진행됐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구립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은 5월 3일 종로구 어르신들을 모시고 '바운스바운스 시즌 4- 청춘열차로 떠나는 종로마을 대축제'를 개최했다. 행사는 오전 10시 복지관 4층 종로마루 홀에서 시작됐다. 이날 행사는 어르신들이 준비부터 진행까지 직접 주도해 더욱 눈길을 끌었다. 특히 정관 스님을 비롯한 복지관 직원들이 고령어르신들의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사진〉에 어르신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어 복지관서는 보물찾기, 댄스파티, 미래의 나에게 편지쓰기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정관 스님은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즐거움으로 가득찬 특별한 하루가 됐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중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운희)은 5월 2일부터 3일까지 어버이날 행사를 개최했다. 복지관은 2일에는 관할지역 내 3개 경로당(삼성사이버, 중림, 충정)의 어르신 총 80여 명을 초청해 점심을 대접하고 지화 카네이션을 선물했다. 또한 3일에는 지역 어르신 100여 명을 초대해 음식과 안마기 등 어버이날 선물을 제공했다. 이운희 중림종합사회복지관장은 "올해 어버이날 행사를 통해 우리 복지관 이용자 뿐 아니라 지역 내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도 행복한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데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태종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시립 강북노인종합복지관(관장 종세)서는 5월 8일 '제46회 어버이날 기념 청춘의향기가 가득한 孝축제'를 열었다. 사회복지사 및 생활관리사들이 어르신들에게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다양한 선물도 제공했다. 동시에 이벤트 부스도 마련해 네일아트, 염주만들기, 치매예방상담, 바자회 등을 운영해 지역 주민들과 어우러진 축제의 장을 연출했다.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광고]

正統 養生學 古典

《삼원연수서》三元延壽書 강의

한의사 김재두

20 의복 衣着。

○書云, 春氷未泮, 衣欲下厚上薄, 養陽收陰, 繼世長生。

얼음이 아직 녹지 않은 이른 봄에는 옷을 하체는 두텁게 입고 상체는 얇게 입어야 한다.⑩ 이는 양(陽)을 기르고 음(陰)을 거두어들이는 방법이니 해마다 계속하면 장생하게 된다.

○ 書云, 春天不可薄衣, 傷寒, 霍亂, 食不消, 頭痛。

봄 날씨에 옷을 얇게 입으면 감기에 걸리거나 두통, 소화불량, 곽란(霍亂)⑪이 생긴다.

○書云, 大汗能易衣佳, 或急洗亦好。

많은 땀을 흘린 후 옷을 갈아입으면 참으로 좋다. 혹은 급히 몸을 닦아도 역시 좋다.⑫)

○書云, 大汗偏脫衣, 得偏風, 半身不遂。

많은 땀이 나서 옷을 일부만 벗었는데 벗은 부위에 바람을 쐬면 그쪽 반신이 마비된다.⑬)

○書云, 濕衣汗衣, 不可久著, 發瘡及風燥, 二腑不利。

젖은 옷, 땀에 젖은 옷을 오래 동안 입고 있지 말라. 두드러기 및 피부건조증이 생기고 폐(肺)와 대장(大腸)에 불리하다.

○書云, 飮酒汗出脫衣, 靴, 襪, 當風取冷, 成脚氣。

술 마시고 땀이 나서 옷, 신발, 버선을 벗고서 다리에 바람을 쐬어 서늘해지면 각기(脚氣)가 된다.⑭)

○書云, 冬時綿衣裘褐之類, 急寒急着, 急換急脫。

겨울에 솜옷, 털로 짠 이부자리 종류는 갑자기 추울 때 급히 입거나 덮었다가 기온 · 체온이 상승하면 급히 벗거나 치워야 한다.

○陶隱居云, 綿衣不用頓加添, 稍暖又宜時暫脫。

도은거(陶隱居)가 말하기를, "솜옷은 항상 입지 말고 추울 때 급히 입었다가 더워지면 마땅히 잠시 벗어야 한다.

○鎖碎錄云, 若要安樂, 不脫不着, 北方語也。若要安樂, 頻脫頻着, 南方語也。

《쇄쇄록(鎖碎錄)》에 이르기를, 그대 만약 안락(安樂)하고 싶거든 옷을 벗지 말고 갈아입지도 말라. 이는 북방의 속언(俗言)이다. 그대 만약 안락하고 싶거든 옷을 자주 벗고 자주 갈아입어라. 이는 남방의 속언이다.

註解。

1) 목욕을 덜하면 마음과 눈에 유익하다.: 본서의 主旨는 몸 씻기에서 얻어지는 청결한 외모와 질병예방보다는 잘못된 몸 씻기에 의한 發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역자의 견해도, 지금까지의 임상통계로 보아 7:3으로 發病쪽이다.
현대인, 선진국인들이 前時代人, 후진국인들보다 암 · 중풍 · 당뇨병 · 난치성 희귀병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누구나 짐작하는 스트레스 · 과식 · 운동부족 · 공해가 主原因이긴 하나 잘못된 몸 씻기의 해독이 이상의 것들 중 어느 하나에 못지않게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전문 의료인과 국민을 총망라해도 거의 없다. 감기의 원인 정도로 아는 것이 한 · 양방의학계와 국민의 실상이다.
唐代의 문헌을 보면 官員과 富豪는, 머리감기는 3일에 한번, 목욕은 7~10일에 한번이다. 중국의 俗說에 "자주 몸을 씻으면 복이 달아난다."가 있으니 五福인 壽 · 富 · 貴 · 多男 · 考終命중 首位의 壽를 잃는다고 推理할 수도 있다. 또한 전문적인 養生書와 仙經도 목욕의 횟수에 대해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으니 땔나무로 불 지펴 물 데워 씻는 시대의 관습, 혹은 물이 부족한 지방의 전통이라고 致付하기에는 無理가 있다.

지나침은 오히려 못 미치는 것이다. 過猶不及。《論語 · 先進》

현대인, 선진국인들은 분명히 지나치게 많은 몸 씻기를 하며 잘못된 몸 씻기를 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물 부족현상의 주요원인 중 하나가 몸 씻기를 위한 물소비가 아니라고는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모든 학설은 이론의 바탕위에 실험으로 증명해야 正說이 될 수 있다. 목욕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금까지 한 · 양방의학계에서 청결에 의한 질병예방 외에는 연구된 바가 거의 없다. 그러므로 讀者諸位부터 청결위주의 목욕개념을 버리시고 본서의 방법을 실천하여 체험한다면 기존의 오류에서 벗어나 건강장수의 새로운 地坪을 열게 될 것이다.

2) 곤륜(崑崙) : ①파미르 고원의 곁에 있는 西藏에서 시작하여 중국 쪽으로 뻗어있는 大山脈.
②足太陽膀胱經의 經穴名. 足外踝後5分 腓骨後外側.

3) 가병(瘕病): 原名은 癥瘕.《河間六書》에 이르기를, 癥은 뱃속에 뭉쳐 단단한 것이 있어 눌러보면 손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聖惠方》에서는 그 명칭을 征에 비유하였다. 처음에는 물처럼 柔順하였으나 땅처럼 단단하게 변한 것이니 단단해질수록 해로우니 속히 다스려야 한다. 瘕는 만져보면 단단하기는 하나 홀연히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여 常形이 없다. 그래서《聖惠方》에서 假라고 하였다. 癥瘕의 병인과 治法은 積聚와 같다. 자세한 것은 卷之二上의 54p 註解⑧) 적병(積病)을 참고하시라.

4) 2척(二尺) : 一尺은 30.3cm이니 60.6cm이다.

5) 웅황(雄黃): 黃金石, 石黃이라고도 한다. 氣味는 苦, 平寒, 有毒하다. 主治는 寒熱, 惡瘡疽, 痔疾, 殺精物, 惡鬼邪氣, 治蟲毒, 制煉하여 먹으면 輕身하고 神仙이 된다. 雄黃을 몸에 차고 다니면 귀신이 감히 근접하지 못하며 산에 들면 범과 이리도 복종하고 물에 들면 毒物이 감히 해치지 못한다.《抱朴子》에 이르기를, 웅황을 휴대하고 숲에 들면 뱀이 근접치 못하고 뱀에 물린 상처에 가루내어 붙이면 즉시 낫는다. 또한 沙風을 당하지 않게 되고 당한 자는 가루를 몸에 바르면 낫는다. -《本草綱目》

6) 5림(五淋) : 소변이 좁쌀처럼 떨어지며 성기와 배꼽에 통증이 있고 아랫배가 땡기는 증상을 淋이라고 하고 원인과 증상에 따라 勞淋, 血淋, 熱淋, 氣淋, 石淋으로 나눈다.

7) 5치(五痔) : 항문안팎에 생기는 5종의 질환. 牡痔, 牝痔, 陽痔, 脈痔, 血痔.

8) 비상(砒霜): 信石, 人言이라고도 하며 生者는 砒黃이고 鍊者는 砒霜이다. 氣味는 苦酸하고 暖하고 有毒하다. 主治는 療諸瘧 風痰在胸膈, 婦人이 血氣가 치솟아 생긴 心痛과 落胎를 다스린다. 蝕癰敗肉, 枯痔. 大毒하므로 소량만 먹어도 사람, 짐승이 죽는다.

※ 수강을 희망하시는 분은 문자로 남겨주세요. 010-3198-5351

"온 세상 난치병 환아에게 희망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3000배 철야정진 성료

난치병 어린이들에게 작은 희망을 건네기 위해 조계종이 나섰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지난 4월 28일 조계사에서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모연을 위한 3000배 철야정진을 봉행했다. 이는 난치병 어린이들의 쾌유를 발원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해 치료비를 모연하는 행사다. 2001년 첫발을 내딛은 후, 18년간 400여 명의 아이들에게 총10억여 원의 치료비를 지원해 왔다. 2011년부터 라오스에서도 40여명의 난치병 어린이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부장 정우 스님은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고귀한 정성이 감동을 주고, 세상을 깨워 사회를 삶을 아름답게 만들 것이다.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올리는 오늘의 절이 난치병 어린이들에게 치유의 에너지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캄쑤와이 께오달라봉(Mr. Khamsouay KEODALAVONG) 주한 라오스대사는 "라오스에서 난치병어린이들과 아동복지를 위해 힘쓰는 재단의 도움으로 많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치료받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뇌병변 장애로 투병하며 2년전 치료비 지원을 받은 최승현 학생의 아버지 최윤영씨는 "오랜 투병생활로 희망을 잃어가던 우리 가족에게 따뜻한 손길로 힘이 되어준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다. 따뜻한 위로와 마음속 용기를 채워준 소중한 인연으로 우리 가족 역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조계사서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모연을 위한 3000배 철야정진을 봉행했다.

참가자들은 중앙승가대학교 학인스님들의 정근과 죽비소리에 맞추어 29일 새벽 3시까지 철야정진을 통해 난치병 어린이들의 쾌유를 발원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이어갔다.

재단 상임이사 묘장 스님은 "난치병 어린이들을 위해 밤새워 마지막까지 함께 한 100여분께 감사드린다. 새벽까지 간절하고 맑은 마음을 담아 온 몸으로 표현한 오늘의 기도가 난치병 어린이들에게 전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조계사 현장에서 모금된 치료비는 5월 말까지 온라인 모금을 지속한 후, 치료의 시급성과 생활환경 등에 대한 선정 회의를 거쳐 난치병 어린이 지원 대상자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02)723-5101, 후원계좌 : 하나은행 271-910005-95104

박진형 기자

공불련 "공심으로 국민 섬기자"

월정사서 4월 28~29일 합동수계법회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김상규)는 4월 28~29일 오대산 월정사에서 제26차 성지순례 및 제19차 합동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공불련 회원과 가족 250여 명이 참가했다. 공무원 불자들은 "공심으로 국민을 섬기고, 나라 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먼저 4월 28일에는 수계법회가 열렸다. 김상규 공불련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수계를 받아 다시 한 번 부처님의 제자가 될 것을 다짐하고 앞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념 스님은 수계법문에서 "오계를 잘 지키고 실천하며, 부처님의 제자로서 공직사회의 큰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규 공불련 회장이 공심복무를 강조하고 있다.

공무원 불자들은 저녁공양 후 월정사 포교국장 각엄 스님의 지도로 목탁 집전을 배웠으며, 이어서 진행된 임원단 회의에서 2018년 주요 일정 및 각 기관불자회 일정을 공유했다.

노덕현 기자



실제 VR장애체험 화면 중 '주변시야 장애' 코스. 주변이 어두워져 홀로 터널에서 밖을 바라보는 것 같았다.

눈앞이 흐려지자 지독히도 혼자였다

박진형 기자의 VR시각장애체험기

덕양행신장애인주간보호센터 개발 프로그램

VR(가상현실)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수탁 운영 중인 고양시 덕양행신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국내 최초로 VR장애체험실을 마련했다. 가상현실 체험으로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겠다는 목적이다. 그렇다면 얼마나 잘 만들었을까? 5월 2일, 센터를 방문해 직접 체험해봤다. **글=박진형 · 사진=윤호섭 기자**

얼마 전 시내에 마련된 VR게임방에 친구들과 찾아가 VR을 체험해본 적이 있다. 예상보다 색다른 경험이었고, 제법 재미를 느꼈는데 VR로 장애체험을 한다니 꽤 신선하게 느껴졌다. 바로 이 호기심 하나가 고양시로 발길을 이끌었다. 하지만 1시간 가까이 이동을 하면서도 '**VR로 정말 장애체험이 가능할까?**' 라는 의구심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다.

센터에 도착해서는 담당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바로 VR장애체험을 시작했다. 커다란 헤드셋을 끼고 손에 도구를 쥐는 데 잠시 버벅거렸지만 이내 적응할 수 있었다. 그리고 고개를 좌우로 돌리며 살피니 '저시력 시각장애인'의 4가지 시각장애 분류가 나타났다.

안경도수 -11의 타고난 고도근시로 인해 이른바 '맹꽁이 안경'을 끼고 살아온 나였다. 그렇기에 저시력 시각장애에 대해서도 나와 증상이 비슷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아왔다. 하지만 체험이 시작되고 내 눈앞에 여태껏 볼 수 없었던 세상이 펼쳐지자 나도 모르게 탄식을 뱉었다.

내가 VR헤드셋을 착용하고 처음 마주친 것은 '중심시력장애' 코스였다. 시야의 중심부가 어두워 보이지 않는 증세였다. 마치 누군가가 내 눈앞에 검은 주먹을 갖다 놓은 것 같았다. 내게 주어진 미션은 ATM에서 돈을 송금하는 것. 주변 환경은 익숙했지만 똑바로 서 있을 수 없었다. 정자세에서 ATM 화면의 글자를 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카드를 꺼내려다 바닥에 떨어트리기도 일쑤.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는 동안 몸을 이리저리 비틀고 고개를 위, 아래로 움직여야 했다. 그래야만 보였다. 간단한 출금을 하는데도 온몸을 비틀었더니 어느새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다.

겨우 송금을 마치고 '주변시야장애' 코스로 넘어갔다. 중심이 어두워졌던 직전과 반대로 이번에는 주변 시야가 어두워졌다. 터널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것만 같았다. 미션은 횡단보도 건너기. "이번 코스는 쉽네요." 나는 코웃음 치며 횡단보도로 달려갔다. 그런데 금세 '쿵' 하며 헤드셋에서 진동이 울렸다. 시야가 좁아져 미처 보지 못한 가로수에 부딪힌 것이다. 한 번 장애물에 부딪히자 또 다른 무언가에 부딪히진 않을지 불안감이 고조됐다. 우여곡절 끝에 횡단보도에 겨우 도착해 파란불에 발을 뗐다. 그런데 갑자기 왼쪽에서 '끼익' 하고 자동차가 급브레이크를 밟는 소리가 들렸다. 위기를 느낀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웅크렸다. 바로 옆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고개를 한참 돌려야 현장이 보였다. 안도의 한숨을 쉬는 찰나, 이번에는 반대쪽에서 '빵' 하는 클랙슨 소리에 화들짝 놀랐다. 단지 시야만 좁아졌을 뿐인데 횡단보도가 매 순간 생명에 위협을 주는 장소로 바뀌었다.

시야가 전체적으로 안개가 낀 듯 뿌옇게 흐려지는 증상인 '매질혼탁'은 그 다음이었다. 나는 화재 현장에서 비상구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손전등이 바로 앞에 있음에도 시야가 흐려 제대로 잡을 수 없었고, 계단을 내려갈 때도 바로 앞의 계단을 제대로 찾을 수 없어 조심스러웠다. 이 상태라면, 화재가 났을 때 꼼짝없이 화마에 당할 수밖에 없겠구나 싶어 아찔했다.



마지막 체험은 '비특이성 시력장애'로 시야에 얼룩이나 이물질이 낀 것 같이 보이는 증세였다. 미션은 간단한 퍼즐 맞추기. 퍼즐 조각이 몇 개 되지 않아 시야가 맑았다면 금세 맞췄을 텐데 시력장애로 인해 그림을 인식하는 것조차 버거웠다.

네 가지 체험 코스를 완수하고 VR기기를 벗자 온몸은 땀범벅이었다. 장애가 없는 이들에겐 소소한 일상이겠지만 시각장애가 있는 상태로는 평소보다 몸을 더 많이 움직여야 했고, 매사에 더욱 집중해서 행동해야 했다. 힘들었다는 생각도 잠시, 저시력에 대한 편견을 떨쳐낼 수 있었다. 시력이 낮은 것은 차치하고, 부분적으로 어두워지거나 시야 자체가 탁해지기 때문에 안경 같은 단순 도구로는 교정할 수 없는 것이었다. 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 일상생활도 어려웠다. 직접 겪어보니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의욕이 생기지 않고 위축되는 느낌이 들어 답답했다.

이번 체험을 통해 무엇보다 크게 느낀 것은 시야가 흐려진 상태에서는 지독히 외롭다는 것이었다. 겉모습만으로 상대방이 시각장애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VR기기를 착용했을 때 옆에는 든든한 사회복지사가 있었고 걷는 곳에는 부딪힐 만한 사람이 없었다. 만약 사회복지사가 옆에 없고 길거리에 사람들이 있었다면 어떤 체험도 성공적으로 끝내기 어려워 포기했을 것 같았다.

센터 복도에는 '혼자서는 우리는 거의 아무것도 못한다. 함께하면 우리는 그렇게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 헬렌켈러'라는 글귀가 쓰여 있다. 잠깐의 체험 동안에도 사회복지사에게 수없이 의지했기에 더욱 와 닿는 문구였다. 직접 겪으니 장애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고, 더욱 적극적으로 그들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덕양행신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해 장애인의 입장이 직접 돼 볼 수 있는 VR장애체험을 기획했다고 한다. 2017년 7월부터 개발에 들어가 주식회사 '페리굿'과 공동 제작했다. 이 시설은 4월 24일 시연회를 마치고 5월부터 전격 개방됐다. 센터는 빠르면 올해 안에 지체장애를 경험하는 VR도 만들겠다는 포부도 내비쳤다.



벽면에 장식된 장애인들의 캐리커쳐.

사실 센터는 꾸준히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힘써왔다. 센터 곳곳에는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시설물들을 배치돼 있었다. 지역 중학생들이 그린 센터 발달장애, 뇌병변장애인 캐리커쳐가 벽면을 장식했고, 장애인들이 평소 사용하는 도구들이 전시됐다. 전시된 구부러지는 식사도구, 텔레스틱 등은 일상에서 식사를 하거나 물건을 집을 때 필요한 도구다. 우리가 쉽게 해왔던 행동도 장애인들에게는 힘든 사투였음을 알게 했다. 이외에도 장애인 드론 탐방단,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음악회, 거리 캠페인을 꾸준히 진행 중이다.

센터는 이 VR체험이 많은 곳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 바람이 실현돼 많은 사람들이 이를 통해 장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 헬렌켈러의 말처럼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는 이들이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귀를 기울여 보아요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내고 자신을 사랑하는 연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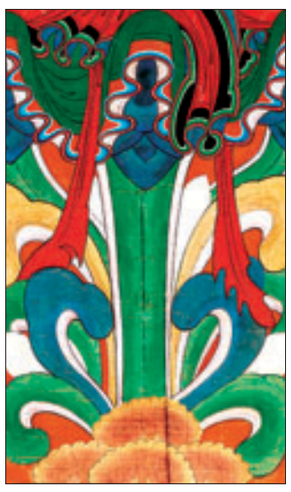


우울, 불안, 분노 정서 다스림 트라우마 치유
희로애락명상 죽음명상
자비명상 알아차림명상 통찰명상
부부, 가족 관계 문제해결
중독, 진로, 개인상담
그림, 소리, 빛, 영화 치유 명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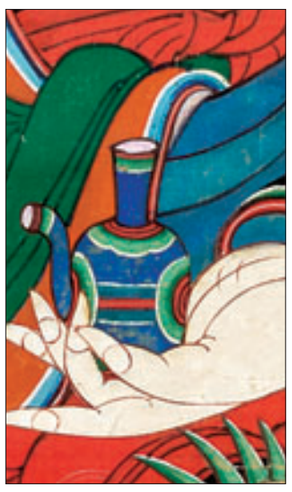
한국불교의 새희망!
힐링멘토 마가스님과 함께하는
■ 마음트레이너 교육과정 모집
■ 마음충전소 전국지사 모집

대한불교조계종 현성정사 자비명상마음충전센터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41라길 30 현성정사 | 문의 02-3216-5405 | www.jurira.org


(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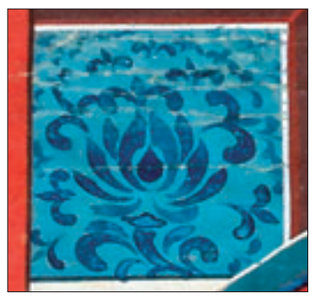

(도 2)


(도 3)


(도 4)


(도 5)


(도 6)


(도 6-1)


(도 6-2)

“운문사 칠성탱에 여래 본질 담겨있다”

오래 전에 운문사에서 머물면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그 찬란한 무량한 별빛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다. 동양은 밤의 문화이며 북극성과 북두칠성의 세계이며, 서양은 낮의 문화이며 태양의 세계다. 밤하늘에 금방 눈에 띄는 것은 북두칠성이다. 한국 사람들은 별을 둥글게 표현했지만, 서양 사람들은 빛나는 별을 그대로 표현했다. 요즘 군인들의 모자에서 보는 모양이다. 별 모양만 보아도 동서양의 표현이 이리도 다를 수 없다. 그리고 고구려 무덤을 보면 천정에 북두칠성만을 표현해 두는 경우가 많다. 북두칠성은 곧 하늘의 세계이다. 그래서 북두칠성에 대한 신앙은 아마도 가장 오랜 신앙일 것이다. 그런데 별이 둥글다는 것은 옛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별을 보주로 인식했다. 하늘에 보주가 가득 차 있는 셈이다.

보주라는 것은 모두 보석으로 알고 있지만 절대로 귀금석이 아니다. 보주에 대한 이야기는 경전에 나오지 않고 그저 막연히 보석으로 알고 왔다. 보주를 연구한지 40년, 보주가 바로 여래라는 것을 경주 월지 출토 광배에 부착했던 작은 장엄구들을 보면서 생각의 첫 단추를 옷에 꿰었었다. 그 후 보주에 대한 생각을 멈춘 적이 없었는데 마침내 여래나 보살이 보주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

대우주에 대한 소우주는 사람이다. 사람을 소우주라 말한다. 보주란 것은 우주에 충만한 기운을 압축한 것이라는 것을 불화를 연구하면서 깨쳤다. 그러니 소우주인 인간도 보주이지 않으면 안 된다. 여래가 보주라? 아마도 믿지 못할 것이다. 그런 기록은 팔만대장경에도 없으니 알 리 없다. 문자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진리를 화승들은 조형언어로 표현했다. 필자는 불화 자체에서 모든 문제들을 풀어냈다. 바로 여래는 보주이며 정수리에서 보주가 나와 위로 솟고 그 보주에서 다시 보주가 솟구쳐 나와 무량하게 우주에 충만하게 한다.

최근 미국 옥션에서 운문사가 환수한 칠성탱을 보고 여래 모습이 단정하고 상태도 좋은데다 조형이 흥미로워 글을 쓰게 되었다.(도 1) 여래의 본질을 가장 명료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라 생각하여 불자들에게 알리고 싶었다. 아래 부분은 여래를 화생케 하는 과정을 보여준다.(도 2) 그래서 화생한 여래다.(도 3) 여래의 지물이 정병인데 이런 예는 처음이다.(도 4) 천동자가 접시에 보주 7개를 담고 여래에게 바치려 한다.(도 5) 일곱여래를 상징하는 것 같다. 정병은 ‘ 주=만병’을 상징하므로 어쩌면 이 병풍은 치성광여래 일지 모른다. 칠성여래는 대개 합장하며 지물이 있는 경우가 적다. 병풍 위 부분을 보면 가장 중요한 조형이 그려져 있다.(도 6) 그 중의 한 단위를 살펴보면 불교조형들 가운데 가장 고차원의 상징을 띤 조형을 볼 수 있다.(도 6-1) 보주를 다른 식으로 나타낸 것으로 바로 여래를 상징한다. 그리고 병풍 밖으로 영기문이 충만해 있다.(도 6-2) 구름이 아니다.


제1영기싹 제2영기싹 제3영기싹

필자가 찾은 조형전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여래가 화생하는 과정은 이 세 가지로 구성돼 있다.

여래 모습 가장 단정히 보존돼
하단은 여래 화생케 하는 과정
천동자가 보주 7개 바치는데
이는 일곱 여래를 상징한다



축서사 괘불 여래 머리 정상 부분은 보주인 여래 정수리에서 보주가 나오고 보주에서 여래가 화생하고 다시 그 여래의 정수리에서 보주가 나오는 관계를 가장 잘 보여준다.

그러면 채색분석하면서 칠성탱의 본질을 추구해 보자. 우선 만물생성의 근원을 조형들을 맨 밑부분 중앙에 많이 모아 둔다.(채1) 그 양쪽으로 제3영기싹이 발산한다. 역시 만물생성의 근원인 조형이다.(채2) 다시 여러 개가 양쪽으로 발산한다.(채3) 그런 다음 제1영기싹이 모인 곳에서 세 줄기 같은 수직의 영기문이 솟구친다.(채4) 그 다음 대좌에 걸친 옷주름이 구불구불하게 내린다.(채5) 이런 구불구불한 모양은 물을 상징한다.(채6) 자, 이제 얼굴에서 이목구비와 검은 나발을 지우고 얼굴 윤곽만 남기면 타원체의 보주 위에서 보주가 나오는 형상이다.(채7) 그다음 맨 밑의 근원적인 영기문만 남기고 맨 위의 보주에서 보주가 나오는 것만 남기면, 이 칠성탱의 가장 중요한 조형만 남는 셈이다. 우리는 칠성탱의 조형을 분석하며 여래의 본질을 가장 극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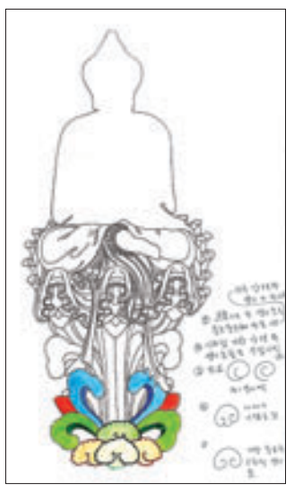
칠성탱은 19세기에 우리나라에서 창조된 불화형식으로 점점 대형화한다. 가장 한국적인 불화다. 따라서 권속도 많아지고, 사천왕도 네 귀에 배치하여 석가여래와 대등한 불화가 되어 간다.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은 원래 약사여래의 협시보살이다. 그리고 치성광여래는 지물로 법륜을 취하거나 보주를 취하여 석가여래나 약사여래와 어께를 나란히 한다. 그런 배경에서 운문사 칠성탱이 성립된 것이다. 여러 폭의 칠성탱이므로 칠성각도 규모가 컸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한 여래의 모습은 보기 드물며 여래의 본질도 파악하기 쉽다. 칠성탱의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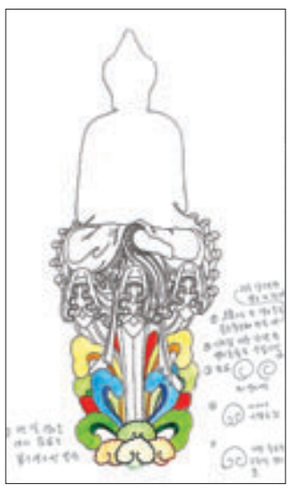
강우방 일향한국미술사연구원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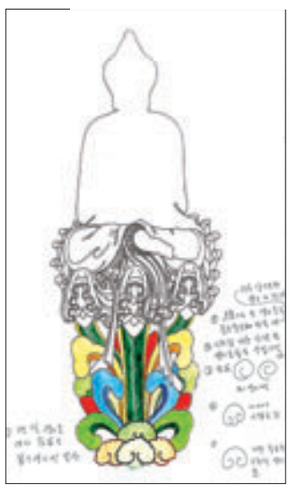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독문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고고인류학과에서 수학했다. 일본 교토국립박물관과 도쿄국립박물관에서 동양미술사를 연수하고,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미술사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68년 이래 국립중앙박물관 미술과 학술사, 학예연구관, 국립경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장 및 학예연구실장을 거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채 1)


(채 2)


(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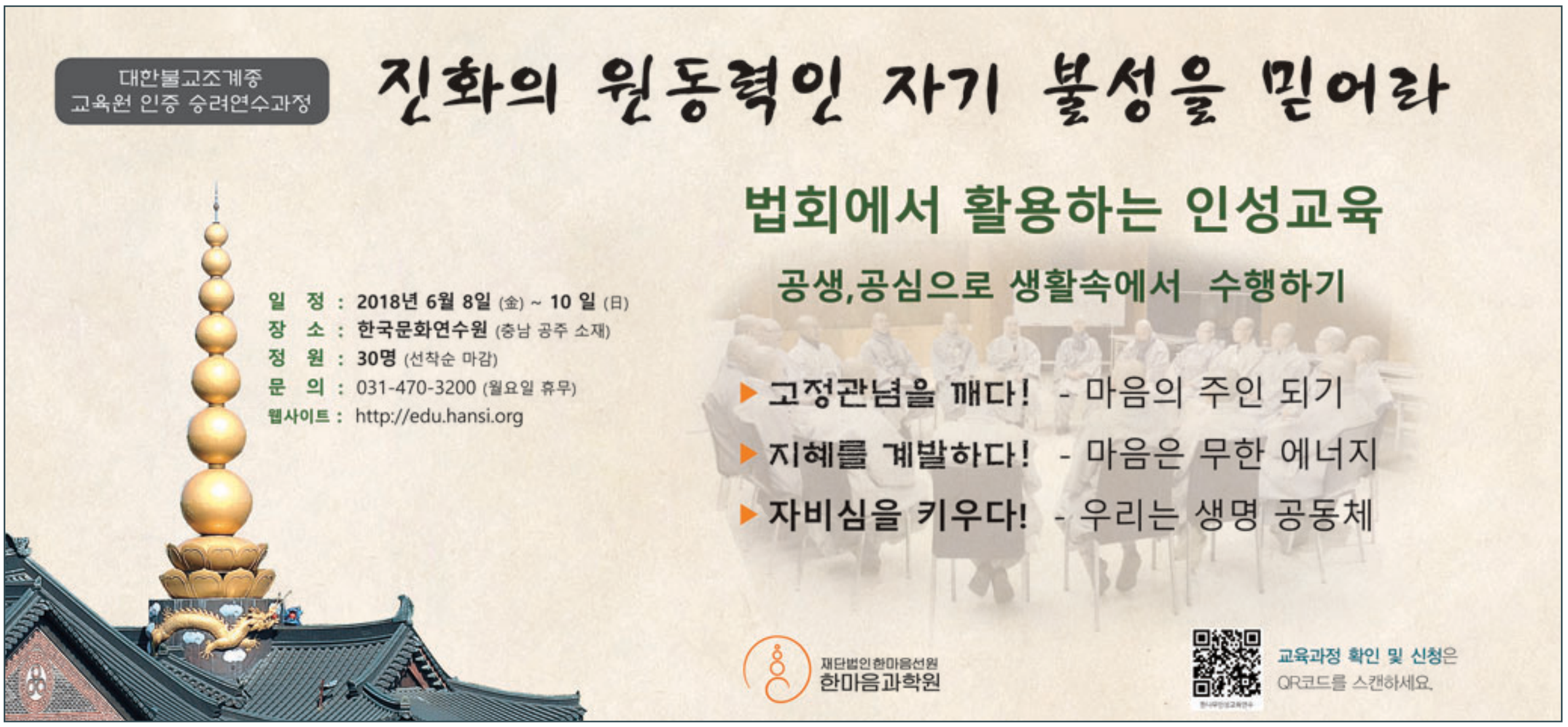

(채 4)


(채 5)


(채 6)


(채 7)


(채 8)



인연의 인드라망, 얼마나 촘촘한가!



박동춘의

초의스님 前上書

⑨ 원장 · 석훈의 편지

조선 후기 초의에게 보낸 경성사 승려 원장(元長)의 편지에는 불화에 능했던 초의가 승려의 영상을 그리는데 관여했던 사실이 드러난다. 초의에게 선종의 초묵법(갈묵으로 그림을 그리는 기법)이 전해져 소치 허련에게 이어졌던 사실은 추사 김정희의 편지에서도 확인된다는 점에서 초의가 불화에 능했던 사실은 이미 내외에서 인정된 듯하다.

그러므로 원장이 초의에게 함월 노화상(1691~1770)의 영상(影像, 초상)을 부탁했다는 사실은 불화에 능했던 초의가 대둔사 관련 승려들의 영상을 그리는데 주도적으로 참여했음을 거듭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장은 대둔사와 어떤 연관이 있었던 인물이었을까. 이와 관련하여 원장의 법계를 추적해 보니 환로(喚老)-해원-궤홍(軌泓)-등인(等仁)-덕준(德俊)-영허-원장으로 이어졌다. 특히 그의 법계 중에 해원의 호는 함월이며 자는 천경(天鏡)인데 그의 스승이 바로 대둔사 환성 지안(喚惺志安, 1664~1729)이다.

특히 해원 함월은 함경도 함흥 출신으로 14세에 도창사(道昌寺)로 출가했다. 경장(經藏) · 율장(律藏) · 논장(論藏)의 삼장(三藏)에 모두 능통하였으며, 특히 〈화엄경(華嚴經)〉과 〈선문염송(禪門拈頌)〉에 정통하였다. 인욕행(忍辱行)이 남달랐으며 이타행(利他行)을 실천하여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했던 인물이다.

특히 스승 해원(海源, 1691~1770)은 환성 지안의 제자로, 함월(涵月)은 바로 해원의 호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원정은 대둔사의 법계를 잇고 있는 셈이다.

한편 해원 함월의 제자 궤홍(1714~1770)도 대단한 수행력을 가진 승려였다. 그의 호는 완월(翫月)이다. 12세 때 평강(平康) 보월사(寶月寺)로 출가하였고, 해원(海源)에게 불법을 배운 뒤 법맥을 이었으며, 항상 스승을 따라 수도하였다. 만년을 석왕사(釋王寺)에서 지내며 후학들을 지도하였고 이곳에서 열반하였다. 제자 각웅(覺雄) 등이 다비한 후 사리를 수습하여 부도를 세웠고 대제학 황경원(黃景源)이 비문을 지었다고 한다.

아울러 원장의 생애도 살펴보자. 그의 호는 문담(文潭)이며, 어려서 유학과 노장학(老莊學)을 배웠다고 한다. 영허(映虛)에게 나아가 제자가 되었으며 5년 동안이나 전국의 고승을 찾아 불경을 공부했다. 후일 삼각산에서 7년간 후학을 양성하기도 하였다. 2년간 표충사총섭(表忠祠摠攝)을 역임했고 노년에는 설봉산 석왕사(釋王寺)로 들어가서 스승을 극진히 봉양하였다고도 한다.

그의 비석은 석왕사에 남아 있는데 이는 제자들이 세웠다고 하니 스승에게 극진한 사제의 예를 다한 점에서 그의 수행력과 인품은 그의 제자들에게 다분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짐작된다. 따라서 원장의 법계가 대둔사와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초의에게 함월의 영상을 부탁했던 것이다.



대흥사 법계를 이은 원장과 석훈이 초의에게 보낸 편지. 사진 왼쪽이 원장의 서간이며, 오른쪽이 석훈의 편지다. 원장은 편지를 통해 먼 스승인 함월 화상의 초상을 초의에게 부탁하고 있으며, 석훈의 편지에는 초의가 스승의 비문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그럼 그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를 살펴보자. 그가 초의에게 편지를 보낸 것은 1856년 1월 10일이다. 편지의 크기는 31.8×46.7cm이다. 편지의 서두에 "경성사 거처에서 소승 원장이 삼가 올립니다(京聖寺寓 小僧元長 謹上狀)"라고 하였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된다.

수레 아래에서 고별한 지 이미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나는 동안 수차례 편지를 받았사오나 한 번도 답장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더욱 한탄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새 해가 되었지만 (문후를) 살피지 못했습니다. 기체가 이어 만중하신지요. 구구하게 사모하는 제 마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소승은 겨우 몸을 보존할 만하나 날로 쇠퇴해져서 기력이 옷도 이기지 못할 지경이니 더욱 이고통을 큰 소리로 울부짖습니다. 목어 치는 소리 속에서(魚梵聲裡) 한 해가 서로 바뀌어 (나이) 한 살만 보태졌습니다. 옛날 어리석음이 그대로이니 번거롭게 하기에도 부족합니다. 다만 말씀 드릴 것은 영각을 수년간 경영하시어 지금 완성하셨다니 참으로 뜻 있는 사람이나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 그 감동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함월 노화상(涵月老和尙)의 영상을 조성하는 일은 저의 문중에서 논의하여 약간의 돈을 수합하였습니다만 또 중간에 다 없어지는 폐를 입었는데 이는 좋은 일에 나쁜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한탄을 어찌 다 하겠습니까. 노화상의 영상과 우리 은사의 진영은 제가 있는 곳에서 다 만들려했으나 천리 먼 길을 옮긴다는 것이 실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물자를 소략하게 종정께 송부합니다. 노고를 꺼려하지 마시고 힘껏 주선하여 순조롭게 봉안하시고 우리 은사의 영답 일은 종정에게 번거롭지만 일일이 좋도록 상의하여 낭패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오직 믿겠습니다. 이 일은 문손이 할 일이니 어찌 여러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귀하의 주변에서 우리 문중에 노스님을 도와주시는 은택이 아니면 어찌 감히 시작을 도모했겠습니까. 나머지 여러 말들은 모두 종정의 구변에 달렸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잘 살펴주시길 빕니다. 1856년 1월 초10일 소승 원장 머리를 조아리며 올립니다.

京聖寺寓 小僧 元長 謹上狀 草衣大和尙 座下 入納

軒下告別 已經幾多星霜 而間承數次惠書 一未上答 尤不勝 ⿰忄夬 謹伏未審新元 氣體候連爲萬重 有慕區區 無任下誠 小僧姑保形骸 然衰狀日侵 氣力不勝 被衣之際 尤叫此苦 魚梵聲裡 歲律相換 增添一齡 依⿰忄夬 無足仰⿰忄夬第白 影閣多年經營 而今來告成 眞是有志者成 豈堪感 佩涵月老和尙影像造成事 卽爲發論於諸門庭處 如干收合錢兩矣 又値中間乾沒之弊 此所謂好事多魔 恨歎奈何 老和尙影像與吾恩師眞影 自鄙處 欲爲盡成 而千里遠程 移運實難 故博(薄의 오자)略物材 付送宗正 勿憚勞苦 力周旋 順成奉安 而吾恩師影⿰忄參事 與宗正爛商好樣區區處 無至狼狽之境 專恃專恃 此事爲其門孫者 豈不萬念 而若非貴邊吾門老眷佑之澤 安敢謀始哉 餘多說話 都在宗正口便 不備 伏惟下照 上書 丙辰 元月 初十日 小僧 元長頓首拜上

원장이 함월 화상의 영상을 준비한 과정에 대해 "함월노화상(涵月老和尙)의 영상을 조성하는 일은 저의 문중에서 논의하여 약간의 돈을 수합하였습니다만 또 중간에 다 없어지는 폐를 입었는데 이는 좋은 일에 나쁜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함월의 영상을 조성하기 전부터 비용을 염출했던 사실이 드러난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십시일반 염출했던 돈이 없어지는 변고를 입었던 듯 한데 어떤 연유로 비용이 망실되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경성사 주석 원장이 보낸 서간엔
먼 스승 함월 초상 초의에게 부탁
사제의 禮 다하는 원장 모습 '훈훈'

대흥사 법계 이은 석훈의 편지엔
초의의 스승 비문 완성 노력 담겨

또 다른 대둔사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 초의에게 의해 발의된 영각이 1857년경 완성되었다는 사실이다. 초의는 1851년경 대광명전을 완공했다. 이는 추사 김정희의 해배를 기원하기 위해 권돈인 등의 시주로 완성된 것이다. 대광명전을 완공한 후 초의는 일지암에서 떠나 대광명전 쾌년각에서 지내다가 열반하였다. 그런대 대광명전 내에 조성했던 영각의 완성 시기가 바로 원장의 편지에서 밝혀진 것이다. 이는 바로 원장의 편지에 "영각을 수년간 경영하시어 지금 완성하셨다니 참으로 뜻 있는 사람이나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 그 감동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한 내용이다. 참으로 편지의 자료적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새삼 증명된 것이라 하겠다.

다른 한편으로 초의에게 보낸 승려의 편지 중에 수암 석훈(壽庵 碩訓)의 편지가 눈에 띈다. 그와 관련된 법계를 〈불조종파계보(佛祖宗派系譜)〉에서 살펴보니 그는 호암-연담-의암-은암-경월로 이어지는 법계를 이은 대둔사(대흥사)승려이며 초의의 제자이기도 하다. 호는 수암(壽庵)이며 석훈은 그의 법명이다.

1857년에 쓴 그의 편지에 '인편에 들으니 뜻밖에도 완호법사의 비 조성하는 일을 주관하시기 위해 스님께서 천리 밖에 머무르신다고 합니다'라는 내용이 보인다. 이 시기에 초의는 추사의 상청에 조문하는 일과 완호의 비문을 받기 위해서 상경한 바가 있다.

당시 석훈도 경기도 지역에 머물며 수행을 하고 있었는지 "경기에 머무는 본사 소승 석훈이 올리는 편지(京畿留 本寺 小僧 碩訓 謹上狀)"라고 하였다. 편지의 크기는 33.0×57.5cm이다. 그가 초의에게 보낸 문안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봄 사이 뵙고 난 후 끝내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일상에서도 장탄식이 그치질 않습니다. 삼가 살피지 못했습니다. 맑은 계절 중추에 대법하의 기력 만안하시지요. 사모함이 이루 다할 수 없습니다. 소승은 멀리에서도 생각하시는 은택을 입어 죄중에도 전처럼 소식하며 지냅니다. 삼가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인편에 들으니 뜻밖에도 완호법사의 비를 조성하는 일을 주관하시기 위해 스님께서 천리 밖에 머무르신다고 합니다. 역역한 마음이 날마다 간절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항상 바라는 것을 마장 없이 잘 이뤄져서 쉽게 본사로 행차하시길 천번 만번 빕니다. 여러 말은 가는 사람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삼가 살피시길... 올립니다. 1857년 8월 16일 소승 석훈 배상 春間伏拜之後 終不聞消息 居常?歎不已 謹伏未審 淸序仲秋 大法下氣力 以時萬安 伏慕區區 無任下誠之至 小僧遠蒙下念之澤 罪中蔬食依前 伏幸伏幸 第白便聞 千萬意外 先大法師主體碑造成事 尊體留於千里之外云 譯譯之心 無日不切 常以所願者 無魔善成 而易以行次於本寺之地 千萬伏望 餘萬去人口達中 不備 伏惟下鑑 上狀

丁巳 八月 十六日 小僧 碩訓 拜上

석훈이 보낸 편지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857년 상경했던 초의의 소식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초의는 완호의 비문을 받기 위해 상경했지만 더욱 긴한 일은 자신과 평생지교를 이어갔던 추사 김정희의 상청에 조문하기 위해서이다.

실제 추사가 돌아간 해는 1856년이지만 초의가 상경해 조문을 올린 일은 그 다음해 대상(大喪) 무렵이었다. 초의는 추사의 상청에 차를 올리고 조문은 받쳐 벗의 극락왕생을 빌었다. 초의의 조문은 지금도 읽는 이의 심금을 울리는 명문이었다. 벗을 잃은 자신의 슬픔은 담담하게 읊은 이 조문은 수행자의 풍모를 드러내기에 족한 글이라 하겠다.

당시 완호의 비문을 권돈인이 썼는데 당초에는 신위가 쓰기로 약조했지만 세상의 풍랑에 휩쓸렸던 신위는 끝내 비문 글씨를 완성하기 못한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권돈인의 글씨로 스승 완호의 비를 완성했으니 스승에게 성의를 다했던 초의의 성의가 얼마나 지극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아무튼 석훈이 초의에게 보낸 이 안부 편지는 이러한 사실들을 새삼 상기시키게 한 편지라는 점에서 인연의 인드라망이 얼마나 촘촘한 것인지를 깨닫게 한다.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인가 자격증 과정

제1기 불교명상지도사
1급 과정 수강생 모집

◆ 대 상 : 불교명상지도사 2급자 및 2급 과정 수료생
◆ 교육기간 : 5월 26일 ~ 7월 28일,
9월 1일 ~ 10월 13일 (총 16주, 1회당 6시간, 총 96시간)
◆ 수업시간 : 매주 토요일 10:00 ~ 17:00
◆ 장 소 : 불교상담개발원 대강의실(성북구 개운사 內, 6호선 안암역 도보 5분)
◆ 모집마감 : 2018년 5월 18일(금) 17시 ※ 선착순 60명
◆ 교 육 비 : 108만원 ※ 카드결제 가능
◆ 신청방법 : 방문 및 팩스, 우편, E-mail(jabi7378@naver.com) 접수
※ 교육신청서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 특 전 : ①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인가 '불교명상지도사' 1급 응시자격 부여
②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 연수 인증 과정 (30점)
③ 교육비 할인 혜택(스님 40%, 종무원 및 포교사 30%)

불교상담개발원
문의 주 소 : 서울시 성북구 개운사길 59, 1층
전 화 : 02)737-7378 팩스 : 02)737-8802
홈페이지 www.kbcd.org

제 99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8년 5월 31일 개강
◆ 강의일시 :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자연의 붓질로 경영한 수묵화의 절집



노재학의
한국 산사의 장엄세계

⑨ 순천 선암사


선암사의 봄. 대웅전, 불조전 등의 내부장엄 수묵화는 선암사의 자연실경을 반영한다.

판벽에 '해(海)' 자와 '수(水)' 자 투각
구름문양에 물고기, 거북조각 화판
천정 외곽엔 선학, 내부엔 연화문양
불전내부 수묵화 장엄은 선암사 실경


선학이 취하려는 다양한 보주문양.


구름문양 반자에 얹은 물고기, 거북조각.

화재 대비한 연못, 돌담, 구름문양

선암사는 자연의 푸르름 속에 경영한 한국산사 원림조영의 자연주의 아름다움이 빛나는 절집이다. 곳곳에 조성한 연못과 활엽수, 꽃나무들이 화원(花園)의 숲을 이룬다. 화원의 아름다움을 지닌 내면에는 화재를 대비한 지혜로움도 세심하게 고려되어 있다. 선암사는 화재의 상처가 깊다. 18, 19세기에 걸쳐 70년도 안 되는 기간에 무려 네 차례의 큰 화재가 연이어서 사찰존립의 근간을 뒤흔든 참화가 있었다. 영조 35년(1759년)의 화재에 이어, 영조 42년(1766년), 순조 19년(1819년), 순조 23년(1823년)의 대화재가 잇따랐던 것이다. 빼어난 자연주의 아름다움으로 가람을 조영한 배경에는 화재에 대응하려는 다양한 지혜가 녹아 있다. 가람의 곳곳에 연못과 수조를 만들고, 무우전, 응진당, 해천당, 원통전 등의 독립권역에 돌담과 흙담이 유난히 발달한 것도 방화수와 방화벽의 기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또한 대웅전 지붕 밑 부연 착고판에, 심검당 판벽, 무량수각 판벽 등에 '바다 해(海)' 자와 '물 수(水)' 자를 투각하여 문자에 담긴 물의 기운을 빌리고 있다. 그 모두가 화기를 다스리려는 세심한 통찰지들이다.

불전건물의 내부 장엄에서도 그 같은 의지를 찾아 볼 수 있다. 불조전과 팔상전, 원통전의 천정은 온통 구름 문양으로 덮었다. 보통 법당 내부 천정반자에 베푸는 구름문양은 사람의 시선이 잘 닿지 않는 후불벽 뒤 천정반자에 화면을 채우는 소재로 활용한다. 구름문양을 천정반자의 중심문양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선암사에서는 여러 불전에서 구름문양을 중심소재로 적극 운용한다. 원통전과 불조전 우물반자 칸칸은 붉은 색 선묘로 다양한 구름을 베풀었다. 거기에다 우물반자 종다라니에 물고기, 거북을 조각한 화판을 얹어 물의 기운을 고양했다. 팔상전의 경우 기다란 청판으로 이은 평천정 전체에 왕성한 구름 에너지를 선묘로 표현해서 화기를 다스리는 의지를 드러낸다. 세 전각의 구름 모양도 가지가지다. 온갖 형태의 조합으로 구름 곡선의 미묘한 아름다움을 집대성한 형국이다. 특히 원통전 천정반자의 구름은 한 칸 한 칸이 심미적 예술감각으로 피워 올린 구름 꽃에 가깝다. 어쩌면 구름 하나를 저토록 다양하고 심오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 놀라울 뿐이다.

길상과 수행자를 상징하는 선학

1147년의 기록으로 전하는 〈조계산선암사 대각국사 중창건도기〉에 의하면 대웅전은 원래 미륵전이며, 2층 중층건물이었다. 지금처럼 1층으로 된 것은 정유재란 이후 17세기 중창과정 때로 추정한다. 목판을 보관하고 있는 장경각도 원래 중층건물이었으나, 일제 때 단층으로 축소 개조했다. 지금의 대웅전은 1823년 대화재 이후, 1824년 중창불사 때의 모습으로 알려진다. 천정은 층층이 들여쌓은 3개 층의 층급 우물천정이다. 상,중,하 3개 층을 가진 층급천정은 통도사 적멸보궁과 불국사 대웅전 등에서 간혹 나타나는 공력 들인 구조다.

우물천정에 베푼 문양은 두 가지다. 하나는 머리에 붉은 점을 가진 단정학(丹頂鶴), 곧 선학(仙鶴) 문양이고, 다른 하나는 기하적인 패턴으로 도식화된 팔엽연화문이다. 선학 문양은 하층천정의 사방 가장자리 한 줄에만 경영했다. 선학이 베풀어진 우물칸 수는 모두 55칸이다. 사방 가장자리에 결계를 치듯 선학 문양으로 신성한 사각 틀을 이룬 후, 내부에 팔엽연화문으로 화장세계를 장엄했다. 선학 문양으로 천정 외곽을 한 바퀴 두르고, 그 안에 연화문을 장식하는 기법은 조선 중후기 서남해안 지역의 사찰에서 두루 나타난다. 나주 불회사 대웅전,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해남 대흥사 천불전,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 등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또 공주 갑사 대적전, 고성 옥천사 대웅전, 청송 대전사 보광전 등에선 선학의 집합성으로 나타난다. 선암사의 경우 여러 불전 건물에 선학 문양을 볼 수 있다. 원통전 정면 돌출 천정에도 대웅전과 같이 가장자리에 선학을 두르고 중앙에 연화문을 배치했다. 장경각과 지장전 천정반자에서도 선학문양이 나타난다.

그런데 대웅전 선학은 저마다 보주를 입에 물고 있다. 선학이 가진 길상의 의미에 인간이 현실에서 실현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고 있다. 선학은 대체로 장수의 이미지를 갖는다. 나주 죽림사 극락보전 선학의 경우 보주 대신 산삼을 입에 물어서 선학 고유의 불로장생 이미지를 부각한다. 또한 선학은 고고한 영적인 존재로서 한적한 곳에 은거한 선비나 수행자에 곧잘 비유된다. 선학을 깨달음을 추구하는 수행자나 아라한으로 이해하면 보주는 진리의 관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내부의 팔엽연화문 역시 단순한 꽃 장식이 아니다. 가장자리를 제외한 천정 전체가 팔엽연화문이다. 대부분의 연화문 화심부엔 둥근 원만 있지만, 몇 곳에선 범자 '옴'이 남아 있다. 범자 '옴' 자는 진리 그 자체인 법신 비로자나불의 상징으로서, 그 한 자에 진리의 빛과 성음이 담겨있는 일종의 특이점이다. 불교세계관으로 볼 때 빅뱅우주설의 근원인 태초의 한 점에 비유할 수 있다. 즉 돔-팔엽연화문의 패턴 반복을 통해 법계 우주에 가득한 진리와 자비의 광대무변한 세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선학이 입에 문 기상천외한 보주

대웅전 천정문양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선학이 취하려 하는 보주(寶珠)의 다양한 표현에 있다. 불교장엄에서 보주가 등장하는 곳은 여래의 머리 위로 솟구친 정상계주나 불보살의 상징지물, 연화문 단청문양에서, 혹은 용, 봉황, 사자, 선학 등의 서수(瑞獸)가 취하려는 동작 등에서 함께 나타난다. 보주는 가진 주체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어 진다. 대체로 보주는 여래, 무상정등각, 진리와 자비, 신통력 등을 상징하는 신비로운 결정체로 요약될 것이다. 그런데 통상 보주는 지장보살의 지물처럼 흰 구슬 모양이거나 붉은 구형으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선암사 대웅전 천정의 55칸 반자에 표현한 선학의 보주 형태는 대단히 독특하고 신비로워 주목을 끈다.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다양한 변주가 인상적이다. 그 모양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①목성처럼 구에 색 띠를 두른 형태. ②복주머니 모양. ③호리병 모양. ④목탁 모양. ⑤동심원형태. ⑥두 개의 원형 고리를 연결한 칠보문 형태. ⑦만(卍)자를 넣은 떡살무늬 형태. ⑧계란 프라이 형태. ⑨여러 개의 붉은 원을 중첩한 형식. ⑩붉은 테두리만 가진 원. ⑪콩나물처럼 생긴 뇌록색 보주. ⑫가지에 달린 천도(天桃) 모양의 뇌록색 보주 등등의 기상천외한 형상들로 표현하고 있어 경이롭다. 이런 다양한 보주의 형상들은 선학의 길상을 통하여 삶의 수복강녕과 복록을 추구하는 염원의 반영으로 보인다. 복주머니 모양이나 칠보문, 가지에 달린 천도(天桃) 형상 등은 인간의 수복강녕과 길상을 담은 문양이기 때문이다.

호남의 회화특성 반영한 수묵화

선암사 대웅전 단청장엄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남도지역의 회화적 특성을 반영한 풍부한 수묵화 장엄에 있다. 대웅전 내부 포벽, 내목도리 위 상벽, 창방, 평방 등에 먹을 중심 색채로 한 수묵화가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수묵화의 붓질은 사군자, 산수화, 화조도 등 남종문인화(南宗文人畵) 경향이 뚜렷하다. 이런 장엄의 경향성은 대웅전뿐만 아니라, 불조전, 팔상전, 장경각 등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지금은 불화에 가려 볼 수 없지만 장경각 후불벽에서는 사찰장엄으로는 희귀한 〈소상팔경도(瀟湘八景圖)〉 산수화까지 8폭 병풍 형식으로 남기고 있어 문인화가 발달한 호남지역의 특성을 엿보게 한다. 대웅전 포벽, 상벽에 그린 수묵화가 45점, 창방, 평방에 진채로 그린 화훼도, 화조도 등이 13점에 이른다. 매화, 대나무, 난초 등의 사군자와 가지가 늘어진 수양버들 등을 중심소재로 삼았다. 그 중 먹으로 매화를 그린 묵매도가 다수를 차지한다. 그런데 묵매도 등의 나무 수형의 표현에서 실물의 형상을 소묘한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한다. 대웅전 포벽의 여래도와 나한도, 각황전의 나한도와 보살도를 제외하면 단청 별지화의 대부분은 꽃과 나무 그림이다. 더구나 매화와 수양버들 그림이 유난히 많다. 왜 그럴까? 그것은 아마도 선암사의 자연환경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 같다.

순천 선암사는 우리나라에서 고매(古梅) 군락의 집단성을 이룬 유일한 곳이다. 수령 150년이 넘는 고매가 선암사에 22그루나 식생하고 있다. 무우전 돌담길과 대웅전 뒤, 원통전, 장경각, 해우소 부근 등 경내 곳곳에서 기품 있는 고매가 가지를 드리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천연기념물 백매와 홍매도 그 곳에 있다. 또 수양버들처럼 가지를 축축 늘어뜨리며 4월에 꽃을 피우는 처진올벚나무도 곳곳에 식수되어 있다. 수백 년 된 영산홍과 자산홍, 왕벚 등 봄이면 절집이 만화방초의 꽃 대궐을 연출한다. 자연환경 자체가 불국정토의 화원이고, 장엄세계다. 승장의 붓질이 달리 다른 곳에서 장엄소재를 찾을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른다. 선암사 스스로가 자연의 붓질로 장엄한 수묵화이고, 진경산수화이기 때문이다.

〈사진작가〉

봉 천불사 대웅전 낙성 대법회 축

새봄을 맞이하여 귀댁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분들을 모시고 "천불사 대웅전 낙성식"을 올리고자 하오니
바쁘신 줄 아오나 부디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 시 : 2018년 5월 13일 일요일 10시
• 장 소 : 천안 천불사
* 식전행사 : 전남도립 국악단 종묘제례악 연주




▼ 초 청 ▼
◇ 前일본수상 하토야마 유끼오 사마
◇ 세계 영적종교지도자 오카다 꼬우오우 사마
◇ 대한불교조계종 원로의원 천불사 조실 인환 대종사
◇ 한 · 일 · 중 명사클럽 시츠케회 회장 이또오 나오꼬 사마
◇ 인도 · 동남아 지역 종교지도자 및 실업인

※ 국제행사이므로 동참하실 분들은 미리 참석여부를 알려주시면 의전을 통해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한국불교교육대학 대학원 천불사
학장 철학박사 석인경(太山 印鏡) 합장

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교천지산길 338-16 (지산리 113번지)
전화 041)557-3223. 010-5423-1388 | 팩스 041)556-1388 | 이메일 : cbt1388@hanmail.net

사주 명리계의 최고의 베스트셀러!!! 사주공부의 바르고 가장 빠른길!

맹파명리!

《맹파명리》 책에 수록되어 있는 빈주(賓主), 체용(體用), 형(形)과 기(氣), 주공(做功), 간지허실(干支虛實), 상법(象法), 지지의 천(穿), 파(破), 정국(正局) · 반국(反局) 등을 통하여 기존 전통명리와는 다른 맹파명리의 촌철살인의 판단방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독자들은 《맹파명리》를 통하여 그동안 잃어버렸던 명리학에 대한 경외심과 신심을 회복할 것이다.



▶ 전국 유명서점 판매중 ◀
Daum 카페 : "맹파명리" 검색

명불허전, 최고 절정의 맹파명리
사주 명리계에 있어서 중국 본토를 완전지배한 맹파명리! 한국 상륙!
법조계, 정치계, 경제계, 언론계 지식인의 최고찬사 맹파명리.
새로운 개념, 새로운 논리로 길흉을 정확히 해석해 내는 맹파명리!

맹파명리를 통하여 명리(사주)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했다는 한결같은 찬사!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 5시
매주 목요일 오후 5시 ~ 8시 (저자 직강)
맹파입문반, 혼인반, 재관반, 직업반, 간지상법반, 음양풍수반 순환주기로 강의
강의장소 : 1호선 종로3가 2번 출구 바로 앞 유니클로 옷가게 좌측 영흥빌딩 502호
강의문의 : ☎ 02)765-1468, 010-7143-0543

직접 택배로 받아 보실분은 주소, 성명, 연락처를 알려주시고 송금 바람.
구입문의 : ☎ 02)765-1468. 010-7143-0543
입금계자 : 국민은행 638702-01-372376 (예금주 : 박형규)

‘돈’ 보다 ‘가치 있는 일’에 몰두하라



윤성식의
불교 속 부자되는 법

⑨ 돈보다 더 좋은게 있을까?

부처님이 돈을 많이 벌라고 하셨지만 돈이 최고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 설사 돈이 최고일 정도로 중요하다고 해도 돈이 전부는 아니다. 다만 돈이 많으면 복 받은 삶을 살고 세상에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다. 경전을 보면 염라왕은 부자로 태어나고 동시에 깨달음을 위해서 출가하여 도를 배우겠다는 원을 세우고 있다. 재물을 얻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깨달음을 추구하여 궁극적으로 지혜와 참된 행복을 지향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물질과 정신이 조화를 이루어야 불교가 추구하는 중도가 실현된다. 비록 재물을 얻었지만 재물에 빠지지 않고 극복하여 깨달음의 길로 가야한다. 재물이 많은 것이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이라면 도를 배워서 깨달음에 도달하는 것은 정신적인 축복이다.

〈중아함경〉은 “사람으로 태어난다면, … 지극히 크고 부하고 즐거워 재산이 한량이 없고 목축과 산업이 헤아릴 수 없으며, 봉호(封戶)와 식읍(食邑)과 여러 가지를 구족한 집에 태어나리라. 태어난 뒤에는 깨달음의 근(根)을 성취하여, 여래께서 말씀하신 바른 법의 율에 깨끗한 믿음을 얻기를 원하고, 깨끗한 믿음을 얻은 뒤에는 수염과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고, 지극한 믿음으로 집을 버리어 집이 없이 도를 배우며 오직 위없는 범행을 마치고 현재에 있어서 스스로 알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증득하여 성취하여 노닐며, 생이 이미 다하고 범행이 이미 서고 할일을 이미 마쳐, 다시는 후세의 생명을 받지 않는다는 참뜻을 알리라.” 행복을 위해서는 재물이 풍족해야 한다는 필요조건 이외에도 깨달음의 길을 가는 추가 요건이 필요하다. 불자라면 돈이 행복의 충분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돈이 많으면 분명 행복에 유리하지만 행복은 돈 이외에도 필요한게 있다.

미국에서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아이비리그 대학 출신의 최고 엘리트가 사람을 속이고 무한경쟁 속에서 미친듯이 일하며 ‘돈, 돈’하는 생활이 싫어 직장을 그만둔다. 이들이 시골의 조그마한 마을 도서관에 근무하거나 산림감시원으로의 삶에 만족하며 사는 생활을 ‘자발적 빈곤’이라고 부른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돈이 최고가 아니기에 이들은 돈 버는 생활을 포기하고 소욕지족의 삶을 산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서 깨달음의 길을 병행할 수 있다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여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당연히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 돈이 적어야 깨달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돈을 벌려고 아등바등하는 일이 깨달음에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깨달음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

미국에서 부자라면 세계에서 부자다. 미국의 부자 카네기는 철강산업의 강자였고 록펠러는 석유산업의 강자였다. 둘은 활동하는 산업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최고를 놓고 경쟁했다. 록펠러가 철광 광산에 투자하여 카네기를 위협하자 카네기가 거액을 지불하고 록펠러의 철광 광산을 구입하기도 했다. 카네기는 록펠러에 비해 일찍 은퇴했다. 자신의 철강 회사를 J. P. 모건이라는 금융가에게 매각하고 거액을 기부활동에 사용했다. 카네기는 대학, 도서관, 공연장을 세웠다. 록펠러는 카네기가 은퇴한 뒤에도 경쟁심을 버리지 못했나보다. 그러나 카네기가 은퇴한 뒤에 록펠러가 카네기에 보인 경쟁심은 나름 좋은 경쟁심이었다. 기부를 놓고 경쟁했기 때문이다. 록펠러는 카네기보다 훨씬 오래 산 탓인지 기부금의 액수는 카네기보다 더 많았다.

카네기나 록펠러는 불자는 아니었지만 그들의 후반부 인생은 내게는 마치 불자의 바람직한 경제생활을 보는듯했다. 그들은 돈을 벌고 난 뒤에 돈보다 더 중요한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듯 돈을 멋지게 썼고 그만큼 행복했다고 믿는다. 연구에 의하면 사람이 좋은 일에 돈을 사용하면 행복도가 높아진다. 그들은 돈을 쓰면서 돈을 벌 때보다 더 큰 즐거움을 맛 보았으리라.

출가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하는 것은 세속의 삶이 깨달음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만약 세속의 삶이 도움이 된다면 왜 출가하겠는가? 모든 사람이 다 출가할 수 없기에 세속에 살면서 깨달음의 길을 가는 수행자의 삶을 살면 된다. 일본은 10년 동안 길고 긴 경제침체기를 겪었으며 이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말한다. 그 뒤에도 다시 10년 동안의 침체기가 이어지자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표현한다.

일본에서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한 젊은이들이 작은 것에 만족하며 소욕지족의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사토리 세대 즉 ‘득도 세대’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즉 도통한 세대라는 의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젊은이의 행복도가 나이든 사람보다 더 높기에 혹시 젊은이들이 이미 소욕지족의 경지에 도달한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든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고 비정규직을 전전하며 욕심을 낸다면 삶은 더욱 불행해진다. 이러한 자포자기나 의기소침이 불교가 지향하는 깨달음의 경지는 아니다. 다만 일본의 사토리 세대로부터 삶에서 진정 무엇이 중요한가를 엿볼 수 있다.



그림 · 박구원

많은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마치 자발적 가난을 추구하는 월스트리트의 소수 엘리뜨처럼 재벌기업이나 남들이 좋다고 하는 직장을 꿈꾸지 않고 소박한 공무원을 꿈꾼다. 이것 또한 불교가 추구하는 깨달음의 경지는 아니지만 젊은이들이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이미 느낀 것이

돈보다 더욱 소중한 것 ‘행복’
무미건조한 삶은 행복도 저하
건강과 함께하는 ‘노동’ 중요

아닐까? 증지부(增支部)에는 부의 다섯 가지 전제를 명심했는데도 재산이 감소할 경우 ‘부가 전제로 하고 있는 그것들을 내가 명심하고 있는데도 재산이 나로 인해 감소해 가는구나’라고 생각하여 후회하지 않고, 재산이 증대하면 ‘부가 전제로 하는 것들을 명심하였기 때문에 재산이 증대하는 것이로구나’라고 생각하여 좋아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하고 있다. 돈이 중요하지만 최고도 아니고 전부도 아니기 때문에 깨달음의 길을 가는 수행자로서 살아야 재산이 감소해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재산이 증대해도 담담하게 볼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한다. 돈이 늘어나면 좋겠지만 수행자는 ‘자발적 가난’의 심정으로 재산이 줄어들어도 슬퍼하지 않는다.

조선시대 선비들의 삶을 보면 세끼 먹기 힘들 정도로 가난해도 선비의 체모를 손상한다고 생각되는 천한 노동은 하지 않았다. 선비에게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음에 틀림없다. 비록 그것이 착각이었다고 해도 … 가난하지만 화목한 가정을 꾸리면서 미래에 가난을 벗어날 가능성을 보는 사람은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말에 공감한다. 아내가 가난을 참지 못하고 가출하고 아이들이 아파도 치료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장애인 가장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에 전혀 공감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돈은 이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 행복의 필요조건이지만 결코 충분조건은 아니다. 즉 행복에 돈은 꼭 필요하지만 돈 만으로 행복해지지는 않는다.

바야흐로 100세 시대이다. 요즘은 90세 정도는 살아야 많이 살았다고 생각한다. 문상을 갔다가 90세 이전에 돌아가신 것을 알면 요즘으로는 빠르다고 말한다. 100세 시대가 되다보니 은퇴하고 너무 긴 세월을 자칫하면 무료하게 보내야 한다. 연금이 든든한 은퇴자들이 삶이 지루하다고 말하면 남들에게는 사치스럽게 들리겠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주변에 은퇴하고서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은 몸이 아프지 않는 한 열심히 활동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이 도시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은퇴한 뒤에 자연 속에서 농사 짓는 생활은 쉽지 않은 대안이다.

직장인은 은퇴하면 대부분 무료하게 시간을 보낸다. 그나마 은퇴 후에도 무언가 일을 하는 사람은 전문가들이다. 의사와 변호사들이야 은퇴라는 시기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기에 나이 들어서까지 일을 한다. 교수처럼 65세가 되어 강제로 은퇴를 하면 어떤 의미에선 은퇴 생활을 강요 받는 장점도 있다. 어떤 변호사는 자신도 교수처럼 강제은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내가 이유를 물었더니 나이가 들었는데도 일이 계속 들어오고 그러다보니 계속 일하게 되는데 이제는 강제로라도 쉬고 싶다는거다. 많은 사람이 은퇴하고 편안하게 휴식하는 것을 꿈꾼다. 그러나 과연 이런 생활이 좋은걸까?

미국에서 1,200명을 80년간 추적하여 조사한 유명한 연구가 있다. 80년간 지속된 연구다보니 처음 연구를 시작한 교수가 제자 교수에게 물려주고 80년을 이어온 것이다. 어떤 사람이 오래 건강하게 사는가를 조사했는데 뜻밖에도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한 사람은 오래 살지 못했다. 최대한 부지런히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했던 사람이 오래 살았고 삶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다. 무사 안일한 삶은 자극이 없고 그런 삶은 무미건조하며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 삶에는 적절한 긴장 즉 창조적 긴장(creative tension)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삶에 지나치게 스트레스가 많으면 안 좋지만 너무 편하면 역시 안 좋다. 약간의 긴장이 있을 정도의 삶이 제일 적절하다. 이러한 설명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도움이 안된다면 수치로 설명할 수 있다. 어떤 일을 할 때 지나치게 어려우면 즉 성공 확률이 20%이면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안 좋다고 한다. 지나치게 쉬우면 즉 성공확률이 90%쯤 되면 역시 사람을 안일하고 게으르게 만들어 안 좋다. 일의 성공확률이 50%쯤 되면 적절한 긴장과 도전을 주기 때문에 좋다.

내 주변에 오래 동안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전문가, 예술가들이다. 특히 대학교수 중 나이들어서도 계속 강의하고 책을 펴내는 경우가 있는데 참으로 축복받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연세대 명예교수인 김형석교수는 97세인데 지금도 강의 일정이 빽빽하게 짜여 있고 매년 책을 펴내고 있다. 인공지능의 시대에는 웬만한 단순 작업은 인공지능이 도맡아서 하기에 인간은 지적으로 우수하지 않으면 100세 시대에 무료하고 하찮은 삶을 살게 될 수 있다. 지금이야 말로 많이 배우고 나만의 기술을 가져야 한다. 부처님은 최고로 축복할만한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많이 배우고 기술을 몸에 익히며 편안한 마음으로 일을 계속하는 것’이라고 답하고 있다.

불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축복할만한 삶은 100세 시대에 이상적인 삶과 일맥 상통하다. 어떤 일을 하건 건강이 허락하는 한 죽는 날까지 창조적 긴장을 주는 일을 해야 한다. 인공지능의 시대이기에 많이 배우고 특별한 기술을 갖지 않으면 정부가 제공하는 기본소득에 의지해서 살아야할지도 모른다. 어설픈 지식과 기술보다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을 가진 사람이 평가 받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환자를 돌 볼 수 있다고 해도 진짜 인간이 간호하는 것이 최고이다. 눈으로는 아무리 구별할 수 없어도 짝퉁이 아닌 진품을 찾는 인간 심리처럼 말이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면 열심히 배우고 나만의 기술을 갖는게 100세 시대에 가장 축복할만한 일이다. 젊을 때는 쾌락과 돈이 최고이지만 나이가 들면 건강과 지식, 기술, 예술이 최고다. 죽는 날까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몰두하는 것이 제일 좋다.

부처님이 돈을 열심히 벌라고 하셨지만 자나깨나 ‘돈, 돈’하면 불교적 삶이 아니다. 부처님이 경전에서 말씀하셨듯이 ‘편안한 마음으로 일을 계속하는 것’이 최고로 축복할 만한 일이다. 따라서 돈을 벌 때도 편안한 마음으로 돈을 벌 수 있어야지 죽기 살기로 벌거나 부자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아등바등하면 안 된다. 담담하게 물 흐르듯 최선을 다하며 경제생활을 영위해 가는 것이 불교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경제생활이다.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	연 락 처
대 구 지 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0-2813-8008
부 산 지 사	이 도 경	051)405-9402 /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512-5003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0-8642-7733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영 주 지 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0-9373-3778

굴셀건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

죽음 앞에서 보여준 어머니의 마음



원욱 스님의 경전산책

⑰ 불설녹모경(佛說鹿母經)

5월 8일은 어버이날이다. 부모님을 향한 그리움에 마음이 절절해진다. 부모님의 은혜에 관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는 〈불설부모은중경〉이 잘 알려져 있고, 부모님의 은혜를 갚기 위한 자식으로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부모은난보경〉이 대표경전이다. 부처님은 오백 번의 생을 사시면서 선업을 많이 쌓아 그 공덕으로 부처님이 되었다. 부처님의 전생 중에서 부모의 마음이 잘 나타낸 〈불설녹모경〉은 사람의 부모이야기가 아니다. 축생의 삶을 통해 살생하는 이의 마음을 움직여 한 나라에 사냥금지령을 내리도록한 가르침이 담겨져 있다.

일본 동대사에 가면 절 앞마당에 사슴이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닌다. 절 앞에 사슴을 왜 기를까? 아마도 부처님의 첫 설법지가 녹야원, 사슴동산이라서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찰에서 받으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불설녹모경〉 영향도 있다. 그런데 동대사는 이 사슴 때문에 대불전 뒤의 멋진 사찰풍광을 못보고 사슴구경하다가 바쁘게 떠나는 것을 보면 참 아쉽다. 〈불설녹모경〉은 축법호가 번역하여 한글대장경 195책 〈해탈도론〉 p488에 수록돼 있다. 부처님을 대표하는 정체성은 자비다. 이 경에서 그 자비의 마음을 바로 볼 수 있다.

부처님이 전생에 사슴으로 태어나 수백 마리와 함께 평화롭게 살며 좋은 풀이 많은 곳을 찾아 떠돌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까지 내려왔다. 마침 국왕이 그 곳으로 사냥을 나오자 사슴들은 놀라 각기 다 흩어져 버렸다. 임신한 사슴 한 마리가 도망가다 지쳐 쓰러진 채 새끼를 낳았다. 먹이를 구하기 위해 새끼를 두고 잠깐 자리를 떴다가 그만 사냥꾼에게 잡혀 죽게 되었을 때, 어미 사슴은 눈물을 흘리며 새끼 사슴을 걱정하여 잠시 풀어주면 새끼들에게 살아가는 법만 알려주고 다시 돌아와 죽겠노라고 애원한다. 사냥꾼은 사슴이 사람처럼 말하는 것을 듣고는 매우 놀랐지만 왕에게 사슴을 사냥에 성공한 것을 보여주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에 사슴의 애원이 귀에 들리지 않았다. 어미사슴은 무릎을 꿇고 다시 간절하게 애원했다.

"저의 부탁을 들어주면 새끼들이 살고, 저를 붙잡아 두면 새끼들이 죽습니다. 부디 저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우리가 이별할 시간이라도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저는 새끼들에게 당부할 말을남기고 반드시 그대에게 돌아와 죽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사냥꾼은 기가 막혔다.

"내가 너를 믿을 수 없다. 사람도 신의를 지키지 않는데 내가 너를 놓아주었다가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낭패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대여, 비록 이 몸은 미천한 축생이어서 사람의 올바른 삶을 알지는 못하나 어찌 자애로운 은혜를 받고서 모른 척 할리 있겠습니까? 차라리 온 몸이 갈가리 찢기는 고통을 받을지언정 거짓말로 살기를 원하진 않겠습니다. 배고픈 새끼가 너무 안타까워 저 대로 두면 굶어죽으니 잠깐 시간을 주시면 살아가는 방법만 일러주고 돌아오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냥꾼은 도저히 모른 척 할 수 없어서 어미사슴을 풀어준다. 그리고 몰래 따라가 어미사슴이 새끼들에게 살아가는 방법을 찬찬히 가르치더니 드디어 울며불며 헤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사냥꾼도 눈물을 흘렸다. 사냥꾼이 서둘러 돌아와 나무아래 눈을 감고 잠이 들었는데 어미사슴이 사냥꾼을 흔들어 깨우며 신의를 지켜 돌아왔음을 알렸다. 사냥꾼은 그 길로 왕에게 가서 모든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 하니 왕이 사슴을 풀어주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온 나라 국민이 이 일을 듣고 사슴의 어진 행동에 모두 감동하자 왕은 드디어 사냥금지 국가임을 선포했다. 부처님이 이야기를 다 마치시고 아난을 사랑스럽게 쳐다보며 한 말씀하신다.

"그 때 사슴이 나였단다. 두 새끼는 라훌라와 나한주리모이고, 국왕은 사리불, 사냥꾼은 바로 너란다. 비록 축생의 몸이었지만 우리는 보살의 마음을 잊지 않고 방편을 써서 중생을 이롭게 인도하였고 다시 또 이렇게 만났다."

〈서울 반야사 주지〉

깨닫는 불교는 기복불교와 다르지 않다



김원수의 〈금강경〉 강의

⑯ 〈금강경〉으로 이루는 소원

"그렇다. 너는 부처님과 같이 매우 위대한 존재인 것이다. 너는 지금까지 경험한 행(幸), 불행(不幸)이 모두 네가 불러온 것이라 생각지 않겠지만, 실은 모든 고난과 행복은 다 네가 불러온 결과인 것이요 네 뜻대로 이루어진 결과였다. 왜냐하면 너는 부처님처럼 위대하고 존귀한 존재이기에 시시각각으로 네 소원을 다 이루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열등하다는 마음, 아니 된다는 분별심을 부처님께 다 바쳐라. 그리하면 열등하다는 마음이 사라지면서 바로 너는 능력자가 되는 것이다. 아니 된다는 마음이 사실인줄 알고 있으면 네 일은 아니되는 쪽으로 전개 되는 것이고, 아니된다는 사실이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쳐 없어지면 네 일은 아니 될 일 없는 쪽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러한 선지식의 말씀에 정신이 나면서 나는 〈금강경〉 공부를 통해 내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 '나처럼 변덕스럽고 끈기있게 버티지 못하는 사람도 이 공부를 끝까지 할 수 있을까? 금강경 공부를 처음에는 신들린 듯 좋아하다가 얼마 안가서 그만두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마음에 희망이 차고 기쁨이 솟아올라 당장이라도 금강경을 열심히 공부하여 제 소원을 당장이라도 이룩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잠시 후에는 마음속에 제가 무슨 일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 아니니 어찌 이 큰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너는 스스로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다. 꾸준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으로 너는 너의 능력의 한계를 정하였다. 네가 성실하지 못한 것이 사실(fact)이냐? 또는 성실하지 못하다는 것은 단순히 네 생각일 뿐이냐?"

"솔직히 말씀드려 제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은 제 겸손한 생각이 아니라 엄연한 사실(fact)입니다."

"아니다. 너는 열등하지 아니하다. 네가 스스로 능력이 모자라는 사람이라 규정하고 있기에 못난 사람이 되는 것일 뿐 너는 정말 못난 사람이 아닌 것이다."

"그러면 선생님 말씀대로 공부가 잘 안 된다. 능력이 모자란다는 생각이 금강경 사구게 즉 모든 생각은 다 착각이다(범소유상 개시허망)라는 말씀처럼 착각인줄 알고 부처님께 바치면, 그 생각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렇다. 공부가 잘 안 된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열등하다는 생각은 착각인 줄 알아야 한다. 안된다 못한다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인줄 알고 그 생각을 정성껏 부처님께 바쳐라. 바치다 보면 공부가 안 된다는 생각이 사라지게 되며, 공부를 못한다는 열등한 생각도 사라지게 된 것이다."

"그렇게 되면 무능한 저도 변하여 능력 있는 사람으로 될 수 있겠네요?"

"당연한 말이다. 안 된다는 생각, 열등하다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인 줄 알고 부지런히 부처님께 바칠 때, 안 된다는 생각이 사라지며 너는 능력자로 변할 것이다."

"선생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한다면 제 소원은 다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교는 소원을 성취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깨치는 가르침이라 하는데요?"

"상당수의 불자들은 깨친다하면 참나를 발견하는 깨침 즉 아상이라는 분별심이 사라지는 거창한 깨침만 생각한다. 그러나 깨침이란 분별심이 사라지므로 지혜를 얻고 능력을 이루는 현상인 것이다. 작은 분별심이 소멸되면 작은 깨침이 되며 작은 지혜를 이루고 작은 능력(소원)을 이루는 것이요, 큰 분별심이 소멸되면 큰 깨침이 되며 큰 지혜를 이루고 무한한 능력을 구족하게 되는 것이다." 지혜로운 이의 눈에는 기복불교와 깨달음의 불교와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되었고, 깨달음과 기복의 갈등에서 오랫동안 방황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이사장〉



청운 스님의 생활속 '이뭣고' 수행

만법 이루는 진여실상은 불변하다

양무제가 일찍이 가사(袈裟)를 입고 〈방광반야경〉을 몸소 강설 했는데, 감응해 하늘서 꽃비가 내리며, 땅이 황금으로 변했고, 도교를 물리치고 천하에 사찰을 개창해 승려를 장려하고

탑을 세워 불심천자라 불리웠다. 이렇게 천하제일이라는 아만심으로 가득찬 양무제가 달마선사에게 물었다.

나에게 얼마나 많은 공덕이 있습니까? "소무공덕(小無功德), 조그만한 공덕도 없습니다"

내가 했다는 아상 속에서 행한 것은 복은 될지언정 공덕은 될 수 없다는 것이며, 본심(本心)은 무심(無心)이고 진공(眞空)이니, 텅빈 무심에서 무주(無住) 무상(無相)으로 보시(普施)해야 진공덕(眞功德)이 되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우리가 복 짓는 것을 수행의 과로 생각하지만, 복짓는데 일생을 보내고, 복을 지었으니 육도 안에 있는 천상서 복을 누리는데 일생을 보내고, 다 누렸으면 전생에 지은 업(業)에 따라 윤회의 굴레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니, 복은 삼생의 원수라고 하는 것이다.

언제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 활구 참선법 '이 뭣고'를 만나 다생겁래로 익숙한 타향살이를 면하고 내가 나를 깨달아서, 자신이 본래 갖춘 부처님 성품을 꿰뚫어 영원한 진리와 하나가 되고, 생사에 자유자재한 경지에 들어가는 참된 공덕을 이루겠는가?

"일체 유위법은 본래 진실된 모양이 없으니 저 모양 가운데 실상이 없는 줄을 알면 곧 이름하여 견성(見性)이라 하니라"

다시 물었다. 어떤 것이 성(聖)스러운 진리(眞理)입니까?

"확연무성(廓然無聖)이라, 허공과 같이 광대무변하고 너무나도 확연해서 성스러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짐 앞에 앉아있는 당신은 누구요? "불식(不識), 모릅니다"

범부(凡夫)의 지견(知見)으로 성인(聖人)의 진리(眞理)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목(眼目)을 갖추지 못한 양무제에게는 다만 모르고 모를 뿐이다.

인연따라 생멸 변화하는 일체의 사물은 허망(虛妄)한 인연이 화합해 마치 꿈, 환처럼 이루어 지는 것으로, 이 모두가 실체성이 없는 것인데, 중생들은 눈앞의 온갖 현상을 실유로 오인해 분별하고 집착함으로써 세간의 모습이 '있음'이 된 것이다.

성수 선사가 혜월 선사를 찾아가 여쭈었다. "삼세의 모든 제불과 역대조사는 어느 곳에서 안심입명 하고 계십니까? 이에 혜월 선사께서 양구(良久), 입을 다물고 계시니 성수 선사께서 냅다 한 대 옆구리를 치시면서, "산용 활용이 어찌해 죽은 물에 잠겨 있습니까?" "그럼 너는 어찌 하겠느냐?"

성수 스님이 불자를 들어 보이시니 혜월 선사께서 "아니다"고 하시니, 성수 스님께서 다시 "스님 기러기가 창문 앞을 날아간 지 이미 오래입니다"하며, 이미 깨우친 자신의 진면목을 보여 주시니, 혜월 선사께서 한바탕 크게 웃으시며 "내 너를 속일 수가 없구나"고 하시며 인가 하시고, 호를 운봉(雲峰)으로 부르고 전법게를 내리셨다.

일체유위법(一切有爲法) 본무진실상(本無眞實相) 어상약무상(於相若無相) 즉명위견성(卽鳴爲見性). "일체의 유위법은 본래 진실된 모양이 없으니 저 모양 가운데 실상이 없는 줄을 알면 곧 이름하여 견성(見性)이라 하니라"고 하셨다.

진여실상은 불변(不變)이다. 이 진리가 수연해 만법을 이루는 것이다. 일체 유위법은 꿈속에 있는 허상인 것이며, '시심마 이 뭣고' 수행으로 꿈을 깬 실상 자리인 시(是)에는 본래 생사가 없는 내 고향인 것이다.

〈남양주 선재사 주지〉

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승가회 종도모집

귀의 하옵고, 불제자로서 수행과 전법 포교만을 위해
함께 하실 제방의 큰스님들을 모십니다.

임 | 원

대 승 정 : 성광당 경보 대종사

원로원장 : 무명당 월곡 종회의장 : 대진당 혜월 승가원장 : 고암당 정인

▶각교구원장◀

서울교구 : 법룡 부산교구 : 무비 대구교구 : 지광 인천교구 : 혜초 대전교구 : 정수
창원교구 : 정우 경기교구 : 연봉 충북교구 : 심공 충남교구 : 능원 전북교구 : 진원
경북1교구 : 서암 경북2교구 : 대현 경남교구 : 혜묵

■ 문의 : 입종문의 안내(입종 구비서류 및 발급 증명서)
☎ 053)654-0408. 010-5051-3422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현충로 5길 99 원광사
(전화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남·녀 행자 수시 모집 합니다

※ 본 종단은 문광부 허가 제2010호-4호
※ 법인등록 274321-0029935로 등록된 사단법인 종단입니다.

(사) 대한불교조계종 승가회 승가원 승가원장 고암 정인 합장

법당의 구형앰프 설비를 "80만원 보상해" 최고급
『800W 파워드믹싱 앰프(USB내장)』 셋트로
단 160만원에 교환 설치 / (월 8곳만 예약순 설치 가능)

(기본제공 : 800W 앰프 + 450W 스피커 + 900메가 무선마이크 1대, 사용중인 앰프설비는 회수합니다!)



• 대출력파워드 믹싱앰프
출력 : 800W USB내장
가격 : 1,200,000원



• 대출력스피커 1조
최대입력 : 450W
가격 : 700,000원

염불용 초고성능 마이크 출시



• 60Cm 이상 거리에서도 장엄하고 맑은 소리 보장!
• 오래된 앰프와도 잘 맞아 뛰어난 소리가 나옵니다
• 가격 : 175,000원(홀더 포함)
2개 구입시 : 305,000원

마이크용 목걸이 증정

주지스님 전용
• 탁상마이크



자체 소리 조절

가격 : 185,000원

신상품 삼신각(명부전,전용) 앰프 세트



전체 1세트(SET) 580,000원

(엠프〈USB용〉+스피커+마이크스탠드 포함)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가격 : 300,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010-5335-2695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300호)

소장 김문화
무선설비기사, 음향연구가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주문 계좌 : 우리은행 김문화
1002-610-963886

조계종 해외교구장에 현근 스님



조계종 해외특별교구장에 현근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5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해외특별교구장 현근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자리서 설정 스님은 "종단에서 여러 소임을 살았고 조계사 불사에도 원력을 다했다. 스님의 열정으로 해외포교를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현근 스님은 "노력하고 배워가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현근 스님은 철웅 스님을 은사로 1962년 수계했으며, 봉국사 · 구연사 · 보광사 주지 및 제8 · 9 · 10 · 11 · 12 · 15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윤호섭 기자**

진명 스님, 무형문화재위원 위촉

문화재청 2대 무형위 구성



조계종 前문화부장 진명 스님〈사진〉이 새롭게 구성된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으로 위촉됐다.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5월 1일 한국의집에서 제2대 무형문화재위원을 새롭게 위촉했다. 위원장으로는 호선을 통해 서연호 고려대 명예교수를 선출했다. 불교계 인사로는 前문화부장 진명 스님을 비롯해 안귀숙 · 정형호 조계종 성보보존위원들이 포함됐다.

위촉 직후 진명 스님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종단을 대표해 활동하는 만큼 책임감이 크다"면서 "불교의 전통무형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대중에게 잘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형문화재위원회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6년 5월 출범했다. 이번 위원회는 2번째로 출범한 것이며, 무형문화재위원 24명 · 전문위원 47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간이다.

신성민 기자

원효학술상 대상 전현수 전문의

'불교정신치료'로 비전임교수 부문



불교사상의 현대화를 위해 제정된 원효학술상 9회 대상 수상자로 전현수 정신과 전문의〈사진〉가 선정됐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원효학술상운영위원회는 "4월 27일 종합심사회의를 열어 금년도 제9회 원효학술상 수상자를 선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현수 전문의는 저서 〈불교정신치료 강의〉로 비(非)전임 교수 부문 대상(大賞)을 수상했다. 올해에는 교수부문 수상자는 없었다. 학생 부문 은상에는 동국대(경주) 대학원 불교학과 박사과정 자성 스님의 논문 '〈대승육정참회〉에 보이는 원효의 당시 참회문화 비평'과 정영자 부산대 대학원 철학과 박사과정의 '〈대념처경〉의 4념처관과 〈요가 수뜨라〉의 아슈땅가 요가'가 각각 수상했다. 동상에는 이자향 동국대 대학원 박사과정 논문 '원효 〈금강삼매경론〉의 대승관법 연구'가 선정됐다. **신성민 기자**

"생활체육 포교로 불교중흥 이끌 터"

Interview

제4대 체육인불자연합회장 문홍식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1세대 골퍼로 불자골프대회 개최
불자 역량 모을 자선활동 계획도
선수촌서는 명상 접목 변화 시도
"체육활동으로 불교사상 실천을"

"불자 친선 골프대회와 등반대회 개최 등 엘리트 체육 외에도 생활체육 분야에서 다양한 모임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3월 7일 진천올림픽선수촌 개원과 함께 취임한 문홍식 조계종 제4대 체육인불자연합회장이 올해 생활체육 분야의 다양한 신행모임 구성에 앞장선다.

문홍식 회장은 5월 3일 "전임 회장님들이 추진해 온 사업들을 잘 계승할 뿐만 아니라 엘리트 체육을 넘어 생활체육 전반에 불자 신행모임, 친목모임을 활성화 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문홍식 회장은 1968년에 골프에 입문한 이후 1973년 한국프로골프협회에 입회한 1세대 프로골퍼다. 한국프로골프협회 홍보이사를 시작으로 전무이사를 거쳐 2004년에는 한국프로골프협회 제11대 회장을 역임하고 골프해설로도 명성을 쌓는 등 골프계의 원로다. 문 회장은 이러한 자신의 경력을 활용해 올해 안으로 불자골프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회장은 "가을경 불자 친선 골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등반대회 등 자선활동을 목표로 한 다양한 대회를 통해 불자들의 역량을 한 데 모으겠다"고 말했다.

문 회장은 이어 "다양한 대회를 통해 불자들이 모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포츠 포교와 신행의 근간은 특별한 계기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라고 본다"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체육상담과 교육의 자리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런 취지에서 현재 진천선수촌에서의 종교활동도 변화가 감지된다. 문 회장은 선수촌 법당을 선수 힐링공간으로 꾸밀 예정이다.

문 회장은 "법당이 단순히 기도만 하고, 법회만 하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선수들이 정말 힘들 때 와서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쉼터, 책이라도 잠깐 읽고 대화를 편히 나눌 수 있는 사랑방 역할을 해야 한다.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선수들이 쉽게 찾아 올 수 있도록 법당 시스템도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체육계는 올해 8월로 예정된 제18회 아시안게임과 전국체전 등 큰 행사를 앞두고 있다. 체육인불자연합회는 이를 앞두고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는 법회뿐만 아니라 집중력 향상을 위한 명상강좌,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강연 등도 진행한다. 또 전국 17개 지부의 연합회 네트워크도 한층 강화하며, 꿈나무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도 이어나간다.

문 회장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국민들의 문화적 수준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라며 "체육활동을 통해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웃과의 소통, 더 나아가 소외된 이웃을 함께 돌볼 수 있는 실천행이 이어질 수 있도록 체육인불자연합회가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韓 다비문화, 세계 알리고 싶었죠"

다큐 '다비'로 휴스턴영화제 대상 수상한 BTN 최동철 PD

"한국의 다비문화는 세계 어느 불교에도 없는 독창적인 전통문화입니다. 우리의 다비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 정말 기쁩니다."

다큐멘터리 '다비(THE BUDDHIST CREMATION, 茶毘)'로 4월 28일 열린 제51회 휴스턴 국제영화제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한 최동철 BTN불교TV PD는 이 같이 밝히며 말머리를 풀었다.

1961년 시작된 휴스턴 국제영화제는 뉴욕 영화제, 샌프란시스코 영화제와 함께 북미에서 가장 오래된 영화제로, 한국불교 관련 다큐멘터리가 수상작으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특히 올해에는 40여 개국, 4500개 작품이 경쟁을 벌였고, 이 중 한국불교 전통문화를 소개한 '다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한국 불교다큐로는 최초 수상
1여 년간 다비식 누비며 촬영

2부작으로 구성된 다큐멘터리 '다비'는 1여 년간 다비식 현장 곳곳을 누빈 끝에 만들어졌다. 1부 '생사불이(生死不二)'에서는 다비의식에 담긴 불교의 생사관을 정리했으며, 2부 '스님, 불 들어갑니다'에서는 전승 단절 위기에 놓인 사찰과 문중의 전통 다비의식을 취재했다.

최 PD는 다비에 대해 "죽음의 순간조차 해탈의 기회로 맞이하는 한국 승가의 철저한 수행정신이 담겨 있다"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한국불교 전통문화인 다비식은 가슴 깊이 고여 드는 무상법문이자 해탈법문이었고, 장엄하고도 아름다운 울림이었다"고 회상했다.

촬영 중 힘들었던 점을 묻자 "다비식이 자주 봉행되지 않는다"는 답이 돌아왔다. 다비식 봉행 비용이 워낙 고가이고 전승자도 많지 않아 접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면서 최 PD는 "현재 다비 관련 전승이 단절 위기"라면서 "다비 문화를 계승 ·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최 PD는 차기작을 준비 중이다. 다음 주제는 '의발(衣鉢)'이다. 불교 수행자의 의복과 식기를 의미하고 일상 최소한의 도구, 소지품이라는 뜻도 있다. 또한 스승이 제자에게 법을 전하는 것을 일러 '의발을 전한다'고도 한다. **신성민 기자**

쌍봉사, 어르신 섬김봉사활동

진안 마령면사무소에서 문화공연



진안 쌍봉사(주지 보경)는 4월 26일 진안군 마령면사무소 2층 강당서 어르신 200명을 초청해 '어르신 섬김봉사활동'을 펼쳤다. 진안군 자원봉사센터, 전주 연탄은행, 마령면 자원봉사단 후원으로 진행된 행사는 한빛음악회봉사단의 재능기부를 바탕으로 문화공연과 먹거리 제공 등이 이뤄졌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지역 어르신 위한 孝사찰"

부산 옥천암, 어르신 봄나들이 개최



옥천암(주지 대각)은 4월 28일 '제9차 지역 어르신을 위한 봄나들이'를 개최했다. 어르신을 위한 봄나들이는 영덕 삼사 해상공원에서 진행됐으며 필요한 교통비 및 점심 공양 등 모든 준비를 옥천암에서 마련했다. 봄나들이는 120명 선착순으로 모집 발표 후 바로 마감 될 정도로 매년 높은 인기를 자랑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사립대 인문대학장協 정기총회

김영민 동국대 교수 3대 회장 재선출



동국대(총장 보광)는 "지난 4월 27일 교내 본관 로터스홀에서 '2018년 전국사립대학교 인문대학장협의회' 정기총회가 개최됐다"고 4월 30일 밝혔다. 동국대 문과대학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인문사회분야 R&D 및 재정지원 사업'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인문학 진흥'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또한 전년도 2대 회장을 역임한 김영민 동국대 교수가 3대 회장으로 재선출됐다. **신성민 기자**

신화 불사
종합 안내

- 전통한옥 법당 철거, 개축, 신축
- 30년 경력 대목장이 함께 합니다.
- 40년 경력 불모 조각장인이 함께 합니다.
- 40년 경력 범종 장인이 함께 합니다.
- 9평 산신각, 신축,특 A급 가격저렴
- 10평 정자, 18평 법당 증축 가능 A급
- 17평 요사채, 21평 증축가능
- 31평 재실, 38평 법당 증축가능 A급
- 60평 한옥 2층 증축가능 (신축)
- 80평 요사채, 40평씩 분할가능
- 석탑 5~7층 다수있음.(5~3천만원)
- 수익형 기도처, 서울, 매매 21억 (2억, 월 1천만원 세 있음)
- 강원도 6천평 삼성각, 대웅전, 명부전, 요사채, 한옥 펜션 등 다용도 전환가능. 양도가 16억
- 이동식 스틸하우스 30평. 설치까지 3천만원
- 그외 다수의 사찰, 또는 매물 등이 있습니다.

010-6545-2020

다르마킹 칼리지

⊙깨달은 절수행
표정 자세 동작 호흡법 동작 알아차림 고마움의 감사 만트라 사마타 위빠사나 알아차림의 완벽한 절, 인류 최고 최상의 건강법 절교육 : 매주 화,수,목,금,토 오후 2시~3시30분

⊙깨달은 염불禪수행
4박자 1분 15회 60박자 리듬 운율 호흡법 완벽해야 잡생각 딱 끊어지는 알파파 행복 홀몬 세로토닌 쏟아진다.(염불 독경하며 가슴 어깨로 역호흡, 입으로 들숨은 병 불행의 원인)

⊙깨달은 호흡법
누구나 저절로 자동 단전 공명호흡이 되어지는 7가지 특수동작(머리의 불을 끄고 배를 따뜻하게 하는 심신 건강과 수행의 핵심)

⊙깨달은 감사예경 명상
번뇌 망상 딱 끊어진 참마음 참나 불성 홀깃 체험
매주 화,수,목,금,토 오전 11시~12:30

⊙깨달은 와선 수행
요지부동 삼매체험, 심신 이완의 최고 경지 몸 숨 맘 사라짐 체험
매주 화,수,목,금,토 오후 2시~3시, 저녁 7시~8시

⊙깨달은 참 행선 수행
황토마사길에서 맨발 11자, 오금 펴고, 손 악고, 가슴 들고, 입꼬리 올리고 미간 펴고, 미소 지으며, 시선 180도 몸 맘 지켜봄 알아차림

⊙깨달은 힐링 치유법회
7시간 쉬지 않고 화끈하게 웃으며 행복한 환희의 축제
매월 둘째 주 일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깨달은 삼천배 웰빙 힐링법회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저녁 9시~ 일요일 아침 6시
※템플스테이 20대 출가 예정자, 대학생, 군인, 재수생은 무료

(재)깨달은 공동체 법왕정사
한불 몸숨맘 사띠 연구소 청견
www.법왕정사.net ☎ 010.3487.0035

오주 생명 光(빛)의 기둥을 가슴에 세워드립니다!

자신이 직접 수행이나 기도, 명상, 참선중에 눈 앞에서 다양한 영적인 빛 기둥의 가피를 보면서 몸으로 체험하는 기도문과 수행법을 제시합니다. (특별한 자신만의 빛의 체험)

❶ 업장소멸, 한과 집착, 끝없는 고통의 소멸을 몸으로 체험(몸의 환골탈퇴) 눈물,기침,트림,하품,진동,전율, 코물, 구역질, 담음, 하품, 빛의변화, 몸, 마음, 영혼의 진동주파수의 변화를 통한 삶의 대전환
❷ 인간의 3가지 고통 (1) 인간관계 (2) 금전의고통 (3) 몸의 질병의 고통 해결 기도문과 기도법제시
❸ 영적인 질환,빙의,영가장애,무속병 원인없는 질병,그 자리에서 확인
❹ 돈,사업,이혼,사별,별거,자식,취업 등의 마음상처치유 기도문
❺ 내몸에 잠자는 영혼을 깨워 마음, 몸을 쓰는 원리수행
❻ 가슴이 열리지 않아 수행에 진전이 없는 모든분(수십년기도하신분)
❼ 의통(심의과정)업장소멸후 의로움으로 재산환원 하실분 (심의대학 설립에 필요한 기금조성,몸,마음,영혼을치유하는 의사 양성)
❽ 상단전(지성)+중단전(감성)+영성(단전) = 깨달음의 경지 수행

매월 3주, 4주 토요일 2시에
공개유료강연회 (10명에 한함 2만)
업장소멸, 고통소멸 원리,
가슴이 변해야 고통에서 행복으로 나아간다.
(강연후 체험 빛의 기둥)

【유튜브 동영상 강의 : 자각선원】
충북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266-8
043-296-5258 010-9242-5259
자각선원 (부설 뇌파 마음수련원) 자각선원장 자각 합장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대원암, 제주 대표 관음도량 발원

관음전 개원 · 천불관세음보살 점안법회

조계종 죽림정사 분원인 제주도 대원암은 4월 21일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도문 스님을 증명 법사로 관음전 개원 및 천불관세음보살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행사는 태고종 前총무원장 도산 스님의 집전으로 진행됐으며, 태종사 도성 스님, 가산 스님, 목탁 스님을 비롯한 스님과 각 기관장 및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사진〉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도문 스님은 법문을 통해 "대원암 천불관세음보살님의 가피로 모두가 함께 선업을 쌓으며, 해수관세음보살도량 대원암이 관음기도 도량의 면모를 새롭게 갖춰 이웃에게 지혜를 전하고 포교에 전념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원암 주지 법산 스님은 "불심의 섬 제주도를 대표하는 관음도량으로 면모를 갖춰나갈 것"이라며 "사부대중과 함께 더욱 기도 정진하는 관음성지로 대원암을 가꾸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사부대중은 점안법회에 이어 대원암 앞바다에서 방생법회를 봉행하고, 생명존중의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겼다.

한편 제주 대원암은 바다와 인접한 사찰로 바닷물이 만조를 이루면 해수면에서 와불관세음보살을 만날 수 있는 관음성지로 국내외 불자들의 성지순례 코스로 각광 받고 있다.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영 · 호남 환히 밝힌 봉축탑 지난달 25일 부처님오신날 봉축탑이 서울 광화문 일대를 환히 밝힌 데 이어 영남과 호남에서도 부처님 탄생을 찬탄하는 지혜의 빛이 퍼졌다. 부산불교연합회와 부산 삼광사, 고창 선운사, 정읍불교사암연합회 등은 부처님오신날에 앞서 각 지역서 봉축탑을 점등하고, 환희로 가득찬 5월이 되길 기원했다. 사진은 5월 1일 부산 송상현광장서 진행된 부산연등문화제 개막 점등식 현장.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저소득 화재 예방 불교가 함께"

금정구불교聯, 화재 안전 취약지구 소방시설 기증

부산 금정구 내 저소득 가정 화재 안전 지원을 위해 스님들이 나섰다.

금정구불교연합회(회장 고담)는 4월 26일 금정구소방서 내 강당에서 저소득층 화재 안전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기증식을 개최했다.〈사진〉 금정구불교연합회는 기증식에서 소방시설 및 화재경보기 100여개를 전달하고 부곡 4동에 위치한 200여 가구를 직접 방문, 설치를 도왔다.



기증식에는 금정구불교연합회장 고담 스님, 수석부회장 지홍 스님, 부회장 법일 스님 및 신도 50여 명과 서명근 금정소방서장 등 소방관 10여 명이 동참했다.

회장 고담 스님은 "앞으로 일회성 아닌 꾸준한 관심으로 취약계층 화재 안전에 힘을 보탤 것"이라며 "우리의 활동이 모든 생명의 존귀함을 알게 하고 더 밝은 사회가 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병원 밝힌 비구니들의 봉축 나눔

부산 화엄회, 부산대병원서 환자 · 가족에 선물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화려한 연등이 전국에 불을 밝히고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는 분위기가 도심을 수놓고 있다. 하지만 축제 분위기가 고조될수록 아픔이 더 짙어지는 현장, 바로 병원이다. 그래서 병마에 지친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매년 이 시기, 병원을 찾아 위로하고 쾌유를 비는 스님들이 있다. 자비나눔을 실천하는 비구니스님들의 모임 '화엄회'다.

부산 화엄회(회장 상화)는 4월 28일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부산대학교병원을 방문해 환자와 가족들에게 봉축선물을 전달했다.

이른 아침, 부산 천태암에는 비구니스님 40여 명과 신도들이 삼삼오오 모였다. 갈색 모양으로 제작된 상자에 진주 합장주와 수건, 빵 등 선물을 담아 포장하는 일로 손길이 분주했다. 초여름 날씨에 이른 더위로 땀이 흐르지만 선물 상자 하나를 옮기는 것까지 비구니스님들의 몫이었다. 선물이 도착한 곳은 부산대학교병원, 환자와 가족 그리고 간호사, 청소부까지 모두를 위해 준비한 선물만 1700개다.

스님과 신도들은 선물을 들고 병원 병실을 돌기 시작했다. 선물 위에는 연등이 놓여있고, 환자와 가족들을 병원에서 만나는 스님들에게 눈길을 돌렸다. 스님들은 병실을 방문해 환자들의 손을 잡고 쾌유를 기원했고, 환자들은 선물을 받아들며 감사의 마음으로 부처님오신날을 함께 기뻐했다.

스님을 병원 복도에서 마주친 한 환자 가족은 눈가에 눈물이 가득한 채 "어느 사찰에서 나오셨느냐?"며 "기도를 하고 싶다"고 병원 내 법당 위치를 묻기도 했다. 환자들은 "아플 때 기도를 더욱 하고 싶고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등을 올리고 싶은데 이렇게 스님들께서 찾아주시니 마음에 위로가 된다"고 감사해했다.

비구니 스님 십시일반 모금
매주 환자 쾌유 기도 올려
20년 동안 꾸준히 병원봉사
국내 · 외 봉사활동으로 확대

화엄회는 매년 환자들을 위한 봉축 선물을 나누고 있다. 병원 봉사를 위해 시작된 화엄회 모임은 올해 25년차이며, 봉축을 기념하는 선물 나누기는 20년간 진행하고 있다. 매년 선물을 준비하는데 드는 비용만 1000만원, 지난 20년 동안 2억 가량이 소요됐다.



부산 화엄회가 4월 28일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부산대학교병원을 방문해 환자와 가족들에게 봉축선물을 전달했다. 회장 상화 스님이 환자 가족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모습.

회장 상화 스님은 "처음에 부산대학교병원 내 법당을 후원하고 봉사를 함께 하고자 화엄회가 조직됐다"며 "그때 당시는 젊은 비구니 스님들의 모임이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많이 흘렀다. 그래도 지금까지 함께 해준 스님들의 힘으로 꾸준히 봉사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화엄회는 병원 내 봉사모임으로 시작해 국내 및 국외 자비나눔 실천모임으로 확대됐다. 현재 화엄회는 43명의 회원스님이 활동하고 있으며 불우이웃돕기, 신병교육대 포교 후원, 네팔장학금 지원을 통한 인재불사, 미얀마 학교건립불사 등 활발한 자비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부산대학교병원 내 불교법당을 운영,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환자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

상화 스님은 "부처님이 세상에 나투신 날을 축하하려면 부처님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따라야 한다"며 "자비나눔을 실천하신 부처님의 행보를 따라 병원에 방문하고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듣는 것이 화엄회와 불자들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컴컴한 교도소에도 자비광명을"

전주교도소 불교분과 재소자 위한 특별법회

전주교도소(소장 구지서)가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불자재소자들을 위한 특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4월 26일 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불교분과(위원장 진성) 주관으로 열린 특별법회는 정읍 일광사 주지 승천 스님을 증명법사로 마이산 탑사 주지 진성 스님, 진안 광명사 주지 송운 스님, 김제 구룡사 주지 대공 스님, 군산 염불사 주지 행담 스님과 강석춘 · 이원일 포교사가 동참했다.



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불교분과위원장 진성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새싹은 아스팔트나 벽을 뚫고 나와 꽃을 피운다"며 "이곳에 있는 분들도 이미 어려움을 뚫고 참회를 통해 부처님의 법을 깨달아 사는 분들이 됐다"고 격려했다.

일광사 주지 승천 스님은 법문을 통해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서 부처님의 법을 통해 밝고 맑고 깨끗하게 마음의 눈을 활짝 떴다. 앞으로 행복의 꽃을 피워 견성성불 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전주교도소 재소자 가운데 뽑힌 100명이 불교교리 상식을 겨루는 '도전 골든벨' 경시대회가 열렸으며, 10명의 재소자들과 스님들이 자매결연을 맺어 가족처럼 어려움을 도와주고 살펴주는 시간이 진행됐다.

교리경시대회는 최후의 4인이 마지막 10문제를 연속으로 맞혀 함께 공동 우승하는 치열한 경쟁을 보였다. 이는 불교교정위원회의 체계적인 교육으로 재소자들의 교리공부 수준이 매우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불교분과에서는 교리대회와 이달의 불자상 상금을 영치금으로 후원하고 떡과 과일, 한과, 과자 등으로 재소자들을 위로했다.

한편 김제 구룡사 대공 스님은 이날 전주교도소 교정위원으로 선임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선운사 · 고창문화원 청소년 문화경연대회

제42회 동백연 경연대회

전북지역 청소년들의 문화예술잔치인 '동백연 청소년 문화예술 경연'이 4월 27일 선운사 일원에서 열렸다.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와 고창문화원(원장 송영래)이 공동개최하며, 청소년들에게 효행심과 애향심,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예비 예술인을 발굴하기 위한 '제42회 동백연 청소년 문화예술경연대회'에는 유치부 어린이에서 중 · 고교생까지 500여 명이 동참해 끼를 발산했다.

선운사 동백나무 숲 앞에서의 동백제례를 시작으로 막을 연 경연은 백일장과 미술, 만담설화, 타악 경연, 무용, 판소리, 시조경창 등 문화예술부문과 제기차기, 투호, 긴줄넘기, 팽이치기, 굴렁쇠 굴리기 등의 민속부문, 탁본, 향토문화알기, 도예(자기 만들기), 전통매듭 만들기, 호패 만들기, 가훈쓰기 등의 체험행사가 진행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악령, 귀신 잡는 스님이 있어 화제

憑依(빙의)와 귀신병(鬼神病)

은 자신의 생각 의지 마음과 상관없이 악귀에 조종당하여 자신과 가정은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끔직한 사건으로 비화되거나 또는 집안이 망신과 수치로 황폐화되고 사회적으로는 각종 사건사고에 연관되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본인 또는 가족 중에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있으면 빙의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으며 청정 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가정에 사랑과 건강함과 평화가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빙의와 귀신병의 주요 증상

* 혼자 중얼거리고 방에서 누구하고 대화 하듯이 씨부렁거린다. * 환청이 들리고 신경이 예민하여 고함을 지르고 발작을 일으킨다. * 공황장애와 과대망상 우울증으로 자살 하고픈 마음이 자주 생긴다. *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어깨가 한 짐이 되어 무겁고 양쪽 팔과 다리와 허리가 찢어질 듯이 아프다. *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하는데 항상 머리가 무겁고 아픈 두통이 계속 되고 몸 전체가 몸살 난 것처럼 고통스럽다. * 평상시는 순하고 순한데 술만 마시면 난폭해지고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상한 사람으로 바뀐다. * 무엇에 홀린 듯이 술을 연속하여 밤새도록 마시거나 또는 줄 담배를 피운다. * 몸속에 귀신이 드나드는 느낌이 들고 이유 없이 몸이 아프거나 잘 나가든 집안이 갑자기 몰락한다. * 술은 마시면 말과 방언이 튀어 나오고 본인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평상시와 다른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한다. * 어느 날 갑자기 과도한 비만이 되어 이상한 몸으로 변했다. * 돌발적인 행동과 발작을 일으키고 자꾸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거나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경우. * 신 내림굿을 하였는데 도리어 더 이상한 사람으로 변했다. * 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 신 내림굿을 하였는데 신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원상복귀를 원하고 있는 사람. * 돌아가신 조상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꿈속에 자주 나타난다. * 계속하여 악몽을 꾸거나 헛것이 보이고 귀신이 보인다. * 귀신하고 사랑을 한다. * 입산수도 하다 오히려 잡귀에 씌어 고통당하고 있다. * 신병과 귀신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 집안에 연속하여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가족 구성원이 아무 이유 없이 줄초상을 당한다. * 종교계통의 일을 하는데 빙의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자신이 부처이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 결혼 적령기가 훨씬 지났는데 결혼을 못하고 있다. *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나간 것처럼 행동한다. * 가족 중에 정상적이지 못하고 누가 봐도 이상한 행동을 한다. * 불교 기독교 등 종교와 상관없으며 귀신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반드시 해결되며 국내와 해외에 거주하여도 본인이 직접 오지 않고 가족이 와도 무방합니다. **위와 같은 증상이 있으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청정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잡귀 마장 사탄 중엄신 조상신등 악마 잡귀의 무거운 짐을 벗어 가정의 건강함과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새롭게 태어나길 바랍니다.**

어떠한 악령 귀신도 단번에 제도하여
고통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며
심신의 안녕과 평화를 찾게 합니다.

다른데서 몇 번이나 했는데
안 되더라 하는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심대한 부처님의 가피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귀 대한불교 자비사 상담전화 010-8600-7409 (서울 강남구 대치동 2호선 선릉역 지하철 1번 출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s.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올바른 가르침의 베풂도 행복이고 참모임의 화합도 행복이고 화합한 님들의 수행도 행복이다.

- 법구경 -



관상(손금)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암,질병,묘터, 송사재판,산소,낙태유산, 조상영가,교통사고,직장운, 승진운, 재물운,이혼수)
- **성철스님 사주 비법전수**
- 철학원 하실 분 천기누설 전수
- 스님, 무속인, 일반인

010-4014-8822

범불교조계종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종도모집 및 승려증 발급종단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0-9317-6686
「유투브」에서 **대명스님**를 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신묘방편력

사찰, 포교당, 대지, 건물등 속히 매매성취

010-2896-6689

광명 공덕
터 / 자리도 봐 드립니다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일단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 출장탐사 * 개인사업자 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범음범패 학인,회원모집

- 염불을 여법하게 하고 싶은 분
- 염불 내용을 알고 싶은 분
- 사찰행사 함께 공유하고 싶은 분
- 사물,바라,작법을 배우고 싶은 분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5시)
사찰행사 문의 환영
(살풀이, 극락무, 지전무, 관음무)
055-744-5300
010-5243-3587
진주 여여불음원 법일 합장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불교용품 고가매입 전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 대불 탱화, 개금, 석불, 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 제작
이조불교재활용센타
010-9177-7842

점안식 49재 천도재 불공 사찰행사 전문

범음범패 실전위주교육
바라나비무,법고,화청,풍수,명리,육효,주역,작명(학인모집)
남여 결혼 성사 접수 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31-953-3328
010-8893-8361



불광(佛光)에너지 체험

관세음보살 · 약왕보살 가피받는 비법전수, 건강회복, 운명(팔자)바뀜
블로그에서 묘진사 검색
053-652-2714
010-9616-2477
묘진사 (대구 내당동 소재)

풍수지리 신통력

음택명당 이장하는데 해무리, 무지개 3시간 뜨고 양택명당은 꿈에 무지개가 떳습니다.

010-4413-3377

불교인 배우자를 구합니다

초혼남, 만48세, 키180cm
5층 상가건물 주인
직업 : 임대사업자
동양철학에 관심 있는 분, 사찰운영 전수 가능함
보호자 010-9376-2082

지장보살님과 지장탱화를 모시고 싶은 분께 무료로 보시합니다. 꼭 모실 분만 연락주세요.

010-3515-608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가평)

010-3774-4099

비구니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포항)

010-3376-6601

이매망량을 내 마음대로 뇌강검의 비밀!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투자자 초빙

약 5천평내에 불교식 석조물을 조성코저 하오니 투자 하실 분 2인을 초빙
투자금은 기존 부동산을 설정해 드림
투자금액은 1인 2억(상세한내용 전화 문의)
010-2873-3446

사찰화재 보험

이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010-7344-1881
010-4510-3663

오래된 산소, 유골 화장, 산소 사초 작업

(원형 납골묘)
필요하신 분, 연락주세요
010-6257-6795

스님이 필요한 절을 찾습니다. 무보시로 끝까지 도와 드립니다

(60대 비구)
010-4882-3838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 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문의 : 054-753-8228, 010-8852-0075

수인작법 사주팔자

- 옛 고승과 도인에게만 전수되어 내려온 비술
- 손 하나만으로도 몇년 전, 몇월, 몇일의 운세점 검 몇년 후, 몇십년 후, 몇월, 몇일, 몇시의 일도 예측할 수 있는 작법
- 명리를 배웠어도 시원치 않은 분
- 운명학을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천지조화의 수치를 열어 보입니다
010-7703-1188

사찰행사 전문

점안식. 천도재. 사십구재. 수륙대재 등
각종 재의식 상담. 영남바라춤, 나비춤, 살풀이, 지전춤, 극락무, 화청
(불교무용, 한국무용, 남사당풍물)
010-2277-7955

교육학 박사 진각 스님의 명리상담학



- 지금은 명리상담학이 제도권학문이 되어 여러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이 있음.
- 또한 명리상담분야의 비학위과정도 지역문화센터 등에서 많은 개설과 보급으로 신도 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였음.
- 이러한 현상이 현대는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상담분야로써 필요성이 더 절실하기 때문 임.
- 이제는 명리상담학을 필수학문이라 생각하고 방편 삼고자 큰마음을 내신 스님만을 위한 초급입문과정을 개강.
- 한자(漢字)는 2자만 알면 가능하고, 명리상담법과 작명법
- **부산 송광정사 부설 문화대학 교육학박사 진각**
-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도 10년간 강의 · 강의경력 23년
- 부산지하철 3호선 배산역 하차 4번 출구.

부산 ☎ 051-868-8438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정 홍산 현불 종도모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FAQ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 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宗) 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바다의 미네랄과 폴리페놀 덩어리. 지구상 최고의 항산화 식품

맛이 삼나 **효모 밥죽순 콩단백 족 콩고기**
국내기술로 만든 콩단백

몸속의 오염된 지방을 분해 배출시키는 탁월한 항산화 식품!
전립선 및 다이어트, 성인병 예방에 최고!

❶ 스님들의 단백질 영양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고단백 식물성 콩고기 식품
❷ 효모와 항산화(폴리페놀)가 함유된 건강 단백질 콩고기
❸ 하루 섭취량 40g(가격 하루 1,000원대)로 충분한 단백질 영양 섭취
❹ 가격은 1kg 25,000원 (25인 분량)
〈사찰에서 다량 구매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영양성분표 : 수분 10%이하, 탄수화물 28%내외 단백질 60%이상 지방 3% 이하, 총열량 360Kcal 이하
특 수 성 분 : 폴리페놀 2,793mg/kg, 사포닌 1,807 mg/kg, 베타글루칸 1,233 mg/kg



효모 밥죽순 차(茶)용

- 500g 茶용 (6개월분) 12만원
- 깨끗한 물에 씻어 2L기준 20g 정도 넣어 30 ~ 40분 끓인 후 복용하시면 됩니다. 재탕으로 1회 더 복용 가능합니다.

(주)샘나 대표전화 1661-4288 / 010-4746-0335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37번길 30 인천산업유통센타 37동 201호 ㈜샘나
농협 301-0222-8806-71 / 기업은행 418-038069-04017 [예금주 : ㈜샘나]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cafe.daum.net/9dan9gung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이메일 jabi2018@naver.com | 02) 2004-8213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깊이 인연을 보아 아는 사람은
자기를 떠나 밖에서 스승을 구하지
않는다.

– 장아함경 –



논산시 추천 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목조 한옥 법당. 산신각. 요사채 토지 400㎡
- 논산 IC 부근. 운영 잘되고 교통 편리
- 양도 : 1억 2천만원 (타지방 불사로 양도함)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공인중개사
010-7347-1010 (02-430-0284 이박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18길40.가락동프라자@상가(대표:이규철)
■비밀 보장. 방문 접수. 전국사찰. 암자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 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사찰 사진과 상세한 정보는 가람공인중개사사무소 사이트
"사찰안내가람"(인터넷 검색창에 입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 (상봉동127-15호)

서울중량사찰(급)안내
- 지대 높은산 기도 사찰
- 토지120㎡.2층법당.1층요사채
- 시내전망좋은사찰. 산책로 입구
- 깨끗하고 30년된 사찰
- 양도가액 : 5억 5천만원 (융자가능함)

010-7347-1010(02-430-0284)
사무소 방문 부동산 무료 상담
(서울이박사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무료상담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 정릉유원지 근처
- 대지 : 734평(국유지) 인법당 10평 정도
- 방8개, 화상실 3개 시설완벽 주차 : 마당에 10대 가능 연못, 방가로 시설
- 가액 : 6억

010-3700-1893
02)911-9247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수도권
◎ 대지 : 140평
◎ 법당 : 40평
◎ 요사 : 30평.40평
◎ 양도가 : 12억 3천
◎ 위치 : 서울북한산,
◎ 부지 : 100평사용,
◎ 인법당 : 약 60평,
◎ 산속,무허가건물
◎ 양도가 : 5천 5백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구서동에 있는 작은암자 (지하철에서 도보로 3분거리)
- 직접 보시면 만족하실 위치
- 오르막 없는 평지 주차 넉넉함
- 하천부지 약100평(산신각포함)
- 양도 또는 전월세도 가능

010-7121-3030
010-3574-3303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IC 얼음골 방향 15분거리
- 잣나무 숲속의 계곡과 완벽한 환경
- 총면적 1678평에 대지 328평 1층 60평 중 30평은 명상홀 다음 30평은
- 요사채 2층 법당 25평 삼성각 45평
- 별도 요사채 30평과 창고 20평
- 농지에는 사과나무와 호두나무
- 석물 수월관음, 연화탑, 원통문 포대화상 • 가액 : 6억

010-4895-2050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지내동 전철역 5분거리
- 3층 건물 80평 중
- 법당 40평, 공양간 40평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월세금 60만원 시설비 : 5천만원
- 법당 전체 단청 공양간
- 시설완벽(몸만 오시면 됨)

010-8500-005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요지)
- 부지 : 280평
- 삼존불, 각단탱화, 법당 스님방, 공양주방, 다용도방, 창고1 실내화장실2, 실외화장실2
- 집기일체, 즉시법회가능
- 가액 : 대출 8천안고 2억 2천만원

010-8643-5235
010-7475-047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관이 수려한 고찰로써 수행하기 좋은곳
- 대지 1,800평
- 대웅전, 삼성각 요사채(황토) 창고
- 주차시설 아주 좋음
- 가액 : 12억
- 확인후 절충가능

주지직 010-7918-7328

사 찰 안 내
- 위치 : 산청군 삼장면 소재
- 600평 건물 6동
- 법당 53평 그 외 용왕당, 산신각, 요사채
- 가액 : 전화 상담

010-8957-8089

사찰 및 요양원 안내
사 찰
- 1층 30평, 칠보관음, 천불상 용왕대신
- 2층 25평, 삼존불, 관음소불 130
- 요사채 40평, 큰방 3, 황토방 1

요양원
- 1층 90평, 2층 90평, 대지면적 약 900평
- 정원 25명, 현입소 인원 25명
- 신축건물 월매출 약 4천5백만원(요양원만)
- 뒤에는 높은 산이요 앞에는 큰 저수지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 최고의 명당터
- 위치 : 경남 밀양
- 가액 : 18억(융자 5억 5천 포함)

010-9567-0813

신축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마산 근교
- 임야 4천평, 대지 약1천평 법당 35평, 요사 60평
- 1천 3백년 고목 있고, 산세수려, 교통 편리 지하약수 천혜의 명당지리
- 가액 : 12억

010-4547-4990

사찰포교원안내
- 위치 : 진주시 중앙시장 앞
- 2층 70평 정도
- 각단 탱화 및 삼존불 시설 완벽, 즉시 법회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90만원

시설비 약간있음
010-6208-5555
055)747-987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의령군
- 전원주택형, 요사채 25평 법당 33평 • 총대지 300평
- 정자(3×5m) 원목
- 진주20분 도로 잘되어 있음
- 삼존불, 영단, 신중단, 지장단, 소불(한쪽 벽면)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문의처 010-2607-7114

별장같은 토굴
- 위치: 김해 선암다리에서 5분거리
- 새 인연을 찾습니다
- 창건 20년 모든조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 뒤에는 산, 앞에는 1,500세대 아파트
- 대지 : 270평
- 가액 : 평당 300만원 (은행 2억천 안고) 6억

010-9906-3631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안심뉴타운지역
- 4년째 운영중인 포교원
- 4층 70평과 옥상사용
- 주차장 및 내부시설 최상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30만원

시설비 5,000만원
010-9805-0345

포교원 안내
- 위치 : 논산 시외버스터미널 옆
- 2층 (법당), 4층 (거실)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가액: 전세 300만원, 월세 30만원 시설비 600만원
- 자세한 문의는 전화 상담

010-6473-1569

토 지 안 내
- 위치: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 563
- 864평, 평당 170만, 2차선 인접
- 주택 복지사업, 종교시설 가능함
- 연락처는 문자로 남겨주세요

010-3540-7739

도심속 작은사찰안내
- 위치:경남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 건물 : 1층 단독 주택
- 아담하고 예쁜사찰, 법당, 요사 실내화장실, 실외화장실, 세탁실 창고, 포교, 철학 상담하기 좋은 사찰
- 난방 도시가스, 심야 전기
- 가액 : 1억 9천 5백만원 (대출 7천5백만원안고 1억2천만원)

010-7188-7723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쪽 임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평수 : 470평
- 가액 : 7억
- 조건 : 양도시 모든 기물 포함. (불상, 불화 등 기타)
- 주변 주차 시설 양호함.도시가스, 상수도임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연락처 010-8716-2399
(부재시 문자 남겨 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포교원 안내
- 위치 : 충남 보령시 동대동 천변
- 신축 건물 2층 40여평 트인 전망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40만원

010-5438-013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거제시 장목면 대금산하
- 전체부지 1,100평 주택 1동 심야전기 보일러
- 임법당 24평, 산신각
- 종교부지 300평포함 700평 토목공사 완료
- 가액 : 5억 5천만원 (은행융자 2억 포함)

010-9113-0015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 4층 건물 중 3층 60평
- 법당, 방3개, 공양간, 창고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2,000만원
- 즉시입주, 몸만 오시면 됨

010-8842-4225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서동로 145-10
- 법당 : 30평 3층 건물 중 2층
- 방 1개, 친견실, 공양간
- 보증금 1000만원, 월40만원 시설비 절충
- 몸만 오시면 법회 가능

010-7257-4242

전망 좋은 암자 안내 및 전세 놓습니다
- 위치 : 경남 통영시 산양읍 연화리 연명
- 삼존불, 각단탱화, 스님 방사, 산신각
- 가액 : 1억 1천 5백만원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8643-5235
010-7475-0474

사찰,학원 어린이집 부지
- 위치 :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큰길 옆 산자락
- 5천세대 자이2차 아파트 단지내 자명요양병원 입구
- 256평
- 가액 : 5억

010-3173-5151

암자(토굴) 안내
- 위치 : 경주시
- 한옥
- 대지 : 184평
- 가액 : 1억 6천

010-3863-2803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예산 예당 저수지 부근
- 150년된 암자 3,000평
- 인법당, 요사채, 산신각
- 예당 저수지가 훤히 보이는 아름다운 곳
- 가액 : 6억

010-5097-346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부곡면 수다길 110번지
- 종교부지 총 370평
- 법당건물 총29평반(단청완료)
- 화장실3평, 기와집, 산신각5평 요사채 25평, 종무소 18평 요사채 공양실 20평, 기타 창고 10평 (각 보르크 판넬 기와집 동)
- 가액 : 3억

010-2591-4736

양평 불교 동호인 마을분양
- 위치 : 양평
- 평수 : 396㎡ (120평)
- 불교공부와 참선 정진하고 싶으신 분
- 제일 저렴한 땅
- 선착순 : 8명
- 양도가 : 3,700만원

010-2215-3657
(주인 직접)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연지암
- 대지 : 254평 (하천부지 포함 800평 사용중)
- 건물 : 대웅전,산신각,요사채(방 5개)
- 종무소 2층 건물, 주차장
- 답사 후 절충

010-6514-0405
(종무보살님)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군산시
- 법당 : 약 25평 목조 건물 문화재급 보유
- 요사채 및 공양간 : 약 35평
- 요사채슬라브 공양간 판넬 – 대지 총면적 : 약 430평
-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 4억 5천만원(약간의 절충가능)

연락처 0505-308-2111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 주세요.

사찰 임대 안내
- 위치 : 서울 수유리
- 지하1층 ~ 지하 3층
- 연건평 446㎡

010-2913-7963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중구 국제시장, 자갈치시장 입구
- 포교하기 최상 장소
- 평수 : 약 80평
- 가액: 보증금 1,500만원 월세50만원
- 시설비: 협의 결정

※ 불사관계로 급
010-4766-3200

절 터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 구성면 용호리 835번지 836번지
- 836번지 약 300평 835번지 임야 약 130평 총 430평
- 암자 지어서 수행 하실분 (깨끗한 약수샘물 나옴)
- 사정상 급양도 2500만원

010-6431-0408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수영구 광안동 (최고요지)
- 3층 건물 2층
- 법당 50평, 방 3개, 공양실, 화장실 2개
- 보증금 1,500만원,월70만원 보증금 3,500만원, 월50만원
- 시설비 2,000만원

010-3884-012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 대지 : 평수 265㎡ (80평) 2층 법당 15평, 산신각 1동 1층 요사채 27평, 아랫채 창고, 방 1개
- 산자락 및 아담한 암자
- 가액 : 1억 5천만원 (대출 4천안고 1억1천만원)

010-8794-1257
010-6222-5835

사찰터 기도원 안내
- 위치 : 경산 용성면 용천리
- 임야 : 12,000평
- 수목 : 소나무 참나무 진달래 약초, 고사리 참옻나무
- 작은 연못도 있으며 산정상으로 등산로 탐방길 되어 있습니다
- 가액 : 2억 2천

010-4953-1728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5평)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0기 허가득
- 가액 : 13억

010-5421-1536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금정구 서동 부산은행 맞은편 농협 앞
- 보증금 : 천만원, 시설비 1500, 월세 30만원
- 평수 : 약 3층 45평
- 친견실 및 룸 4개, 신중, 삼존불 및 지장보살,칠성,산신
- 준비할 것 없음

010-3590-5758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영천 청통 부근 산을끼고 아주 조용한 사찰
- 단청, 주련 현판
- 총평수 465평, 현대식 건물 2동 1층 요사 30평, 14평 2층 30평 법당
- 가액 : 3억 9천만원

011-503-0517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가 격 : ~~10만원~~ ▶ 90,000원
주 문 : 02)2004-8216
입 금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연대불교신문사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CD01-제1. 서품(39:25)
CD02-제2. 방편품(46:51)
CD03-제3. 비유품(54:48)
CD04-제4. 신해품(30:24)
제5. 약초유품(16:08)
제6. 수기품(17:13)
CD05-제7. 화성유품(51:41)
제8. 오색제자수기품(21:11)
CD06-제9. 수학무학인기품(11:22)
제10. 법사품(18:39)
제11. 견보탑품(22:19)
제12. 제바달다품(15:54)
CD07-제13. 권지품(10:07)
제14. 안락행품(27:27)
제15. 종지용출품(21:13)
CD08-제16. 여래수량품(21:15)
제17. 분별공덕품(23:31)
제18. 수희공덕품(13:23)
CD09-제19. 법사공덕품(24:17)
제20. 상불경보살품(13:15)
제21. 여래신력품(08:59)
제22. 촉루품(04:36)
제23. 약왕보살본사품(23:10)
CD10-제24. 묘음보살품(16:12)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19:26)
제26. 다라니품(10:07)
제27. 묘장엄왕본사품(14:46)
제28. 보현보살권발품(14:07)

동물서 로봇까지… 진화하는 사찰 장례

소니 '아이보' 장례식 화제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반려동물 천도재의 선두주자인 일본 사찰이 이제 애완 로봇의 장례까지 도와줘 화제다.

미국 언론 '우프트' 인도 언론 '인디아익스프레스' 등은 도쿄 지바현 이스미시의 고후쿠지(光福寺)서 애완 로봇 '아이보(Aibo)'의 합동 장례식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주목했다. 이 사찰에선 아이보 100여 대의 영혼을 위로하는 장례식이 종종 열린다.

장례식은 후지소프트의 대화형 로봇인 팔로(Palro) 로봇의 추도사와 분겐오이 스님의 경전 암송으로 진행됐다. 이번이 소니 아이보 로봇을 위한 장례식은 꾸준히 진행 돼 왔다. 팔로 로봇은 추도사에서 "우리는 너희들의 모습과 웃음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고 회상했다.

아이보는 지난 1999년 5월 처음으로 발표됐다. "아이보는 소니에 의해 생산된 것이 아니라 소니 안에서 태어났다"는 아이보의 광고 문구에서 예감할 수 있는 것처럼 아이보에 대한 일본인들의



아이보의 장례식을 치러주는 스님이 아이보를 안고 있다.



아이보 장례식 현장. 불단에 오른 수명을 다한 애완 로봇들. 사진출처=마시아블 아시아

반응은 열광적이었다. 25만엔(한화 약 250만원)의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20분만에 3천대가 팔려나가면서 매진 사태를 빚었다. 4개월 후에 업그레이드 버전이 판매에 들어갔는데 이마저 17초만에 매진됐다. 2006년까지 일본 전역에서 팔려나간 아이보는 15만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2006년 소니는 구조조정을 이유로 아이보의 판매를 전격적으로 중단했다. 이후 AS는 이뤄졌지만 2013년부터는 AS마저 중단됐다. 아이보를 고쳐줄 수 있는 수의사가 없어진 셈이다.

소니가 AS를 중단하자 전문 수리 업체가 등장했다. '어펀(A-Fun)'이란 기업이다. 소니 엔지니어 출신이 나와 설립한 기업이다. 그동안 1200대에 달하는 아이보를 수리해왔다. 어펀의 노부유키 노리마츠 대표는 "아이보는 매우 실용적이었다. 특히 노인들이 아이보와 오랫동안 함께 지내면서 애정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어펀은 지난 2015년 1월 아이보 장례식을 처음으로 치렀다. 일부 아이보 사용자들은 죽은 아이보의 장기를

애완 로봇 사용자 많으나
부품 절판에 장례식 진행
작동 중지된 로봇과 함께
찾아오는 신도들 많아…

다른 아이보에게 이식해주기도했다. 아이보의 영원한 삶을 기도한 것이다.

일본 호카이도 분쿄대학의 마카토 와타나베 교수는 "일본에선 사람들이 점점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소원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아이보 처럼 '살아있는' 디바이스를 대리 친구로 여기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인들은 로봇 장례식에 적극 참여하며 그들의 삶에서 살아 있는 디바이스에 대해 깊은 감정을 느낀다고 한다.

일본서는 이런 다양한 장례로 그간 발길이 끊어졌던 사찰에 다시 많은 신도들이 북적인다. 장례식에 참여한 익명의 여성은 "애완로봇이 수명을 다하는 것은 실제 동물이 세상을 떠나는 것만큼 매우 겪기 힘든 일이다. 사찰에서 이것까지 위로해주니 정말 고맙다. 앞으로 사찰을 더 자주 찾을 것 같다"고 말했다.

"불교 상품화 NO" 中정부가 나섰다

성지 주식 상장 등 상품화
중국불교협회 나서 반대해
결국 푸퉈산 IPO신청 기각

중국에선 관광을 겸한 성지순례가 과열돼 성지순례가 오히려 관광상품화 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이에 맞서 불교 본연을 자세를 호지해야 한다고 제지하고 나섰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 일본 '니혼케이자이 신문' 등 외신은 4월 25일 중국 저장성(浙江省)의 관음성지 푸퉈산(普陀山)의 관광 상품화를 막기 위해 스님들이 나섰다고 보도했다. 푸퉈산은 중국 4대 불교 명산중 한 곳이며 상하이에서 13km정도 떨어진 바다에 있는 섬이다.

문제의 시작은 푸퉈산 관광을 전담하고 있는 '푸퉈산 여행발전 위원회'의 발표였다. 지난해 위원회는 늘어나는 관광객에 맞춰 새로운 관광 인프라를 신설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발표했다. 더불어 자금조달을 위해 IPO(신규주식상장)를 중국증권감독위에 신청했다.

이에 '중국불교협회'는 푸퉈산의 과열된 관광 상품화에 반대하며 "신앙이라는 명복으로 주식을 상장하고, 성지 본연의 자세와 멀어지게 하는 일체의 행동에 중국사회 전체에 불행한 일"이라고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불교계는"종교적인 것에 금전적인 투자와 그 이익을 취하는 일은 중국인의 사회기질에 어마어마한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증권감독위는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들은 후 "푸퉈산 여행발전 위원회가 신청한 IPO는 지난 11월 중국국가종교사무국이 발안한 '종교성지의 상업이용에 관한 법규'가 아직 공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4월 공시에서 푸퉈산에 대한 IPO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이미 상장이 통과된 다른 두 성지와는 다른 결론이다. 앞서 1997년에는 문수성지인 우타이산(五台山)이, 2015년엔 보현성지인 어메이산(峨眉山)이 주식을 상장한 바 있다.

푸퉈산은 당나라 때부터 관음성지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최전성기인 청중기에는 3개의 큰 사찰과 88개의 암자, 148개의 법당이, 승려는 비구 비구니를



푸퉈산 전경. 사진출처= 중국 관광국

합쳐 2000여명에 달했다. 중국의 공산혁명이후 사세가 기울긴 하였으나 경제개방과 함께 중산층이 급증하면서 푸퉈산의 아름다운 경치와 불교성지라는 스토리는 훌륭한 관광자원이 됐다. 지난해 푸퉈산의 방문객은 총 8백5십만 명으로 이는 그 전년도(2016)보다 14퍼센트나 증가한 것이다. 저장성 여행국에서 판매하는 푸퉈산행 왕복 페리 운임 수입은 한화로 약 1,300억원을 넘기는 등 나날이 관광이 활발해 지고 있다. 푸퉈산 여행발전 위원회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사업계획서에는 해상 케이블카, 대형 주차장, 온천시설의 신축 등 관광 인프라를 확장하는 내용이 주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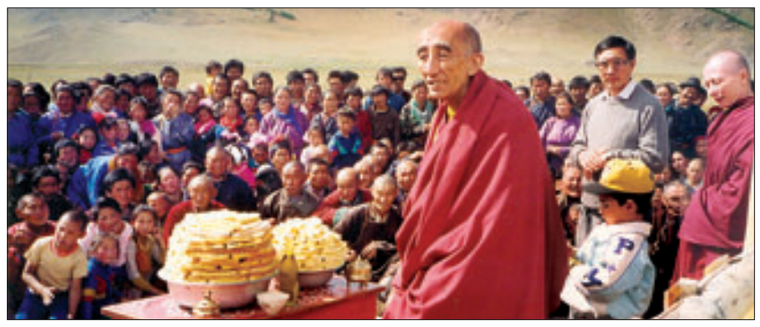
지나친 관광 상품화에 대한 규제는 이번이 처음이며 중국에서는 이례적인 일로 평가받고 있다. 홍콩중문대학 인간불교연구소의 아이린 연구원은 "불교성지에 대한 상업적 이익에 정부에서 제재를 가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이미 중국 내 대부분의 불교성지는 상업화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종교가 기업을 상대하여 이긴 것은 경제를 중시하는 현 중국 정부의 성향에서 생각하기 힘든 결과"라고 의견을 덧붙였다.

한편 이번 결정은 시진핑 주석의 친불교적 성향이 반영 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경제지 '블룸버그'의 평론가 아담 마인터는 "시진핑이 집권한 이래 중국의 전통종교들에 대한 국가지원이 늘고 있다. 시진핑 자신의 종교적 성향이 공표된 적은 없으나, 그 자신의 커리어와 주변인들의 행보에서 친 불교적이라는 것은 명백하다"며 최근 중국내에서 강한 비판을 받고 있는 샤오린사(少林寺)의 기업화에 대한 정부의 생각을 대변하며, 중국정부가 앞으로 불교계에 대한 영향력 행사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몽골 민주화에 기여한 인도스님 기리다

19대 쿠쇽 바쿨라 린포체 탄신 100주년 법회 봉행



몽골인들에게 연설하는 바쿨라 린포체. 사진출처=더 베터 인디아

몽골이 공산주의에서 자유로워져 민주화될 수 있었던 데에는 인도 스님의 영향이 지대했다. 인도 라다크에서 태어난 19대 쿠쇽 바쿨라 린포체(1917~2003) 스님이 그 주인공이다. 몽골에서는 이 스님의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는 법회가 봉행됐다.

'더 베터 인디아'는 4월 26일 몽골에서 봉행된 '19대 쿠쇽 바쿨라 린포체 탄신 100주년 기념법회' 현장을 보도했다. 바쿨라 린포체는 1980년부터 90년까지 10년간 몽골주재 인도대사관의 대사를 역임하며 몽골의 민주화와 몽골불교의 재건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기념법회는 바쿨라 린포체가 생전에 울란바토르에 세운 페툽사원에서 봉행됐다. 법회는 인도와 몽골간의 깊은 정신적 유대와 우호를 기리는 내용이었다.

법회에 참석한 인도 외무부 장관 수쉬마 스와라즈(Sushma Swaraj)는 "바쿨라 린포체는 비록 입적하셨지만, 그분의 행적은 인도와 몽골 양국의 우호를 위한 이정표가 되고 있다. 그분의 가르침은 조화와, 더 나은 세계를 위한 깨달음의 가르침이다"고 기렸다.

바쿨라 린포체는 1917년 인도 라다크의 왕자로 태어나 13대 달라이라마에 의해 16나한의 한분인 바쿨라 존자의 환생으로 인정받았다. 1936년 티베트로 유학을 떠나 1940년에 가장 높은 법계인 게셰 하람파(불교학박사 · 삼장법사)를 취득하여 인도로 돌아왔다.

왕실출신이라는 신분으로 라다크의 백성들을 돌보는 일에 앞장서면서, 바쿨라 린포체는 인도초대 수상이 되는 자와할랄 네루의 권유로 정치에 입문했다. 1947년 인도의 독립 후 잠무 · 카슈미르주의 개헌의회 의원, 이후 인도 국회의원(1967)과 국가 인권 위원회의 위원(1977)으로도 활동하며 불가촉천민과 인도 소수민족의 권익을 위해 힘썼다.

1980년 바쿨라 린포체는 몽골주재 인도대사로 임명됐다. 몽골정부는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 승려이자 외교관으로서 뛰어난 린포체의 지도력에 감동받았다. 몽골은 인도에 가능한 최장기간으로 린포체가 대사로 역임해 줄 것을 요청하여 10년간 대사를 역임하였다. 이 공로를 인정받아 인도정부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훈장인 '파드마 부샨'을, 몽골정부로부터는 세 번째로 높은 훈장은 '북극성' 훈장을 수여했다. 바쿨라 린포체는 2003년 뉴델리에서 입적하였으며, 몽골정부에서는 국고를 지원하여 몽골에 사리탑을 세웠다. 박영빈 객원기자

부처님 진신사리 스리랑카에 오다

남방의 부처님오신날인 '웨삭 축제'를 기념하여, 파키스탄 정부가 탁실라 박물관에 소장 중이던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대여하기로 했다.

지난 4월 30일 '선데이 타임스 스리랑카'는 파키스탄 아메드 마쉬마트(Ahmed Hashmat) 고등 판무관이 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에서 사리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대여는 스리랑카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아메드 판무관은 "이 사리는 고대 불교유적이 풍무한 파키스탄에서도 가장 중요한 유물"이라고 밝혔다. 또한 "스리랑카 불교의 중요 축제인 웨



사리를 전달하는 파키스탄 고등 판무관. 사진출처=선데이 타임스 스리랑카

삭에 파키스탄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큰 기쁨을 느낀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 진신사리는 1913년과 영국 고고학자 존 마샬에 의해 탁실라에서 발굴된 것으로 다르마 라지카 스투파에서 발굴됐다. 박영빈 객원기자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6개월(주1회 특별수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기공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 후원계좌 : 국민은행(611225-92-121426 박성호)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 명)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 ·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자비선으로 없애는 사념의 幻



지운 스님의 **자비선 명상**



3. 자비수관

1) 자비수관 수행 단계

자비선 수행단계는 사념처의 몸(身) · 느낌(受) · 마음(心) · 현상(法)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사념처는 사제(四諦)인 고(苦)-집(集)-멸(滅)-도(道)와 일치한다. 고는 수행의 출발이다. 삶과 죽음의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길이 있지만 명상을 통해 생사가 없는 법을 얻고자 한다면 최상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의 괴로움의 자각이 명상의 출발이 된다. 집은 괴로움의 원인인 갈애(渴愛)이다. 즉, 탐진치이다. 탐진치는 마음이다. 괴로움의 원인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갈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명상의 방향을 마음 안으로 돌려야 한다. 멸은 목적지이다. 생사가 없는 열반이다. 고통과 고통의 원인이 소멸했기 때문에 생사가 없는 것이다. 도는 멸에 이르기 위한 방법, 또는 수단을 말한다. 예를 들어 태권도의 도(道)는 주먹과 발을 쓰는 방법이란 뜻이고, 다도(茶道)하면 차를 음미하는 방법 또는 수단이라는 뜻이다. 도제의 도(道)도 같은 뜻이다. 이와 같이 고집멸도는 출발, 방향, 목적지, 도달하는 방법이 된다. 이에 대응하는 몸 · 느낌 · 마음 · 현상을 살펴보면 현상은 도제에 해당된다. 현상은 수용해야하는 마음의 작용과 버려야하는 마음의 작용이다. 버려야하는 마음의 작용은 오염된 심리이다. 오개(五蓋)가 그것이다. 마음을 덮어서 착한 법을 내지 못하게 하는 탐욕, 화냄, 혼침, 들뜸, 의심 등의 번뇌를 말한다.

도제에 해당하는 현상 즉, 수용해야하는 마음의 작용은 청정한 심리이다. 팔정도, 칠각지 등이다. 팔정도, 칠각지 가운데 정념인 알아차림은 명상의 수단 중 핵심이다. 이 알아차림인 정념이 확립될 때 마음의 고요함인 선정과 지혜를 내고 균등하게 하는 것이 알아차림이다. 이 알아차림으로 몸 · 느낌 · 마음을 관찰하여 삼법인의 지혜를 얻어 열반을 체득하는 것이다. 자비수관도 사제와 사념처의 과정을 가지고 있다. 다만 자비수관은 수단이 정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상 속에서 자비손으로 감로수를 머리 위에 붓는 등 자비손 이미지를 관찰 수단으로 활용하는 관상법(觀想法)도 함께 사용한다. 자비심을 생기게 하는 것도 현상의 청정한 명상심리이다. 그래서 첫 단계로 고제(苦諦)에 해당되는 몸에 감로수를 사용하여 자비심이 일어나도록 하면 탐욕과 분노, 슬픔과 해치고자하는 마음이 줄어들고, 탐욕과 분노 등의 번뇌를 따라 일어나는 부정적인 심리들도 사라진다. 그리고 자비심이 증장하면서 몸의 현상을 무상으로 알아차리기가 쉬워진다. 이렇게 명상해 가면 몸의 형태도 사라진다. 몸 사라짐을 통해 몸은 환영과 같음을 체험하고 몸의 느낌(受)단계로 간다.

집제에 해당하는 몸의 느낌단계는 몸의 형태는 없지만 느낌은 남아 있다. 바닥에 닿아 있는 강한 자극의 엉덩이의 감각을 무상 · 고 · 무아로 알아차림 한다. 그리고 다른 부위의 감각도 알아차림 한다. 감각은 좋아하는 대상에서 느껴지는 낙수(樂受)와 거슬리는 대상에서 느껴지는 고수(苦受)와 좋아하는 것도 거슬리는 것도 아닌 덤덤한 대상으로 느껴지는 사수(捨受)가 있다. 즐거운 느낌과 싫은 느낌과 무덤덤한 느낌을 무상관찰하지 않으면 즐거운 느낌은 탐욕을 일으키고, 싫은 느낌은 분노를, 무덤덤한 느낌은 어리석음을 일으키며, 이 탐진치를 따라 수많은 번뇌가 일어난다. 그러므로 감각을 무상관찰하여 즐거운 느낌은 즐거운 느낌에서 끊어주고, 싫은 느낌은 싫은 느낌에서 끊어주고, 무덤덤한 느낌도 무덤덤한 느낌에서 끊어주는 것이다. 나아가 지나간 감각은 돌아오지 않음을 알아차리고 미래의 감각은 오지 않아 없으며 현재의 감각도 머물지 않는다. 머물지 않는 것은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 이렇게 무상을 관찰해 가면 고와 무아를 아는 삼법인의 지혜가 생긴다. 특히 감각의 자취가 없는 곳에 초점을 맞추고 머물면 분별이 사라지고 마음은 빈 항아리같이 비어지기 시작한다. 마음의 공백이 지속되도록 익숙하게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각 알아차림을 놓치면 망념이 일어난다. 그때는 염기즉각(念起卽覺)하여 제거한다. 즉각의 각은 각파(覺破)의 뜻이다. 그래서 생각이 일어나면 즉각 알아차려 제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 무심(無心)공부다. 이렇게 수행해 가면 느낌단계에서 마음(心)의 단계로 넘어간다.

자비선 수행단계 身受心法
괴로움 자각으로 명상 시작
갈애 없애 명상 방향 바꾸고
청정한 심리 바탕 지혜 갖춰

멸제(滅諦)에 해당되는 마음의 단계에서 무심의 텅 빈 것은 아직 공성이 아니다. 이제 무심의 텅 빔을 지켜보는 마음이 포착되면 그 마음이 명상의 대상이 된다. 명상의 대상인 마음은 생각이나 감정인 심소가 아니라 심왕인 마음이다. 마음에 집중하여 살펴보면 마음이 찰나 찰나 사라지면서도 유지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마음이 유(有)도 무(無)도 아닌 연속체임을 안다. 이때 마음을 과거 현재 미래로 관찰하고 얻을 수 없는 불가득(不可得)임을 알고 그 불가득으로 들어가면 주객이 없고 중생과 부처가 평등한, 조작이 없는 마음의 본성을 깨칠 수 있다. 〈금강삼매경론〉에서는 근본이 없고 상(相)을 내는 종자가 없어 공하다고 한다. 그 자리는 열반이며 보리이며 원각이며 선가(禪家)에서는 이를 본래면목이라고 한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깨침의 과정을 거쳐 마음의 본성을 깨치면 좋겠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이 텅 빈 공백에 집중하는 정념에 머물게 되면 주객이 하나가 되면서 오직 마음뿐 밖에는 경계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마음조차 마음 스스로의 모습이 없으며 생각도 실재하지 않아 얻을 수 없는 것인 줄을 아는 마음이 된다. 이 상태가 익어지면 고요함인 선정에 들게 되며 공적하면서 신령스럽게 아는 앎만 있는 공적영지의 경계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선정 속에서 몸과 마음의 경안이 생기고 사마타를 성취하며, 성취한 사마타(止)의 삼매를 의지하여 몸과 마음을 분석하는 위빠사나(觀)를 하는 지관쌍수한다. 그리고 위빠사나 삼매가 일어나면 사마타삼매와 하나가 되면서 공삼매, 즉 일행삼매가 일어나며 이 삼매 속에서 무분별지혜가 일어나면서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와 같이 자비선도 사념처의 몸 · 느낌 · 마음 · 현상의 단계를 가지고, 자비선이라는 환으로써 몸 · 느낌 · 마음 · 현상이라는 환을 제거하고 삼법인과 열반을 성취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다.

2) 선(禪)의 수행단계와 그 경계

앞서 본래면목에 이르는 수행단계로 제3구 의리선, 제2구 여래선, 제1구 조사선을 이야기했다. 조사의 언구를 통한 수행경계를 더 알고 싶은 독자의 요구가 있어서 선(禪)의 경계를 〈선문수경(禪文手鏡)〉에 근거하여 잠깐 설명하고자 한다. 선에는 의리선의 삼구(三句), 여래선의 삼현(三玄), 조사선의 삼요(三要)의 단계가 있다.

구(句)는 언어를 통하여 깨달음의 이치를 품고 있는 선(禪)을 지성적인 면에서 이해하고 논의하는 것이다. 논의는 유구(有句) · 무구(無句) · 중구(中句)의 삼구가 있다. 이 구 속에는 현과 요가 있다.

현(玄)은 검다, 그윽하다, 고요하다, 오묘하다의 뜻이다. 즉, 주객이 하나 된 상태는 곧 고요하다. 그래서 주객이 하나 된 상태의 고요함 속에서 일어나는 오묘한 선적 체험을 뜻한다. 선을 지성적 이해나 개념적인 이해에 머물지 않고 보다 체험적으로 파악하는 체험의 경계이다. 즉 언어문자의 영역을 떠난 불립문자(不立文字)의 경계이다. 주관과 객관이 분리되지 않고 개념의 매개 없이 직접적으로 화두를 잡고 수행하는 상태이다.

현에도 체중현(體中玄), 용중현(用中玄), 현중현(玄中玄)의 경계가 있다. 그래서 현 속에서도 구와 요를 갖추고 있다.

요(要)는 요지(要旨), 요체이다. 요에도 대기원응(大機圓應), 대용직제(大用直截), 기용제시(機用齊施)의 세 가지 경계가 있다. 삼요 속에도 구와 현이 갖추어져 있다. 구 다음 현, 현 다음 요의 경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금강경〉의 사구게(四句偈)의 언구를 살펴보겠다. 제1구인 범소유상(凡所有相)은 상이 있음을 이야기하므로 의리선의 유구에 해당한다. 제2구인 개시허망(皆是虛妄)은 상 있음이 허망하여 없다는 것이므로 무구에 해당한다. 제3구인 약견제상비상(若見諸相非相) 즉 모든 상이 상이 아니라는 것은 유상과 무상을 모두 부정하는 것이므로 중구에 해당한다. 제4구인 즉견여래(卽見如來)는 본분(本分) 1구에 해당하며 임제 3구중에서 제2구인 여래선의 경계라고 한다.

그러나 의리선의 삼구를 통해 본분 1구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구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예를 들면 "어느 수행자가 개는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으니 조주선사가 없다"고 한데서 무자화두(無字話頭)가 탄생했으며 이 무자를 참구한다고 하면 무자의 '무(無)'가 있음과 없음의 견해를 부정하는 중구에 해당한다. 이렇게 파악하는 것은 무자화두를 잡기 위한 방편이 된다. 즉, 무자의 기능이 모든 견해를 부정하는 살(殺)이 된다. 순간순간 일어나는 견해 등 번뇌 망상이 일어나면 이 무자로 제거한다. 이 무자가 말과 생각을 떠나게 하는 살인검(殺人刀)으로 어떠한 견해도 용납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는 불립문자의 경계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 무자화두를 잡아 오로지 몸과 마음과 무자화두가 하나 된 타성일편(打成一片)이 되고 나아가 타성일편에서 고요해지는 화두삼매 속에서 공적영지(空寂靈知)가 나타나고 주객이 사라진 료료상지(了了常知)의 경계인 깨달음을 얻었다면 여래선의 경계가 되고 조사선의 경계가 된다.

이러한 무자화두의 타파로 여래선의 경계에 가 있다면 〈금강경〉 사구게의 경계는 달라진다. 즉, 범소유상(凡所有相)은 작용 속에 현이 있는 현(用中玄)이 된다. 개시허망(皆是虛妄)은 바탕 속에 있는 현(體中玄)이 된다. 약견제상비상(若見諸相非相)은 현 속에 있는 현(玄中玄)이 된다. 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가 무자화두가 타파되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는 살(殺) 속에서 긍정의 활(活)이 나타나는 조사선에 이르면 〈금강경〉 사구게(四句偈)의 제1구는 두루 하게 걸림 없이 작용하는 대용(大用)의 경계이며, 제2구는 큰 기틀인 대기(大機)이며, 제3구은 큰 작용과 큰 기틀이 함께 쓰는 기용(機用)이며, 제4구는 향상하는 한 구멍인 향상일구(向上一竅)의 경계인 것이다. 큰 작용은 자성을 지키지 않고 인연을 따르는 수연(隨緣), 묘유(妙有)의 뜻이 있으며 큰 기틀은 생멸이 없고 증감이 없는 불변(不變), 진공(眞空)의 뜻이 있다. 이와 같이 선가(禪家)의 수행경계도 단계가 있다.

〈보리마을 자비선명상원 선원장〉

철 골 조
사찰신축전문



사찰지붕개량
천년와 기와 지붕개량
공사기간단축(3분의1)
공사금액 목조보다 60%절감

010-3911-1775 / 011-9726-9288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 대북



◀ 태징



◀ 2자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대한명인 제14-406호
대고제작
www.yangjikukak.com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02-456-8831 | 경 상 도 010-4187-0062
강 원 도 019-396-1110 | 전 라 도 011-248-6298
충 청 도 010-6545-3350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대행 스님

가면으로 살지 말고 진짜로 실행을 하면서 살아야!

사월초파일을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 모두 잘 생각해서 다시 한번 분발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좁게 써서는 아니 됩니다. 항상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일체 만물만생과 더불어 같이 아픔을 나눌 수 있는 대심(大心)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말하자면 '아픔을 전부 건져서 편안하게 할 수만 있다면….' 하는 그 대심을 항상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기필코 나의 뿌리를 발견하리라.' 하고 생명을 걸고 원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깨달아야 일체 만물이 둘이 아님을 알아서 일체 만물이 다 내 스승 아님이 없으며 내 몸 아님이 없으며 내 아픔 아님이 없고 내 형제, 내 부모, 내 자식 아님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말만 듣고 그냥 그렇다더라 하고 가면 실감이 나질 않아요.

가면으로 살지 말고 진짜로 실행을 하면서 살아야, 진짜 사람으로서 우주의 근본 자체가 우리 마음에 직결이 돼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고, 세상만사가 찰나찰나 돌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 마음에 가설이 됐다는 사실도 알게 될 겁니다. 그럼으로써 스스로 일체 만물이 스승인 줄 알고, 이렇게 돼야 돌 하나를 봐도 은혜를 갚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정법으로, 정의로 바탕을 삼아서 행해 나간다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과 곤충에 이르기까지 만물에게도 은혜를 갚는 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 소리 할 게 없이 극치적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해야 할 본분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하나가 혼자 산다고 하지 마세요. 안으로도 혼자 사는 게 없고 밖으로도 혼자 사는 게 없어요. 안 그런가요? 곤충에 이르기까지 직접적으로 주고받는 것은 없더라도 간접적으로도 연결 연결 돼서 주고받고, 서로 돕고 서로 먹으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어지럽고 귀찮게 이 말 저 말 거기다가 넣어서 말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이 들어서, 벽을 치면 봇장이 울리듯이 마음의 지혜가 생기고 물리가 터져서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진실과 행이 꼭 성취돼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느 것 하나 은혜로운 모습이 아닌 게 없습니다. 한마디로 비유한다면, 농사를 짓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삽니까? 쌀만 농사가 아닙니다. 옷감을 만드는 노동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옷을 입습니까? 우리가 주고 우리가 받고, 곤충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지 · 수 · 화 · 풍도 빼놓지 않습니다. 물도 생명이 있고, 불도 생명이 있고, 흙도 생명이 있고, 바람도 생명이 있고 마음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조그마한 것 하나를 보면 열 일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조그만 거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하고 욕심스럽게 한다면 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나는 그렇습니다. 이건 내 자랑이 아닙니다. 신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이 이만큼 있는데 몇 명에게 똑같이 주기 위해서 나는 똑같이 맛있는 거를 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 못 먹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 똑같이 맛있는 거를 먼저 주게 되니까, 나중에 없으면 그만이고 있으면 먹고 이런 거지, 욕심스럽게 하는 게 아닙니다. 조그마한 거지만, 그 조그만 거를 방편으로 세웠지만 큰 거나 작은 거나 똑같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서 스스로 나와야지 억지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맛있는 거를 먹으려고 제껴 놓는다면, 제껴 놓고 아무거나 나눠 준다면, 그것은 내 스스로 정말 '전자(前者)'와 '현자(現者)'가 한데 합쳐져서 만물이 나 아님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가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어떠한 문제로 붙들려가서 법으로 처형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렇고, 처벌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렇고, 경찰서에 갇혀 있다 하더라도 그렇고 너무도 극치적으로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의 업식이 자기를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 한다면, 사람은 물질로서 모든 역할을 하고, 물질을 주고받고, 잘잘못을 따지고 이러죠. 그러면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그건 형식이지 진짜가 못 됩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진짜 할 수 있는 거를 못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선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게 아니죠. 전자 '부(父)'와 현자 '자(子)'가 둘이 아니게 상봉을 한다면 일차적으로 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견성입니다. 왜, 이런 말이 있죠?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가고, 남의 마음을 아는 게 없이 알고, 또는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게 없이 알고, 보는 게 없이 볼 수 있고, 듣는 게 없이 들을 수 있어야 법의 철퇴를 친다 하더라도 누가 이렇게 쳤다 이런 게 없이, 모두 하나로 구성된 자리에서 법으로서 내리는 철퇴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등한 그 자리가 부처님이기 때문에 한 발 내려딛고 법신으로서 법을 내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여러 말 하기 싫어서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분이 가정에서 살면서 지금 아무리 급한 게 있다 하더라도 싸우지 말고 주인공에다가 모든 걸 맡기라고요. 자식이나 부부지간, 부모지간에 잘못된 게 있다 하더라도, 친척지간에 잘못된 게 있다 해도 그것을 바깥으로 내놓고 정색을 해서 잘못했느니 잘했느니 왈가왈부하지 말라고요. '둘이 아닌 까닭에 너만이 그러지 않게 할 수 있어.' 하고 안에다 맡겨 놓고, 부드러운 말을 해 주고 부드러운 행동을 해 주고 따뜻하게 해 주라고요. 여름이면 시원하게 해 주고 겨울이면 따뜻하게 해 주면서 내 탓으로 돌린다면…, 내 탓으로 그냥 돌리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내 탓이지 내가 없었다면 왈가왈부할 것도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잘했든 못했든 모두 내 탓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 나간다면 가정과 부부와 자식 사이에 모두 화목을 가져올 수 있고, 질서를 지킬 수 있고, 즉 말하자면 도의, 의리를 지켜서 우리가 화목하고 자유스럽게 웃고 살 수 있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거죠. 남을 이익하게 해 주고 고통 속에서 건져 주는 바로 그것이 자비입니다.

여러분한테 여러 말 안 해도 주인공이라는 것을 잘 아시겠죠. 주인공이라는 것은 개별적인 나 하나가 아닙니다. 안에도 포함됐고, 바깥에도 포함됐고, 쉴 사이 없이 끊이지 않고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이 자체의 삼라만상 대천세계를 그대로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홀히 보지도 말고 높이 보지도 말라 이겁니다. 높이 보면 어그러지니까. 내려 봐도 어그러지고. 그러니 나와 똑같이만 봐라 이겁니다. 법당에 들어와서도 형상적인 부처라고 보지 마시고 '내 형상과 둘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데서 50%가 확산되니까 말입니다.

부처님은 보이지 않는 데서 모든 행을 하셔서, 즉 말하자면 천백억화신이라고 했지만 그건 수효가 없는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몸속에 있는 그 자생중생들이 화(化)하게 되면 시쳇말로, 원자에서 입자로 나가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원자로 인해서 입자가 되고, 입자로 인해서 소립자도 되고 또 원자도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발전하고 개발하려고 해도, 그러한 지수화풍의 근본 자체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으니 안 되는 거죠. 그게 있기 때문에 전체가 있는 거죠. 그러니 보이지 않는 데서 보이는 데로 나오는 것입니다. 생산이 돼서 나오는 거죠. 생산이 돼서 나왔다가 또 꺼지면서, 또 보이지 않는 데 원자로서 또다시 화해서 진화돼 가지고 또 생산이 돼서 나오고 하죠.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곤충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바다의 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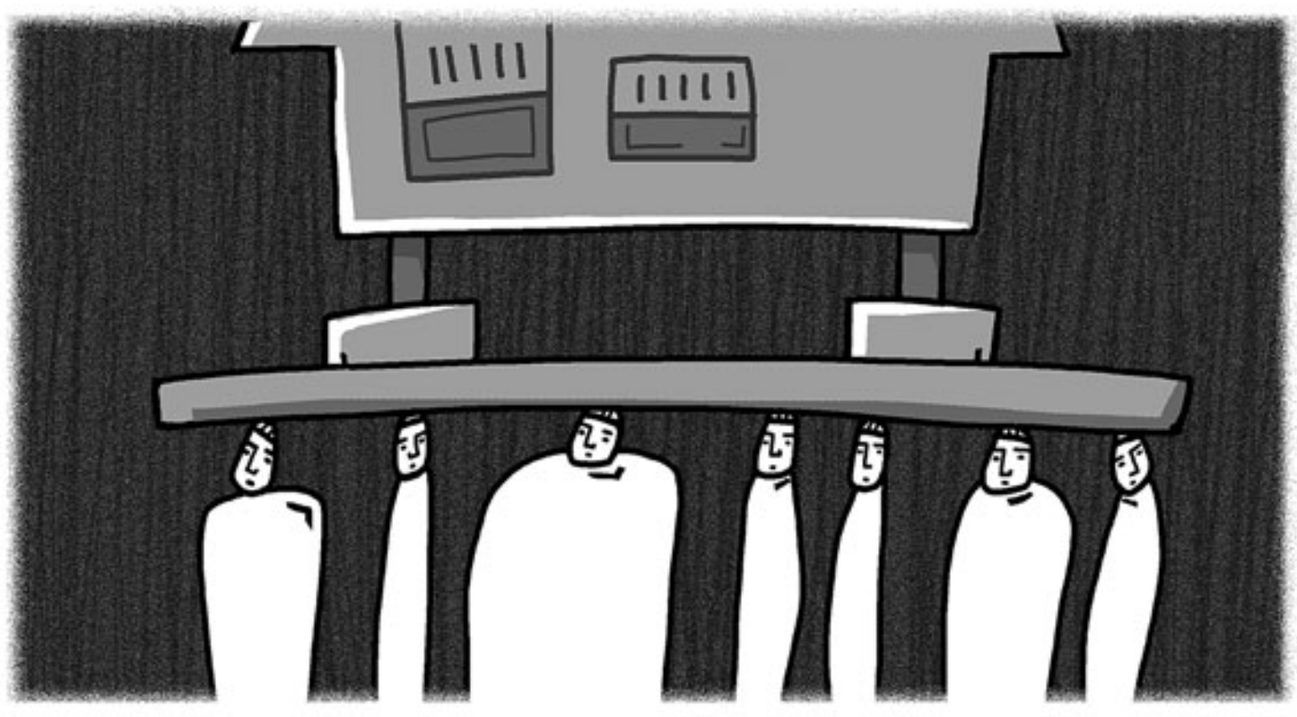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 A18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어느 것 하나 은혜로운 모습이 아닌 게 없습니다

☞ A17면에서 계속

그렇고 말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뒤집어지고 젖혀지느냐? 파도가 일고 소용돌이가 치고 그러느냐? 모두 살기 위해서입니다. 모두 같이 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시겠죠? 모두 같이 살기 위해서라고요. 하나하나 이렇게 끄집어내서 말하기가 싫어서 이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저 조그마한 세숫대야의 물을 놓고 요거밖에는 없다는 생각은 마세요. 이 마음이 보이지도 않고 잡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광대한 겁니다. 그러니 그쯤 아시고 오늘은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죠.

질문자(남) 큰스님, 오늘 저에게 이와 같은 복된 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마음선원 대전지원 신도입니다. 큰스님께 궁금해서 여쭙고 싶은 질문이 수없이 많습니다만 오늘은 그동안 제가 공부한 것을 점검받고자 합니다. 저는 2년 전부터 주인공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참말로 신비스럽고 오묘한 것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우리 몸 세포 하나하나에 다 들어앉아 있다는 주인공. 아주 쉬운 말 같으면서도 너무나 큰 진리가 담긴 주인공. 눈에 보이는 물건이라면 한번 보았으면 좋겠고, 손에 잡히는 물건이라면 한번 잡아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늘 여여하게 있다는 주인공. 그 주인공을 큰스님께서 늘상 하시는 말씀대로, 그냥 있다고 철석같이 믿어 버리면 될 터인데 어리석은 것이 중생이고 따지는 버릇이 성성한 것이 또한 중생인지라 주인공을 믿는 척하면서도, 이해하는 척하면서도, 그래도 그냥 몰락 믿고 맡기지 못하고 수시로 의정을 내고, 그래서 그 의정 때문에 저는 주인공 공부를 하면서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엉거주춤하게 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는 국민학교부터 대학원까지 23년간의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마음은 단지 뇌가 하는 기능이라고만 배웠을 뿐이지, 우리의 육체 속에 마음이 따로 존재한다고는 배운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더욱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의문은 주인공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거짓말 탐지기를 갖다 대도 탐지기가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큰스님 말씀과, 큰스님께서 마음을 내시면 어떤 이치로 해서 우리 몸에 있는 암 덩어리가 없어져서 결국 병이 낫게 되는가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대체 주인공의 정체가 무엇이며, 마음의 근본을 이루는 알갱이는 무엇이며, 물질의 근본을 이루는 알갱이는 무엇인가를 혼자서 책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근본 알갱이와 물질의 근본 알갱이가 무엇인가를 알면 자연히 이러한 의문들이 풀릴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큰스님 한꺼번에 그렇게 말씀을 다 해 놓으시면 내가 어떻게 하리까?

질문자(남) 제가 물질의 근본 알갱이에 관해서 양자물리학 서적을 통해서 공부한 바에 의하면 육체든 물질이든 쪼개고 쪼개면 마지막 단계는 분자이고 분자는 다시 원자로, 원자는 다시 원자핵과 전자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자핵은 중성자와 양성자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 양자물리학자들은 중성자며 양성자며 전자가 모두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의 성질을 갖는, 즉 입자로서 제자리에 있는가 하면 금방 파동이 되어 빛처럼 어디론가 퍼져 나가는 매우 괴상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그 정체를 파악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 하였으며, 결국 이 입자인 동시에 파동의 성질을 갖는 양성자, 중성자 및 전자 등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물리학자 토마스 영(Thomas Young)이나 미국의 유명한 물리학자 헨리 스탭(Henry Stapp)이나 이반 워커(Evan Walker) 그리고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과 원자물리학을 공동 연구하였으며 현재 런던대학의 원자물리학 교수인 데이비드 봄(David Bohm) 등은 양성자, 중성자 및 전자가 마음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주도 마음을 갖고 있다고 했으며, 그래서 우주의 마음이 결국 양성자, 중성자 및 전자의 마음을 구성하는 기본 알갱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제가 마음의 근본 알갱이에 대해서 뇌신경학 및 정신의학의 서적을 통해서 공부한 바에 의하면, 캐나다의 유명한 신경외과 의사인 펜필드(Penfield)는 마음을 뇌 조직에서 찾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을 뇌 조직에서는 찾을 수 없었다고 하였으며, 결국 마음은 뇌와는 전연 별개의 것으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혼도 불멸하는 것이라고 했으며, 따라서 앞으로 마음을 더 연구하면 죽은 사람의 영혼과도 교신할 수 있는 어떤 과학적인 방법의 개발이 가능한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견하였습니다. 유명한 뇌 생리학자이며 노벨 의학상 수상자인 죤 엑클스(John Eccles)는 우주의 삼라만상은 물질, 마음 그리고 정보 등 세 가지로 돼 있다고 말하면서 물질과 마음은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엘 에스 디(LSD)라는 환각제를 사용하여 마음을 연구하여 노벨 수상자로 거론될 정도로 유명한 정신분석학자인 미국의 스타니슬라브 그로프(Stanislav Grof)는, 마음은 사람의 몸에 별도로 존재하는 하나의 실체이며, 그 마음을 구성하는 근본 알갱이는 물질을 구성하는 근본 알갱이와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신과학 운동의 선구자이면서 양자물리학자이기도 한 프리쵸프 카프라(Fritjof Capra)는, 인간의 마음은 물론 실존하는 것이며 마음의 근본 알갱이와 물질의 근본 알갱이는 동일한 것이며, 우주의 본질 자체가 마음 알갱이이기 때문에 결국 우주는 마음 알갱이 하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 바람, 세균, 식물, 짐승 그리고 사람은 모두 그 근본이 동일한 마음 알갱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형제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허망된 망상을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눈이 사물을 보기는 하되 눈이 눈을 볼 수 없고, 귀가 듣기는 하되 귀가 귀를 들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이 마음을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체험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주인공이 있으나 주인공이 주인공을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물질의 근본을 연구하는 양자물리학의 세계적인 과학자나, 마음의 근본을 연구하는 세계적인 뇌 생리학자는 이구동성으로, 마음은 사람의 몸에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며, 그것은 물질의 근본 알갱이와 동일한 것이며, 또한 우주의 알갱이와도 동일한 것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큰스님께서 저희들에게 입이 닳도록 일러주시는 주인공이 바로 그 근본 알갱이인 것입니다. 즉 우주의 근본 알갱이가 주인공이요, 마음의 근본 알갱이도 주인공이요, 육체의 근본 알갱이도 주인공이요, 물질의 근본 알갱이도 주인공인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내면 어찌 육체가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퍼져나가듯이 마음을 내면 그 파문이 암 덩어리가 아니라 육체의 어디까지라도, 아니 우주 법계의 어디까지라도 파문이 아니 미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책을 보고 이와 같이 공부한 것을, 한마음선원 대전지원에 새로 오셨으나 저와 같이 의정이 많아서 주인공 공부가 잘 안되는 도반들에게 전달하고자 저 나름대로 조그만 책자를 만들어 도반들에게 책 보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제가 공부한 것이 큰스님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순 엉터리 지식을 도반들에게 전달해서는 큰일 난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둘째는 비록 제가 공부한 것이 순 엉터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큰스님께서 주인공 공부를 가르치실 때 한 절반만 가르치시고 나머지는 본인 스스로가 맛을 보도록 가르치시는 의도를 제가 눈치코치도 없이 까발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큰스님께 제가 만든 이 조그만 책자를 한번 점검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런 쓰잘데없는 것을 만들었다고 야단을 치시든지 해 주십사 하고 이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큰스님, 오늘 장시간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러가겠습니다. 옥체보존 하옵소서.

> **우리는 마음을 좁게 써서는 아니 됩니다.**
> **항상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일체 만물만생과 더불어 같이**
> **아픔을 나눌 수 있는 대심(大心)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큰스님 막 자기 말만 다 해 놓고는 '넌 듣거나 말거나 해라. 난 하겠다.' 하고는 그냥 그 내리 읽는 폼을 보니…, 허허허….

첫째에 우리가, 물질로서의 이 현자만을 가지고는 도저히 알 길이 없어, 현자만 가지고는. 그래서 "전자 부(父)와" 하는 겁니다. 부처님이 부라고 그랬으니까 그것을 지금 시쳇말로는 전자라고 해도 되는데 거기 사람이 끼여 있으니까 전자 부라고 합시다. 전자와 현자가 한데 합쳐지는 반면에 그 가운데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 바로 마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하나로 한데 합쳐져 가지고 용도에 따라서 방출이 되죠. 많이 방출이 됐다가 제자리에 올 수도 있고, 또 제자리에서 적게 배출될 수도 있고, 많이 배출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더한다 덜한다 말할 수도 없고 한계가 없어요. 상대가 되는 어떠한 물체가 작으면 작은 대로 바로 합쳐지고 크면 큰 대로 합쳐지니까. 그리고 크면 큰 대로 발산이 되고 작으면 작은 대로 발산이 되니까, 그것이 얼른 쉽게 말해서 생산이죠. 이건 발산이라고 할 수가 없죠. 생산이죠. 생산을 해서 이것이 앞으로 더 발전이 되고 능숙해지면, 앞서 거쳐 왔던 진화 과정은 그냥 한데 합쳐져서 없어지고 다시금 또 일어나죠. 이렇게 해서 일체 만물만생이 살고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극치적인 문제는 지금 나를 어떻게 발견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과학자들이 지금, 얼른 쉽게 말해서 '이것은 어떻게 생기고, 요거는 몇 자고, 요건 둘레가 얼마고, 요거는 뭘 하고 있고 어디서 나오고' 요런 것만 가지고 그러는데 이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거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신통은 도가 아니니라." 이러셨어요. 오신통이 지금 과학자들이 하는 일들이거든요, 다. "보는 사이 없이 보고, 듣는 사이 없이 듣고, 아는 사이 없이 알고, 어디서 온 거를 아는 사이 없이 또 알고, 가고 오는 사이 없이 가고, 이 문제를 그렇게 잘 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천안통을 알고 천이통을 알고, 타심통을 알고 숙명통을 알고, 신족통을 안다 하더라도 그건 도가 아니니라." 이랬어요.

비교를 한다면, 과학자들이 오신통을 가지고 지금 하는 건데 오신통 안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 오신통을 자유스럽게 굴릴 수가 없고 나라는 존재를 알 길이 없죠. 이 오신통 바깥으로 벗어나야 오신통을 굴릴 수 있죠, 마음대로. 우주 세상 삼라만상, 즉 말하자면 과거 · 현재 · 미래심, 이 삼심(三心)을 다 알아서 처리할 수가 있는 그런 역할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모두 지혜롭게 어디 걸림이 없이 아주 여여할 텐데, 이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질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지금, 내가 항상 이런 말을 하죠. 어항 속에서 고기가 나오지 못하는 격과 같다. 고기들이 바다에서 바깥으로 나오면 죽듯이 공기통 안에서 우리는 한 발짝도 떼어 놓을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공기 바깥으로 벗어나도 아주 광대하고 여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길러야 한다, 첫째는 마음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바깥에서 찾는 것도 아니고 바로 나 있는 자리에서 찾아야 합니다. 내가 움죽거리고 보고 듣고 행하는 전체를 바로 내 그 알맹이가 하는 거니까. 얼른 쉽게 말해서 영원한 뿌리가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을 어디서부터 해야 하느냐 하면, 자기가 이 몸이라는 물질을 형성시켰거든요. 형성을 시킬 때에는 정자 난자를 빌려서 같이 해야만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자 난자를 빌려서 자기가 형성을 시켜 놓고 자기가 이끌어 가는 거죠.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4년 5월 1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 당뇨, 고혈압 에서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 디스크, 협착증 및 각종질병 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냄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빙의치유(귀신들림) 상담환영!!

몸안에 들어온 영가 (천도)
전국 최고의 실력으로 보답합니다!!

각종 빙의의 구체적 증상

- 사람이 갑자기 어느 싯점부터 이상 행동하는 경우. (폭력적으로 변한 경우, 술을 갑자기 많이 먹는 경우, 술 먹으면 눈빛이 바뀌는 경우, 밥을 끊임없이 많이 먹는 경우 등)
- 잠잘적마다 많은 꿈에 시달리는 경우, 잠잘적마다 가위눌리는 경우.
- 불면증 심하거나 자면서 비명지르고 헛소리, 중얼거림이 심한경우.
- 어느 싯점부터 사람이 의욕이 없고 우울해지고, 몸이 마르고, 몸이 천근 만근 무거우나 병원에선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 환청, 환각 증세가 심한 경우.
- 희귀병 투병중인 경우.
- 불안, 공포, 무서움증이 심한 경우.
- 알 수 없는 머리 두통, 가슴 통증, 배아픔 등이 있는 경우.
- 중,고등학생이 갑자기 이상행동, 폭력적행동, 학습능력저하, 자살 충동 일으키는 경우.
- 장례식장, 상가집, 국내, 외 여행 다녀온 후 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 있는 경우.
- 동물령, 식물령도 천도 가능함.

[꼭 천도해줘야 할 영가]

- 자살 (음독, 목매어, 투신) 했거나 원한이 많은 상태로 죽은 경우.
- 갑작스런사고, 병고, 심장마비로 죽은 경우.

상담해법 문제해결 중심으로 상담 : 빙의치유 전문자격 갖춤

- 차후 지속 관리해 드림
- 원격 치유 가능 (외국에 있는 분도 치유 가능)

상담 문의처 | 제주불교금강선원 (빙의치유영가천도전문상담원) ☎ 064)746-0789

오시는길 : 제주시 삼무로 47, 3층 (연동) 삼무공원버스 정류장 하차하여 바로

피부·치아건강제

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지혜 원력으로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회향공덕하는 마음으로
불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자연식용재로 준비하였습니다.

스님, 불자님, 충치, 풍치, 시린이, 치주염, 치석, 잇몸출혈, 흔들리는이, 입냄새, 담배냄새, 혀백태, 입안건조, 임플란트 틀니 하시고 잇몸 아프신 분, 탈모, 비듬, 얼굴 기미, 손발톱 무좀, 각질, 습진, 전신잡티, 낭습진, 피부아토피, 알레르기, 벌레, 풀독, 모기물리고 머리염색 후 가려움증, 상처, 비염, 화상(즉시 여러번 사용 물집안생김), 백반증, 노화성피부건조 등 피부 치아가 건강치 못한 분들 연락주시면 3개월 사용분을 보시합니다.

문의 및 보시처 | 안산 법흥사 개운 합장 010-6332-6070

| 현불 논단 |

통일불사, '마음 천도재' 준비부터



이금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4월 27일 11년만의 남북정상회담
전 세계인의 이목이 판문점에 집중
'완전 비핵화 통한 평화 구축' 합의

전쟁 · 분단, 씻을 수 없는 상처 남겨
종전선언으로만 모든 게 치유 안돼
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 해결해야

남북 불자들이 '마음의 봄' 맞이토록
불교계가 분단의 상처 치유 나서야

2018년 4월 27일 남북한 정상이 만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였다. 남북정상회담의 많은 일정들이 생중계되면서, 세계인의 이목이 판문점에 집중되었다.

북한의 거듭되는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발사로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이 고조되었던 터라,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어느 때보다 커질 수밖에 없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한이 한반도의 평화번영을 위한 공감대를 확인하면서, 특사교환을 통해 회담내용에 대해 철저하게 사전조율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8 남북정상회담은 '평화, 새로운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내고자 노력하였다. 분단과 대립의 상징이던 판문점이 평화를 논의하는 회담장소로 정해졌다. 오랜 관계경색을 풀어내기 위한 남북한 예술단 공연도 남북관계의 봄을 기다리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남북정상회담의 일정들에 '남북이 하나'라는 이야기와 상징이 세심하게 담겨져 마음의 울림을 주고 있다.

남북정상은 3개조 13개 항의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 및 군사적 긴장완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판문점 선언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북한은 정상회담직전인 4월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핵미사일 시험발사 중지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의지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북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 간 기존합의의 철저한 이행과 남북관계의 불가역성을 강조하였다. 판문점 선언은 2007년 10.4선언의 합의내용들을 담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감안하여 남북 간 경제협력의 내용들이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넘어, 남북정상은 남북관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한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방식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분단과 전쟁은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결의 깊은 상처를 남겼으며, 이는 단순히 종전선언을 한다고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남북정상이 합의한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 하는 노력이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산가족들의 전면적인 생사확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죽기 전에 꼭 한 번만이라도 (고향에) 가봤으면 좋겠구나'는 노래말처럼 남북한은 실향민들의 고향방문 길을 열어야만 한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중단되었던 불교계의 교류협력은 다시 시작될 것이다. 따라서 불교계는 변화된 환경에 맞게 북한과의 교류협력의 틀을 재정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분단으로 인한 상처들을 어루만지고 치유하는 '마음의 천도재'를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불교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결을 청산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서원하는 마음들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불자들이 '마음의 봄'을 맞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불교계가 '둘 아닌 도리'로 한반도 구성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여 한다.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가겠다는 정성스런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지면 하늘도 감동할 것이다.



기자칼럼
윤호섭 취재부 기자

허울뿐인 종교계 출산 장려

2017년 출산율 1.05명. 통계청이 지난 2월 발표한 '2017년도 출생 · 사망통계 잠정 결과'서 드러난 우리나라 출산율이다. 이는 2005년 1.08명 이후 가장 낮은 기록이다.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출생아 수는 35만7700명으로, 2016년 40만6200명보다 11.9% 감소했다. 2001년 이후 어느덧 17년째 합계출산율 1.3 이하의 초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 역시 이 같은 위기상황을 감지한 듯 가정의 달을 맞아 미혼 · 육아병행 직장인 등을 초청해 저출산 좌담회를 여는 중이다. 이달에만 3차례. 저출산의 근본 원인을 당사자들에게 듣고, 대중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자는 취지다. 토론회 주요 내용은 기획재정부 페이스북을 통해 공유되기도 한다.

종교계도 힘을 보탰다. 7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인 (사)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4월 30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종교계 국민운동을 선포했다. 종지협은 △가족 친화적 가치관 확산 △생명존중 사상 전파 및 자살예방 노력 △임신 · 출산 · 양육에 대한 사회적 배려 강화 등을 위해 나설 것을 선언했다. 그 일환으로 결혼정보 전문업체 '가연'과 협약을 체결했다. 혼인율을 높이고자 미혼남녀를 위한 '커플 매칭'에 힘을 쏟겠단 의미다.

한데 문제가 되는 것은 종지협의 이 선언이 수년 전 발표한 선언문과 똑같은 데다 출산 장려의 첫 열쇠를 '혼인'에 뒀다는 점이다. 먼저 2015년 12월 8일 종지협은 황교안 前국무총리와 함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종교계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때 발표한 선언문은 얼마 전 발표한 것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을 정도로 똑같다. 차이점이 있다면 당시 각 종교 대표자가 지금과 다르다는 것뿐이다. 그로부터 2년 반이 지나는 동안 종지협이 저출산 관련 사업을 실시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게다가 저출산 극복에 허송세월한 데 대한 반성도 없이 마치 없던 일인 양 종교계 선언을 답습하는 모습은 탁상행정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다.

결혼정보업체와 협약을 맺은 것 또한 시대에 뒤떨어진, 전근대적 사고방식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2018년 현재, 결혼이 곧 출산으로 이어진다는 사고방식은 소위 '꼰대' 소리를 듣는다. 통계청이 2016년 12월 발표한 '신혼부부통계'에 따르면 초혼인 신혼부부 117만9000쌍 중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부부는 41만9000쌍으로 전체 35.5%에 달했다. 혼인 1~2년차를 제외한 3~5년차 부부 71만5000쌍 중에서는 19.3%가 자녀를 낳지 않았다. 이 같은 통계서 단순히 혼인만으로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혼부부들은 맞벌이 또는 무주택일수록 자녀가 없었다. 당연한 결과다. 시간적 · 경제적으로 자녀를 낳아 양육할 환경이 조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혼인'에 집착하는 종교계의 노력은 대중에게 박수를 받을 수 없다. 진정으로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했다면 종교계가 보육시설을 짓는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 힘을 보탰어야 할 일이다. 또한 각 종교 종무원들이 상사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쓰는 분위기,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하는 탄력적인 근무제도를 마련하는 게 순서다.

얼마 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에 근무하는 한 종무원에게 쉬는지 물어봤다. 한숨 섞인 그의 대답은 짧았다. "우린 근로자 아니고 그냥 종무원이에요."

社說

사지 보호, 문화 전승의 또 다른 이름

'알쓸신잡' 경주편에서 경주 천마총에 간 유시민 작가는 이런 얘기를 한다. 어렸을 때 천마총이 언덕인지 알고 뛰어 놀았다는 말이다. 어릴적 동산처럼 뛰어놀던 곳, 그냥 무심코 동네 어귀에 있던 돌이, 그리고 밭으로 만들었던 땅이 1980년대 이후에야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문화재로 지정되던 기억들이 있다.

한때 경주에서도, 익산에서도 많은 우리 문화재가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한채 방치됐다가 뒤늦게 문화유산으로 평가 받는 일이 있었다.

얼마전 백제 최대 사찰로 알려진 대통사지로 추정되는 절터가 확인됐다. 하지만 공주시의 한옥 신축 사업으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문제는 사전조사 형식의 발굴조사에서 유물이 무더기로 발견 됐음에도 한옥 신축사업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수천년 동안 보존한 문화유산으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웃나라에서 3000년 보존할 때, 우리의 문화재는 침략자들에 의해 파괴되거나, 혹은 반출됐다. 그나마 남아있는 문화재 또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채 개발이라는 무지의 행위로 인해 사라지고 있다.

이런 중요성에 문화재청은 2010년부터 조계종과 전국사지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문제는 사지와 사지에 묻혀있는 문화재를 보호할 사적 지정이 더디다는데 있다. 사지로 조사되더라도 사유지로 있는 경우가 태반이다. 우리 문화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발 빠른 사지의 사적 지정과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韓 · 中 유학승 교류 환영한다

한 · 중 불교가 매년 유학승 상호 초청해 수학하는 인적 교류를 본격 시행한다.

조계종 교육원은 5월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육원장 현응 스님 등이 지난 4월 23일부터 27일까지 중국정부의 공식 초청으로 이뤄진 중국 승가교육 현장 방문에 대한 성과를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원장 현응 스님이 위파(佘波) 중국 국가종교국 부국장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과 중국 양국 불교가 추천하는 10명의 유학생을 교환해 각국 불교교육기관에 수학토록 하자"고 제안했고, 중국 불교계 측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적극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조계종은 중국 국가종교국과 협의 통해 교환 수준과 형태를 논의하고 최종적으로 상호협력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한국과 중국불교는 오랜 시간동안 역사와 문화 등을 공유해왔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 · 중 불교간 유학승 교류는 환영할만 하다. 이 같은 한 · 중 유학승들의 교류가 공식적으로 이뤄진다면 양국 불교 발전뿐만 아니라 불교 세계화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다. 현재 중국의 승려 수는 24만 명으로 각 지역마다 4년제 불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사찰의 불학원은 한국의 중앙승가대와 동국대와는 달리 학위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10명의 유학승이 상호 교환될 경우 이 같은 학위 문제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협의를 통해 불교학을 배울 수 있는 베이징대 등서 수학하는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

향후 한국과 중국불교 양측이 원만하게 만족할 만한 협의를 통해 좋은 인적 교류들이 이루기를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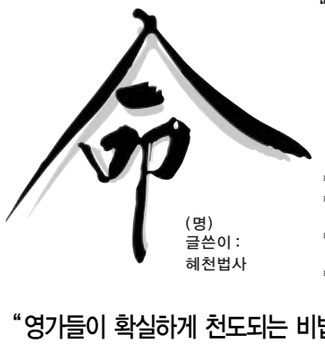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제1회 한마음 백일장 대회

청소년들의 인성함양 및 문학에 대한 관심과 창작능력 증진을 위해
『제1회 한마음 백일장 대회』를 개최합니다.

◆ 행사안내

일시 : 2018년 5월 13일(일) 13:00 ~ 17:30

집합장소 : 광명선원 문화원 2층 강당

참가대상 :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부문 : 운문(시), 산문(수필)

주제 : 당일공개

준비물 : 필기도구(연필, 지우개), 원고지 받침대

◆ 접수안내

접수마감 : 2018년 5월 12일(토)까지<당일접수도 가능>

접수방법 : 전화(043-877-5000)

팩스(043-877-2900) <오전 9시 ~ 오후 4시>

이메일(ryoung89@naver.com)

※ 접수시 이름, 학교, 학년, 참가부문, 연락처 기재 필수

◆ 발표 및 시상

발표일 : 2018년 5월 19일(토) 예정

수상자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공지

시상식 : 2018년 5월 22일(화) 오전10:30

광명선원 대웅전

◆ 시상내역

초등 장원 1명 - 상금 10만원
우수 2명 - 상금 각 5만원
장려 00명- 상품권 각 3만원

중등 장원 1명 - 상금 20만원
우수 2명 - 상금 각 10만원
장려 00명- 상품권 각 5만원

고등 장원 1명 - 상금 30만원
우수 2명 - 상금 각 20만원
장려 00명- 상품권 각 7만원

◆ 참고 및 유의사항

- 출품한 원고는 반환하지 않고, 소유권은 광명선원에 있으며 수상작에 한해서 책자로 제작 및 불교신문에 실을 수 있습니다.
- 수상한 작품이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 발생 시 당선을 취소하고 상금을 환수합니다.
- 시상내역은 작품수준 및 참가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작품 수준에 따라 일부 수상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광명선원

“봉사는 수행”… 오늘도 묵묵히 ‘자비행’



평생 자원봉사와 군포교 등 이타행으로 살아온 오명숙 보살이 30년 인연인 서울 화계사를 찾았다. 사진= 박재완 기자

그대는 자비보살 오명숙 (60 · 조계종 자원봉사단 1기)

고단한 삶이 가져온 불연

힘든 결혼 생활로 부처님 찾아
법당 청소하며 부처님과 대화
“부처님께 이 몸 바치겠습니다”
성불사 · 화계사 · 수덕사 등 인연
입 · 눈 · 귀 막고 3년 설거지봉사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설거지, 빨래, 청소 등 사내(寺內) 울력은 물론이고 목욕봉사, 따주기봉사, 급식봉사, 호스피스 등 봉사단체에서 진행하는 자원봉사와 군법당 불사 등 군포교까지, 30여 년을 무주상보시와 이타행으로 살고 있는 이가 있다. 그의 바라밀은 말없는 전법이 되었고, 그의 이름 뒤에 붙은 ‘보살’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흔히 부르는 우바이의 다른 이름이 아닌 진정한 보살의 의미로 불리기에 충분하다. 1995년 창립된 조계종자원봉사단 탄생의 시발점이자 1기 단원인 오명숙 보살이다.

시련이 가져온 불연

오 보살의 불연은 시련에서 시작됐다. 오 보살은 부모님이 강력히 반대하는 결혼을 했다. 하지만 그의 결혼 생활은 편안하지 못했다. 신혼살림을 서울에서 시작했지만 얼마 안 되어 시아버지가 살고 있는 부산으로 내려가야 했다. 시아버지를 모시고 있던 시동생이 군에 입대하게 되었고, 오 보살 내외가 시아버지를 모셔야 했다. 시아버지를 모시는 일은 문제가 아니었다. 문제는 여건이 좋지 않다는 것이었다. 단칸방이었다. 남편의 형편도 좋지 못했고, 시집의 형편도 좋지 않았다. 오 보살은 자신의 처지가 왠지 초라해 보였고 마음이 아팠다. 부모님과 친정 식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강행한 결혼이었다. 오 보살은 마음을 둘 곳이 없었다. 친정 식구들이 그리워도 찾아갈 면목이 없었다. 삶은 무거웠다. 그래도 오 보살은 방황은 안 된다고 생각했다. 무언가 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오 보살은 옆집 할머니가 절에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 보살은 다음날부터 옆집 할머니를 따라 절엘 다니기 시작했다. 어차피 오 보살에게 불교는 모태였다. 오랜 동안 잊고 살았을 뿐이었다. 오 보살은 열심히 절엘 다녔다. 절에 가는 것으로 언제 어긋날지도 모르는 자신의 마음을 붙들고 돌보았다.

그리고 얼마 후부터 오 보살은 좀 더 깊은 공부를 하기 위해 다른 도량을 찾았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마음가짐과는 다른 마음으로 부처님 앞에 섰다.

“부처님, 제가 부처님 도량에 평생 제 몸 하나 바치겠으니 저희 가정이 부처님 가피 속에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오 보살의 첫 서원이었다. 기복에서 출발한 서원이었지만 그 서원은 지금의 오명숙을 있게 한 서원이었다. 오 보살은 100일 동안 법당 청소를 하기로 발원하고 매일 법당에 들어 청소를 하면서 부처님과 이야기를 했다. 그날그날 일어난 이야기를 부처님께 나누며 고단하고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았다.

“처음엔 힘겨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는데, 언제부턴가 그 시간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오 보살은 그렇게 불교를 시작했다.

보고 싶은 엄마, 그리고 부처님

오 보살이 부산으로 내려온 지 7년이 되던 해였다. 오 보살의 신행은 하루하루 수행으로 쌓여갔다. 그러던 어느 날, 오 보살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이 닥친다. 일곱 살이었던 딸아이가 유괴를 당하는 황망한 일이 벌어졌다. 오 보살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너무나 가혹한 시련이었다. 오 보살은 삶이 끝난 것 같은 절망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 천만다행이었다. 오 보살의 딸은 유괴를 당한 지 4일 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딸을 다시 찾은 오 보살은 두 번 사는 것 같았다. 하지만 딸의 유괴과정을 알게 된 오 보살은 또 한 번 깊은 우울을 겪게 된다. 오 보살의 딸을 유괴한 범인은 여자였으며 전과가 있었다. 오 보살의 딸이 예쁘다고 생각한 범인은 일곱 살인 오 보살의 딸을 유괴해 나이가 들 때까지 키울 작정이었다. 그리고 돈을 받고 팔아넘기려고 했다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오 보살은 온 몸에 소름이 돋았다. 오 보살은 도저히 부산에서 살 자신이 없었다. 오 보살 식구는 서울로 다시 올라간다. 오 보살은 그렇게 힘들 때마다 어머니와 친정 식구들이 생각났다. 오 보살도 부모이기 이전에 여자이고 딸이었다. 엄마를 찾아가 울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었다. 오 보살은 보고 싶은 엄마를 생각하며 다시 부처님을 찾았다.

시련을 수행으로…30년 인연 화계사

오 보살이 서울에 올라와 처음 인연을 맺은 곳은 당시 숭산 스님이 계시던 화계사였다. 우연히 올라탄 버스가 오 보살을 화계사에 내려 주었다. 오 보살은 화계사에 자신의 부처님을 모시기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형편이 좋지 못했던 오 보살로서는 부처님 전에 마땅히 공덕을 지을 것이 없었다. 불전함에 보시는 꿈도 꾸지 못했던 오 보살이었다. 오 보살은 부산에서 처음 부처님 전에 올렸던 서원을 떠올렸다. 오 보살은 그 때 그 서원대로 ‘이 한 몸’을 바치기로 했다. 그것이 오 보살의 유일한 보시였다. 오 보살은 부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절일을 돕기로 했다. 먼저 후원으로 향했다. 설거지 울력부터 하기로 했다. 하지만 부처님 도량도 세상살이는 ‘세상살이’였다. 세상살이에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고 했던가. 모든 것이 오 보살 뜻대로만 돌아가지는 않았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화계사의 신도들도 대부분이 노보살이었다. 그 때, 오 보살은 스물일곱 살이었다. 부산의 절에 다닐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랐다. 대중이 많았고, 조직의 구성도 달랐다. 대중이 많다는 것은 그 만큼 말도 많다는 것이었다. 이삼십년, 많게는 삼사십년 이상 나이 차이가 나는 노보살들의 시선에 이십대의 오 보살은 왠지 편치가 않았다. 더구나 후원에 나와 시키지도 않은 설거지를 도맡아 하고 있는 오 보살은 누가 보아도 흔치 않은 모습이었다. 그렇게 흔치 않은 모습이었기에 많은 생각들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시선이 곱지 않으니 생활은 불편하고 힘들었다. 오 보살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욱 힘들었다.

B2면에 계속

INSIDE

B3
현견 스님의 중국 선문화 기행
승찬과 〈신심명〉

B5
문화
國博, 상주 용흥사 괘불전

B6
학술 · 문화재
임진왜란 갈등해결자 ‘불교’

“여법한 삶 사는 게 전법”



오 보살이 후원하는 5사단 금강법당에서 장병들이 법회를 열고 있다.



오 보살(왼쪽에서 네번째)은 조계종 前 총무원장 법장 스님의 유발 상좌로 시봉했다. 사진은 2004년 불일 미술관에서 법장 스님과 기념촬영.

오명숙 보살은?

1959년 경기도 평택에서 태어났다. 부산 장산 성불사에서 7년간 수행했고, 불교전법대학에서 포교사 과정을 통과했다. 서울 화계사와 수덕사에서 30년 가까이 수행하고 있으며, 화계사 봉사부장, 미아8동 ‘자비의 집’ 운영위원장, 조계종 자원봉사단 1기, 5사단 전차대대 후원회장 등을 맡으며 자원봉사와 전법의 길을 걸어왔다.



‘오명숙 보살’ B1면에서 계속

자원봉사와 군포교 전법 30년

화계사 봉사부에서 ‘봉사’ 눈 떠
목욕·빨래·급식·호스피스 등
자원봉사단 창립 건의, 1기 단원
삼풍백화점 참사 현장 자원봉사
한 달간 유가족 주먹밥 날라
불교전법대학 포교사 통과
1년 모금해 무너진 군법당 중건
군법당 정기법회, 공양 위문
5사단 금강법당 후원회장 등
암투병 중에도 전법 홍포

마음을 둘 곳이 없어 부처님을 찾았고, 마음 다스리고 공덕 지으려고 후원을 찾은 것인데 삶은 여전히 가시밭길이었다. 하지만 오 보살은 그 가시밭길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가야할 길이라면 어려운 길일지라도 가야한다고 생각했다. 오 보살은 귀 막고 입 막고 눈도 감고 설거지만 했다. 그렇게 3년이 흘렀다. 부산에서 법당 청소를 할 때처럼 오 보살은 다른 사람이 먹은 그릇을 닦으며 자신을 닦았다. 9년 동안 촛대를 닦으며 삶에 대해 생각했다. 오 보살의 삶은 그렇게 하루하루 의미를 거듭했고, 그 모습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노보살들의 시선이 조금씩 달라졌고, 마음도 조금씩 열렸다. 오 보살은 15년 동안 자비로 노보살들의 성지순례를 모셨다. 그렇게 오 보살은 화계사에 둥지를 틀었다. 그리고 나중엔 공양주까지 하게 됐다. 오 보살은 조계종 전 총무원장 법장의 스님의 유발상좌로 시봉하며 수덕사의 촛대도 23년 동안 닦았다고 한다. 그렇게 오 보살은 봉사신행으로 자신을 닦았고, 삶에 찾아드는 어려움들로 삶을 넘어섰다.

“새벽 4시에 딸아이를 업고 절엘 올랐어요. 그리고 불교전법대학에서 불교 공부도 했어요. 포교사도 되었고, 법사도 되었어요. 제가 처음 화계사를 찾았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0년이 흘렀네요.”

화계사 마당 한 편에서 만난 오 보살이 지난날을 회상했다.

삼풍백화점 참사, 자원봉사단 창립

1995년 6월 29일. 서울의 유명 백화점 건물이 붕괴되어 500여 명이 사망하는 초유의 참사가 발생한다. 삼풍백화점 붕괴참사. 그 현장으로 제일 먼저 달려간 자원봉사자가 오 보살이다. 화계사 봉사부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오 보살은 자원봉사단을 꾸려 현장으로 달려갔고, 유가족들과 현장 관계자들을 위해 한 달 동안 주먹밥을 날랐다. 그 외에도 연천 수해지구, 고성 산불현장, 대구 지하철공사장 가스폭발사고현장 등 웬만한 재난 현장엔 오 보살이 있었다.

오 보살은 13년 동안 화계사 봉사부를 이끌며 ‘봉사’에 눈을 떴고, 그것이 평생 자원봉사자의 길을 걷는 단초가 되었다. 화계사 인근에 있는 자비의 집 운영위원장을 23년 째 맡고 있는 오 보살은 불우한 어르신들을 위한 급식봉사, 장애시설의 목욕봉사, 따주기봉사, 빨래봉사, 호스피스, 교도소 봉사 등 안 해본 봉사가 없다. 모두 자원봉사다.

“어느 순간부터 오명숙의 불교가 조금씩 넓어지고 깊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 몸 하나 위해 부처님을 찾기 시작했지만 부처님 말씀 공부하면서 여법한 삶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어요. ‘봉사’가 그 모색의 답이었죠.”

쉽지 않은 삶을 살아온 오 보살은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았다. 오 보살은 그 동안의 봉사가 그저 불법의 실천이라고 겸손하게 말했지만 오 보살에게는 이미 마음이 지어놓은 것이 있었고, 그것은 ‘봉사’였다.

오 보살은 누구보다 봉사에 대한 원력이 뛰어났다. 그런 오 보살의 원력은 더 큰 원력으로 회향된다. 당시 자원봉사에 대한 저변이 미약함을 누구보다 절실히 느끼고 있었던 오 보살은 좀 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조직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원력을 품어주기를 바랐다. 그 바람이 현실로 이루어진다. 조계종 총무원이 오 보살의 원력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1995년 8월 조계종자원봉사단이 창립된다. 오 보살은 1기 단원이다. 그렇게 오명숙의 불심은 점점 더 큰 불사를 이루어냈고, 불사가 거듭되면서 힘들었던 ‘오명숙’은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게 사라지고 없었다.

이제는 전법…군포교

1996년, 강원도 화천의 15사단 내에 있는 법당(지장사)이 산사태로 무너졌다. 그리고 그 사고로 인해 법당에서 자고 있던 4명의 병사가 사망했다. 소식을 전해들은 오 보살은 역시 봉사단을 꾸려 현장을 찾았다. 법당은 사라졌고, 아까운 청춘들이 세상을 떠났다. 자식에 대한 애달픈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오 보살이었다. 세상을 떠난 병사들은 어쩔 수 없었지만 법당만은 다시 살려야겠다고 생각했다. 법당이 그대로 사라질 판이었다. 오 보살은 자신에게 돌아온 인연이라고 생각했다. 오 보살은 자신이 이끌고 있는 미아8동 자비의 집 봉사자 200여 명과 함께 1년 동안 천만 원을 모았다. 그리고 지장사를 다시 세웠다. 그렇게 군포교 현장과 인연을 맺은 오 보살은 또 한 번 자신의 불심을 넓힌다. 이제는 전법포교였다. 지장사를 다시 세운 오 보살은 거의 매달 도반들과 지장사를 찾아 법회를 열고, 공양을 마련해 장병들을 위문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도 오 보살은 지장사를 찾았다. 그리고 지금은 후원금으로 그 보시를 이어가고 있다.

“제가 준비해간 음식으로 공양하는 병사들의 모습을 보고, 법회에서 법문을 듣고 있는 장병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흐뭇해져요. 제가 어려운 시간 보낼 때, 제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었던 것이 부처님이었고, 저를 받아준 곳이 부처님 도량이었습니다. 저에게 불교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느꼈던 불교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저의 전법이고 포교입니다. 부처님 앞에서 법문 나누고 공양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군법당을 찾았을 때 식구가 늘어나 있는 것을 보는 날에는 더욱 행복해요.”

오 보살은 지장사 말고도 5사단 전차대대 금강법당 후원회 회장을 맡고 있다. 19년째다. 28사단 81연대와 GOP 법당도 오 보살이 돕고 있다.

오 보살은 몇 년 전에 암수술을 두 번이나 받았다. 그는 투병 중에도 불심을 놓지 않았다. 주변의 환자들에게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해주었다. 오 보살이 살아온 이야기는 다름 아닌 부처님 공부한 이야기였다. 오 보살 주위엔 환자들이 늘어갔다. 오 보살의 이야기가 소문이 난 것이다. 힘들고 무료한 환자들이 오 보살을 찾았고 오 보살은 그들에게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다시 찾아올 땐 〈금강경〉을 나누어 주었다. 전법과 포교가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 여법하게 사는 것이 전법이었다.

오 보살의 봉사와 전법의 30년 신행은 쉽지 않은 불심이다. 쉽지 않은 그 불심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묻자 오 보살은 “처음 부처님 앞에서 서원했던 그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고 했다.

8년 전, 어느 날 오 보살은 남편으로부터 ‘보살’이라는 명호를 받았다고 한다. 평소 오 보살의 신행생활을 못 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남편이 삼배를 하며 “보살님!”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전법은 따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흔히 우바이를 “보살”이라고 부른다. 그것이 좋은 것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서로가 서로를 ‘보살’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부처님 가까이 있음일 것이다. 인터뷰를 마치고 일어서는 오 보살을 누군가 부른다. “보살님!”



불교사상 관통하는 승찬의 〈신심명〉



현견 스님의
중국 선문화 기행

⑨ 승찬과 〈신심명〉



그림 · 강병호

〈신심명(信心名)〉은 3조 승찬 대사의 저술로서 깨달음의 정수를 기록한 것이다. 〈신심명〉은 중국 초기 선종의 자료로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승찬 개인의 업적으로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신심명〉의 내용은 전체적인 불교의 사상을 관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도교의 자연회귀사상까지도 담아내고 있다. 또한 우리들은 〈신심명〉을 통해서 3조 승찬의 선의 경지를 엿볼 수 있다. 〈신심명〉과 유사한 이름의 우두종 법융선사의 저작으로 〈신명(信銘)〉이 있다. 물론 한편에서는 〈신심명〉이 승찬이 지은 것이 아니라는 설도 있다.

3조 승찬대사는 처음에 거사의 신분으로 혜가를 배알하였다. 당시 승찬의 나이는 이미 40세였다. 그 후 그는 서주 완공산(舒州 皖公山)에 은거했으며, 북위 무제(560-578)의 훼불 때는 태호현 사공산(太湖縣 司空山)에 은거하기도 했다고 한다. 3조 승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설과 고사가 전해져 온다. 2조 혜가를 배알하기 전 그는 몸에 중병을 앓고 있었는데, 병고로 인해서 본인이 지은 죄업장이 너무 두터워서 이러한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철저한 참회를 하리라고 결심하였다. 그래서 그는 혜가대사에게 말하기를 "제자의 몸은 질병이 감싸고 있습니다, 화상에게 죄를 참회하기를 청합니다"고 하자, 혜가가 대답하기를 "너의 죄를 가지고 와서, 너와 더불어 참회하라"고 하자, 승찬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죄를 찾기가 어렵습니다"고 했다고 한다. 이 고사는 지금도 중국 선종의 유명한 공안 중에 하나로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신심명〉의 저작의 시기는 6세기 후기 혹은 7세기 초이다. 이미 불교가 중국에 들어오고 수백 년이 지난 후이다. 이 기간에 불교는 외부적으로는 중국 본토의 문화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많은 발전과 변화를 이어 가고 있었고, 내부적으로도 각종 의학파(義學派 · 남북조시대) 내지 종파가 파생 되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때문에 〈신심명〉은 역사를 아우르고 시대의 배경 및 변화과정을 흡수해서 지어진 문헌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신심명〉은 달마선의 기본사상을 바탕으로 하면서 여래장사상과 반야사상을 조화롭게 융화하면서, 당시 남방에서 유행하고 있는 현학까지도 흡수한 독특하고도 매우 선명한 중국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

〈신심명〉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기본적으로는 달마대사의 벽관수행법을 계승하면서 일종의 여래장불성을 직관으로 자증(自證)하는 새로운 수행법이다. 때문에 인도선의 주축이 되었던 전통차제 수행법과는 분명 거리가 있다. 달마선법은 여래장인 자각성지(自覺性智)할 것을 고도로 중시했다.(是諸如來自覺聖智所得) 달마가 주장 했던 이입(理入)은 비록 아주 성숙된 돈오의 특성을 지닌 것은 아니지만, 본질상에서 직각내증(直覺內證)을 주장했다. 때문에 자각성지(自覺聖智)는 본체론적인 경향이 농후하다. 어떤 측면에서 여래장(自覺性智 · 自覺聖智)은 위진 남북조의 본체론과 수당의 심성론과 유사점 및 불교의 불성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반드시 혜가 승찬에게도 일정부분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이러한 사상적 계승의 바탕위에서 본인의 사상을 심화시켰을 것이며, 〈신심명〉에도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융흥편년통론(隆興編年通論)〉에서 승찬 스님의 평가를 보면 "〈신심명〉은 자심을 청정히 하고 언상을 여읜 달마의 안심법문과 혜가의 '만법개여, 신불불이(萬法皆如, 身佛不二)'의 바탕위에서 자성청정여래장설을 결합했고, 〈유마경〉의 불이법문과 반야론 사상을 흡수하고 통합해서 자기만의 독특한 사상을 확립했다"고 평하고 있다. 개괄적으로 말하면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실상불이관(實相不二觀-眞如法界 · 無他無自)이고, 두 번째는 중도실상관(中道實相觀- 一心不生 · 萬法無咎)이고, 세 번째는 자연수행관(自然修行觀- 一種平懷 · 泯然自盡)이다.

〈신심명〉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먼저 수행강령으로 "반연을 따르지 말 것이며, 억지로 자기를 억누르지도 말고 구태여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스스로 다해서 소멸될 것이다.…, 진(眞)을 구할 필요도 없으며, 오직 쉬면 나타난다.(莫逐有緣, 勿住空忍, 一種平懷, 泯然自盡……, 不用求眞, 唯須息見)"고 했다. 즉 도는 대상, 경계를 초월하는 것으로, 심과 경계가 서로 대립해서 들어가는 경계도 아니고, 심식분별의 관찰로 획득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직 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직하에 심성여여(心性如如)를 체현해서 일체망견을 소멸하면 자연히 청정본성이 들어난다는 것이다. 즉 진을 구하지 않고 오직 망상만 쉬면 나타난 다는 것이다. 다음은 수행관으로 "육진을 싫어하지 말라, 육진을 싫어하지 않으면, 도리어 정각과 같다. 지자는 무위하고,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 얽어맨다.(勿惡六塵, 六塵不惡, 還同正覺, 智者無爲, 愚人自縛)"고 하였다. 그는 현실생활 속에서 스스로 자유로울 것을 노래했는데, 즉 번뇌와 보리가 둘이 아닌 불이(不二)를 깨닫기를 주장 했다. 즉 육진의 경계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이다. 현실의 주체인 육진(대상 · 현상)을 싫어하지 않으면서, 위에서처럼 쉬기만 하면 곧 정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지자는 무위하고,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를 자박한다"고 하였다. 그 다음은 수행실천관으로 "구속에서 자연스럽고, 체에 주하는 것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도에 계합하고, 스스로 자적해서 번뇌가 끊어진다.(放之自然, 體無去住, 任性合道, 逍遙絶惱)"고 하였는데, 이 부분은 노장의 현학의 색채가 농후하다. 즉 노장사상의 현학화 표현이다. 대만의 인순 스님도 무창법난 이후 달마선은 중국화, 특히 노장화 현학화 되었다고 했다.

〈신심명〉, 깨달음의 정수 기록
달마선의 기본사상 바탕으로
여래장과 반야, 남방 현학 융화
도교의 '자연회귀' 까지 담아

〈신심명〉의 첫 구절에 나오는 '지도무난, 유겸간택(至道無難 唯嫌揀擇)'에서 도(道)에는 두 가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는 불교의 도(道)를 말하는데, 통상적으로 "적멸, 진여, 열반, 불생불멸 등 해탈의 최고봉인 정각의 원만한 상태를 말한다. 즉 본연여실(本然如實)한 자타내외(自他內外) 등의 무분별지(無分別智)의 불이(不二)경계이다. 두 번째는 중국전통철학인 노장학에서 말하는 도(道)로서, 여기서 도(道)는 만법(만물)의 근원이며 형이상학의 최고봉을 말한다. 〈신심명〉에서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불교의 도(道)는 생략하고, 도교의 도(道)에 대해서 간략하게 논해 보겠다.

도(道)는 노자의 〈도덕경(道德經)〉의 핵심 개념이며, 노자사상의 전체적인 중심 사상이 되고, 특정한 상황에 따라서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각기 다르며,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 ①형이상(形而上)의 실존자이며, 곧 우주만물의 최초의 본원의 구성자이다. 즉 감각적으로 느끼거나 눈으로 볼 수 있거나, 소리로 듣거나 촉각으로 만질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②우주 만물의 발생, 존재, 운동의 규칙을 가리키며, ③인류사회의 일종의 준칙 법칙 표준이 된다.

또 도(道)에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도(道)는 무상(無狀), 무상지물(無象之物), 간불견(看不見 · 보아도 보이지 않다), 모불저(摸不著 · 만져도 잡히지 않는다)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도(道)는 만물을 생한다고 한다. 즉 "도는 하나를 생하고, 하나는 둘을 생하고, 둘은 셋을 생하고, 셋은 만물을 생한다. 만물은 음양을 포함하고 있으며, (음양)기가 화합해서, (만물의) 조화를 이룬다.(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 萬物負陰而抱陽, 沖氣以爲和)"는 것이다. 여기서 도(道)는 곧 하나(一)를 가리키는데, 곧 시작과 생산을 말한다. 세 번째 도(道)는 운동을 응용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천하의 만물은 유(有)에서 생하고, 유(有)는 무(無)에서 생한다고 한다. 무(無)는 곧 만물(萬物)을 시작하는 원자(原子)라는 것이며, 유(有)와 무(無)의 대립의 통일체가 바로 도(道)라는 것이다. 즉 우주만물이 생산한 현상세계와 그 발전은 모두 무(無)에서 유(有)로 시작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곧 무중생유(無中生有 · 무의 가운데서 유가 난다)라는 것이다.

또, 도(道)의 개념을 대표하는 두 가지 성질이 있다. 하나는 내재적 존재성 이라고 부르며, 두 번째는 초월성이라고 부른다. 도(道)의 내재적 존재성은 어떠한 사물도 도(道)를 여의고 존재할 수 없으며, 더욱더 유지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도생만물(道生萬物)'이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만물이 다시 어떠한 모양 형상으로 변하거나, 혹은 소실되거나 증가해도 도(道)는 완전히 불변하며, 절대로 영향을 받지 않는 다는 것이다. 즉 도(道)의 초월성이다. 때문에 곧 도(道)는 구경진실(究竟眞實)를 대표하며, 최후(最後)·최종(最終)을 말하며 진정으로 유일하고(眞正唯一) 절대적인 구경이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도(道)가 사람들의 의지로 전이(轉移)되는 객관적인 규율이 아니면, 전체 우주는 오직 물질과 객관적 규율만 존재하는가? 불교는 단독적인 객관을 인정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마음의 조작이라고 여긴다. 객관적 세계는 각자 주관적 세계가 투영된 세계라는 것이다. 즉 환(幻)이라는 것이다. 유식에서도 유식무경, 만법유식(唯識無境, 萬法唯識)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선종은 '즉심즉불, 심외별법, 심리별법(卽心卽佛, 心外別法, 心離別法)이라고 강조한다. 또 유교에서 인(仁)을, 도교는 도(道)를 최고의 경지로 삼지만, 불교는 연기론인 공성(空性)이 존재의 근원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 존재의 근원인 공성(空性) 존재의 근원을 확실히 깨달으면, 바로 구경이고 최고의 정각열반이며 해탈이라는 것이다. 한편 〈신심명〉에서는 불교는 심(心)을 강조하면서, 무분별심(無分別心)을 최고의 도(道)로 삼았다. 결론적으로 〈신심명〉에서 도(道)는, 불교의 도(道)와 도교의 도(道)가 혼합 되어진 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 곧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다.

〈동국대 강사〉

www.shcandle.com
자연과 건강을 생각하는 삼환양초
조연향당은 국내향 제조 연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식물성양초 : 팜유 원료의 자연주의 캔들. 그을음이 적고 연소시간이 파라핀 양초보다 깁니다.
■ 밀납양초 : 토종 한봉 밀납만 사용한 자연 그대로의 색과 향
■ 약쑥양초 : 특유의 향과 탈취 효과로 잡냄새는 물론 머리를 맑게 합니다.
■ 연꽃소이양초 : 자연친화적이며 은은한 연꽃향이 마음의 안정을 줍니다.
연꽃향 NEW 국내산 장·단 / 대바라
강화자자발 약쑥향 NEW 국내산 장·단 / 대바라
향나무향 NEW 국내산 장·단 / 대바라
연봉 원기둥 7.0Φ×34cm
원기둥 7.5Φ×29cm
돈타레 5.6Φ×26cm
밀대 4.7Φ×24.5cm
돈타레 5.6Φ×27cm
밀대 4.7Φ×25cm
6.5Φ×30cm
5.9Φ×18cm
향나무가루 1포 1kg
우창산업 삼환양초는 1993년부터 양초를 생산해왔고 2대째 가업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항상 믿고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삼환양초 (우창산업) 농협 221133-51-020122 (예금주 : 장경분) 소비자무료전화 : 080-0766-8888 상담문의 031)766-0242 팩스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봉골길 131-14

“현실과 통하지 않는 화두는 가짜”

〈通〉



화두, 나를 부르는 소리

박재현 지음/불광 펴냄/1만 5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어지러운 세상이다. 빠르게 변해가는 시대 상황 속에서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전문가들의 고준담론부터 온갖 멘토들의 충고가 독서 시장과 방송 매체에 넘쳐난다. 하지만 우울증 등 마음이 아픈 사람은 늘어만 가고 있다. 더 잘 살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지만 삶은 더 힘들어지는 아이러니…. 모든 것이 풍족해 보이고, 세상은 첨단이라는 이름으로 격변해가고 있지만, 개인은 점점 작아지고 있다. ‘나’는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이다.

마음의 중심이 곧지 않으면 바깥의 탁한 기운에 휩싸이고 원하지 않는 길로 가는 법. 혼란한 세상, 올곧게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생각의 중심축을 ‘나’로 가져와야 한다. 그 생각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일이 바로 ‘화두’다. 한국 선불교의 간화선 전문가이자 오랫동안 선(禪)으로 대중과 호흡해왔던 저자 박재현 교수(동명대 불교문화콘텐츠학과)는 삶속에서 선사들의 화두를 통해 어떻게 생각의 중심을 찾아갈지 풀이했다.

보는 만큼 안다고 했다. 생각도 마찬가지이다. 나를 시험하는 온갖 유혹을 쳐내고 담금질하고 다듬어야 이 혼침 같은 세상을 베어낼 수 있다. 그래서 저자는 화두로 나를 찾기 위해서는 교감을 중요시 여긴다. 세상과 소통하고 느껴야 하는 것이다. 의례화되고 정형화된 것은 이미 화두가 아니다. 현실속에서 절박하게 들이닥쳐야 화두가 될 수 있다. 살아있는 화두는 끊임없이 현실과 교감한다. 그렇지 못한 화두는 가짜일 수밖에 없다. 박재현 교수의 ‘화두에 관한 지론’이다.

지금 이 순간의 절박함이 내면의 직관과 만나면 화두의 세계가 펼쳐진다. 의심이 강할수록 화두의 몸집은 거대해진다. 정해진 답도 없고, 남의 답이 나의 답이 될 수도 없다. 오직 자신만의 답을 찾아야 한다. 화두는 결코 선승들의 전유물이거나 고전에 적힌 글귀가 아니다. 지금 나와 맞닥뜨린 것만이 화두가 될 수 있을 뿐이다. 저자는 정신 바짝 차리고 주변을 돌아보면 화두 아닌 것이 없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과 문제의식에 두 눈 크게 뜨고 있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화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질문이자 해답이기 때문이다.

바람에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다. 한 스님이 말했다. “깃발이 흔들리는구먼” 다른 스님이 말했다. “바람이 흔들리는 것일세” 옥신각신하는데, 육조혜능이 말했다.

“바람이 흔들리는 것도 깃발이 흔들리는 것도 아닐세. 그대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일세”

두 스님이 흠칫 놀랐다.

공안 〈깃발과 바람〉 中에서

‘화두’, 매 순간 던질 ‘절박한 의심’
혜능 마조 등은 어떻게 가르쳤을까?
1,700여 공안 중 뽑은 문 41가지

선가에서 스승이 제자에게 깨침을 얻도록 하기 위해 제시한 문제가 공안, 즉 화두이다. 제자는 화두를 풀기 위해 분석적인 사고와 절박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고 어느 순간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져 답을 얻게 된다. 이러한 수행법을 ‘공안 수행’이라고 하는데, 선(禪)에서 만들어진 독특한 수행법이다.

여기서 언급되는 ‘공안’과 ‘화두’는 같은 말이기도 하고 다른 말이기도 하다. 전문 학자가 아닌 일반인이라면 같다고 봐도 무방하다. 굳이 조금 자세히 들어가 구분하자면, 공안은 옛 선종 고승들이 화두를 선별해 엮은 선문답 사례집 같은 것이고, 화두는 넓은 의미에서 선문답 전체를 가리키는 것을 말한다.

마조 조주 남전 원오 혜심 벽장 등 위대한 선사들의 대화를 다룬 공안집으로는 〈벽암록〉 〈무문관〉 〈종용록〉 등이 유명한데, 공안의 종류가 1,700가지에 이른다고 전해진다. 공안이 선문답의 ‘문제 은행’으로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700 공안’이라는 용어는 선종 관련 역사서인 〈경덕전등록〉에 등장하는 선사의 총수가 1,701명인 데서 유래했다. 하지만 이는 공안집이 아닌 역사서이기 때문에 공안의 내용이 담겨있지는 않다.

선종과 공안집은 중국에서 탄생했지만 1,700 공안을 모두 볼 수 있는 전집은 중국서 편찬되지 않았다. 이 방대한 양의 공안들을 찾아볼 수 있는 공안집은 1226년경 우리나라 고려시대에 간행된 〈선문염송〉이 유일하다. 이는 공안집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 불교의 정수가 선종이 된 저력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저자는 이 〈선문염송〉을 바탕으로 41개의 화두를 가려뽑아 현시대에 맞게 세련된 현대어로 새롭게 재해석했다. 여기에는 저자의 시사성 강한 발언과 철학적 질문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온다. 〈화두, 나를 부르는 소리〉는 저자 나름의 시각으로 사회적 문제를 가미한 내용을 두었다. 이어서 ‘공안’을 직접 번역해 소개하고, 해설편을 따로 두었다.

공안집에 기록된 화두가 단지 옛 시대의 글귀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사구(死句)’에 불과할 것이다. 공안집의 화두가 현시대의 시사 문제와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죽은 언어가 아닌 새로운 화두로 독자들에게 다가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저자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다. 그 속에는 우리의 삶과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를 생각하게 하는 강한 울림이 있다. 그 울림 속에서 답을 찾는 것은 스스로의 몫이다.

흔히 선문답서 주고받는 말은 모순적이고 비논리적이라고 한다. “주장자는 주장자가 아니다”, “대답하는 너는 네가 아니다”라는 식의 말들은 듣는 이를 당황하게 만들기 충분하다. 하지만 여기에 말려들면 안 된다. 동어반복과 모순의 논리가 순식간에 머릿속에서 솎아져야 한다. 그런 것들을 모두 걷어내고 남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야 화두를 제대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사고의 전환을 이루고 직관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생각법을 이 책에서는 명확히 제시한다.

‘화두’란 직관 세계로 들기 위한 법칙들

- 공안의 답은 없다. 남의 답이 결코 나의 답이 될 수 없다.
- 하찮아 보이는 사람이 별 뜻 없이 말하는 그 순간조차도 놓치지 않는다.
- 언제나 지금이 바로 내가 힘을 얻는 때이다.
- 도대체 뭐라고 해야 할까? ‘도대체’라고 말할 때의 막막함과 절망감을 부둥켜안고 가라.
- 인내는 참는 게 아니다. 그만둘 줄 아는 능력이라는 뜻이다.
- 가장 귀한 것을 내려놓아 버려야 비로소 내려놓는 것이다.
- “버려야 얻을 수 있다.” 그 다짐에는 이미 얻겠다는 속셈이 들어 있다.
- 잘라라, 가리키는 손가락을. 손가락에서 마음을 떼어놓아라.
- 공연히 뭔가 숨겨진 뜻이라도 있는 양 억지 해석하지 마라.
- 엄마와 부처를 조심하라. 고정관념은 비수 끝에 발린 꿀이다.
- “모른다”고 하라. 넘겨짚지 않아야 비로소 말에 놀아나지 않는다.
- 부처란 이미 다 알아버린 사람이 아니라, 거듭 묻는 사람이다.

아함경을 통해 듣는 현법열반의 지혜



잡아함경 강의

마성 지음/인북스 펴냄/1만 8천원

붓다 사상의 원류(原流) 아함서 가려뽑은 45경

‘아함(阿含)’이란 산스끄리뜨 아가마(gama)를 음역한 말이다. ‘아가마’는 (이쪽으로)+√gam(to go)서 파생된 명사로 ‘전승된(handed down) 가르침’이라는 뜻이다. 이것을 중국의 역경승들이 ‘아함(阿含)’으로 음역했다. 제 1차 결집서 전승된 경전의 원형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아함경은 오직 하나의 경전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수많은 경전의 집록이다. 현존하는 한역 4아함 중, 잡아함경은 436년서 443년 사이에 중인도 출신 승려 구나발타라가 중국에 도착해 한역했는데, 총 50권 1,362경이다.

이 책은 이 중 초기불교의 핵심이 되는 교설 45경을 가려뽑았다. 저자 마성 스님은 붓다 사상의 원류인 아함서부터 출발해야 전체 불교 교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부처님 원음인 니까야는 아함경으로 번역되면서 그 분석적인 언어 구조를 상실하고 추상화되고 격의 불교로 변화된 감이 없지 않다고 한다. 이 책은 구나발타라 한역 경전의 원전을 제시한 뒤에 마성 스님의 번역과 해설을 싣는 형태로 구성됐다. 원전의 한역 문장을 충실하게 한글로 번역했으며, 해설에서는 해당 경전에 대응하는 빨리 니까야(잡아함의 대응경전은 상윳따 니까야)를 제시하고 한역과의 차이점을 상세히 분석해 부처님 설법의 근본 취지를 명확히 해설했다. 아함과 니까야에 대한 권위자로 인정받으며 빨리어에 능통한 마성 스님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불교학계서 주석을 유용하게 활용하기로 정평 있는 마성 스님은 이 책에서도 각주를 통해 난해한 불교교리와 불교사상의 변천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불교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불교술어에 대한 개괄적 설명과 그에 대한 출처를 분명히 밝혀, 초심자의 이해를 도왔다. 빨리 니까야와의 대조분석으로 인간적인 붓다의 생생한 육성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마성 스님 경전 강의의 특장(特長)이다.

‘지금 여기’서 괴로움의 소멸인 열반을 증득하라

붓다는 일생 동안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 설했다. 괴로움의 소멸이란 ‘지금 여기’에서 열반을 증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열반을 증득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설명한 것이 곧 초기경전이다. 초기경전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교설은 잡아함경에 설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잡아함경서 설하는 붓다의 교설은 한마디로 괴로움에서 벗어나 열반으로 이끄는 가르침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지금 여기’서 열반을 증득하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괴로움의 소멸인 열반을 증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불교의 핵심이다. 이 책에 수록한 45경에는 오온무아(五蘊無我)에 관한 교설이 많이 수록되었다. 우리 인간들이 겪는 온갖 종류의 괴로움은 모두 ‘오온이 나(我)이다. 오온은 나의 것(我所)’이라는 잘못된 견해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온에 대한 집착서 벗어나면, 곧바로 ‘지금 여기’에서 최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잡아함경 45경을 다루는 이 책서 반복해 강조한 부처님 말씀이다.

김주일 기자

시·선·화로 본 수행자의 세상일지



꽃을 드니 미소짓다

제운 스님 지음/지혜의 나무 펴냄/1만 8천원



이 책은 염화미소(拈花微笑)로 세상에 이미 많이 알려진 말이다. 부처님이 영취산에서 많은 대중들이 모인 가운데 법문하다 꽃을 들어 보이니 수제자 가섭이 미소로서 답을 한데서부터 나왔다. 저자는 그간 각종 언론매체 등서 칼럼 형식으로 발표한 선시를 한시 형태로 발표했다. ‘한시’ 하면 통상적으로 과거의 시문으로만 여겨 딱딱하고 무겁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저자는 현대시인으로 현대인이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풀어썼다. 저자의 말을 빌리면, “오늘 같은 스피드한 세상에 한 걸음을 Slow tempo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옛 우리의 선비들이 즐겨 썼고 불교 선 수행자들이 많이 써왔던 표현을 현대인에게 부합해서 인간의 가치를 상실하지 않고 자아를 찾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한다.

김주일 기자

홈페이지 www.maumtour.com 문의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조계종 승려연수교육과정 인증프로그램
인증번호 : 대불교연인 2018-030호

2018 불교성지순례와
달라이라마 특별법문

접수마감 ※ 선착순 모집
6월 30일 까지

법회일정 2018년 9월 4일 ~ 9월 7일(4일간)
법회장소 인도 다람살라 남걀사원 대법당
주 관 동국대학교 티벳대장경 역경원
주 최 대한불교조계종 여수 석천사

8월 28일(화) ~ 9월 9일(일)
A팀 달라이라마 법문 & 스리랑카 순례 13일
359만원 (보시금30만원포함)

8월 28일(화) ~ 9월 9일(일)
B팀 달라이라마 법문 & 부탄 성지순례 13일
419만원 (보시금30만원포함)

9월 02일(일) ~ 9월 9일(일)
C팀 불교란 무엇인가? 달라이라마 법문 8일
199만원 (보시금30만원포함)

8월 27일(월) ~ 9월 9일(일)
D팀 달라이라마 법문 & 인도 성지순례 14일
299만원 (보시금30만원포함)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석가모니·약사·아미타부처님을 한 폭에

'세 부처의 모임–상주 용흥사 괘불' 展

국립중앙박물관 서화관 5.4~10.28
13번째 괘불전, 상주 용흥사 괘불 등
5월 '큐레이터와의 대화' 서도 소개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용흥사 괘불(보물 제1374호). 조선 1864년, 삼베에 채색, 1003×620cm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배기동)은 불기 2562년(2018)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5월 4일(금)부터 10월 28일(일)까지 서화관 불교회화실(상설전시관 2층)에서 '세 부처의 모임-상주 용흥사 괘불' 展을 개최한다.

2006년 5월부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선보여 온 한국의 괘불 전시를 잇는 열세 번째 전시로, 이번 전시에서는 보물 제1374호 상주 용흥사 괘불을 전시한다.

용흥사는 경상북도 상주시 연악산 기슭에 자리하고 있다. 통일신라시대 진감선사(眞鑑禪師) 혜소(慧昭 · 774~850)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며, 오늘날까지 꾸준히 명맥이 이어지고 있다.

용흥사에 전해지는 괘불은 석가모니불과 약사불, 아미타불의 모임 장면을 묘사한 불화이다. 세로 10m, 가로 6m가 넘는 대규모의 화면에는 법회에 참여한 불보살과 대중 등으로 가득 차 있다.

모임의 주재자는 석가모니부처님으로, 그의 몸에서 발하는 영롱한 빛은 모임의 시작을 알린다. 약사부처님은 질병의 고통이 없는 유리광세계를, 아미타부처님은 즐거움만이 가득한 극락세계를 다스리는 존상이다.

사람들은 세 부처에게 살아서는 무병장수하고, 죽어서는 극락왕생하기를 기원했다. 현재 전해지는 괘불 110여 점 가운데 세 부처를 함께 그린 괘불은 5점만이 남아 있어 '용흥사 괘불'은 매우 귀중한 예에 속한다.

'용흥사 괘불'은 1684년 5월, 90여 명이 넘는 대인원이 참여하여 조성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폐허가 된 용흥사를 다시 일으키는데 큰 힘을 쏟은 홍흡(弘洽) 스님이 괘불 조성에 필요한 시주를 유도하여 일반인과 승려 50여 명이 경제적으로 후원했고, 불화는 인규(印圭) 스님을 수화승으로 하여 다섯 화승(畵僧)이 그렸다.

300여 년 전의 그림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선명하고 화사한 색채, 다채로운 문양은 절로 감탄을 자아낸다. 특히 연꽃과 다양한 꽃, 넝쿨, 상서로운 구름무늬 등이 괘불 곳곳의 여백을 가득 채운 점은 보는 이들의 눈을 즐겁게 한다.

이번 전시는 사찰의 큰 법회 때에만 모습을 드러내 평소에는 보기가 힘든 용흥사의 대형 괘불을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다.

괘불을 보관하는 함과 함께 익살스런 표정의 나한상, 신들의 모임을 그린 신중도, 지옥의 왕 중 다섯 번째 왕인 염라대왕을 그린 현왕도 등도 함께 선보임으로써 천년고찰 용흥사의 숨결을 느끼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전시와 연계하여 용흥사의 괘불에서부터 역사, 불교조각, 불교회화를 종합적으로 조명한 전시도록을 발간하여 일반 관람객의 이해를 돕는다.

또한 이번 괘불전은 국립중앙박물관이 매주 수요일 야간개장 시간(오후 9시까지)에 박물관 큐레이터의 상세한 전시품 해설과 관람객과의 질의응답으로 진행하는 '큐레이터와의 대화'에서도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밖에 상설전시관에서는 '호패에서 찾아낸 동학생 이정보의 삶(조선실, 5/2)', '십이지의 발생과 변천(통일신라실, 5/9)', '그림 속 성현 이야기(서화실 Ⅱ, 5/16)', '전시품의 안전(불교조각실, 5/23)', '조선의 비밀병기 비격진천뢰(조선실, 5/30)' 등 다양한 시대와 장르의 전시품에 대한 풍부한 설명회를 진행한다.

불일미술관 5월 전시

'한국 근현대 선사 진영' 展
'상을 여읜 적멸–상, 그 너머의 세계' 展
법련사 불일미술관서 5월 31일까지

서울 법련사 불일미술관은 2018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5월 31일(목)까지 홍나연 작가의 초대기획전 '한국 근현대 선사의 진영' 전과 스님들의 구도정신을 표현한 '상을 여읜 적멸-상, 그 너머의 세계' 전을 제2전시관과 제1전시관에서 각각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 모셔지는 진영은 한국 선의 중흥조인 경허선사를 필두로 혜월선사, 운봉선사, 향곡선사, 현 조계종 종정 진제예하까지 정통 임제종의 법맥을 두루 섭렵하고 있으며 한국 근현대 선종에 큰 족적을 남긴 8대 총림의 만공선사, 혜암선사, 경봉선사, 서옹선사, 동산선사, 석우선사를 모두 모셨으며, 더불어 전강선사, 석우선사의 진영 등 총 18작품이 전시된다. 또한 한국 선종의 큰 획을 그은 네 분의 선지식이 담소를 나누는 아주 희귀한 작품도 선보인다.

'한국 근현대 선사 진영' 전은 홍나연 작가가 고고미술사학도로서의 학술적 고찰과 불교회화도의 오랜 실기훈련이 합일의 결실을 맺은 진영연구이다. 전통이라는 미명 아래 오랫동안 학술적인 고찰 없이 왜곡된 주먹구구식의 도제교육과 안일하고 획일적으로 옛 것의 오류조차도 그대로 임모하고 답습하고 있는 지금의 근 · 현대 선사 진영양식을 터럭 한 올까지 그대로 표현했던 옛 진영작가들의 전통성의 정신성을 계승하고 오늘날의 시대성과 현대의 미감의식을 반영하여 창조적으로 재창작한 것이다. 이는 현대, 나아가 미래의 대중들에게 다소 구태하고 낯설게 느껴지는 진영을 본질적인 권계(勸誡)의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진정한 이 시대의 진영으로 나아가게 하고자 함이다.

홍나연 작가는 불화 작업을 할 때 〈금강경〉을 틀어놓고 작업을 한다. 의궤와 소의경전에 입각한 불교 미술의 상을 그려내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것은 "무릇 형상 있는 것은 모두가 다 허망하다. 만약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곧 여래를 보리라.(凡所有相 皆是虛妄 若見諸相非相 卽見如來), 만약 색신으로써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써 나를 구하면, 이 사람은 모두 사도를 행함이라. 능히 여래를 보지 못하리라.(若以色見我 以音聲求我 是人行邪道 不能見如來)"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한 것임을 알고, 늘 죄송한 마음을 가졌었다.

전통불교의 도상과 의궤에 의한 불화 작업과 위대한 선지식들의 모습을 오롯이 담아낸 진영 작업 외에 부처님의 유훈인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自燈明 法燈明)"는 말씀을 따르기 위한 작업으로 '상을 여읜 적멸' 전을 함께 진행한다.

수 천 년 전, 이런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아 깨달음을 얻은 선각자들의 생을 고요히 바라보면 나타나는 '상, 그 너머의 세계'를 '상을 여읜 적멸' 전을 통해 나타내고자 한다. 이 전시는 의궤에 머물러 미완이었던 선사들의 진영이 '상, 그 너머의 세계'로 화현되기를 서원하는 홍나연 작가의 회향이다.

박재완 기자


경허 성우대선사 진영. 95×158cm 비단에 채색


'무상정각' 장지에 수먹

'마음, 색을 입히다' 展


정혜성 作 '금니수월관음도'

불화가 정혜성(송헌) 두 번째 개인전
5월 9일부터 15일까지 갤러리 아리수

불화작가 송헌 정혜성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두 번째 개인전 '마음, 색을 입히다' 전을 5월 9일부터 15일까지 서울 갤러리 아리수에서 연다.

이번 전시에서는 정 작가가 첫 번째 개인전을 통해 선보인 연꽃, 소나무, 모란 등을 새롭게 작업한 왕실문화그림과 고려불화의 전통기법을 그대로 잇는 불화 '괘불', '수월관음도', '금니 불화' 등을 선보인다.

정 작가는 "마음 밖에 법이 없으니 눈가득히 푸른 산이다. 제법실상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자연의 법칙과 우주질서가 부여한 장자의 '불성의 선의'로 보답하려는 보살도의 마음으로 이 세상에 아름다운 빛이 되어 노자의 '선의 경지'로 귀결되고 싶다"며 "하루하루 수행정진을 통해 저절로 마음수양과 영혼이 닦여지는 안빈낙도의 삶 속에서 새로운 세계와 창조의 작품을 만들어 가며, '마음, 색을 입히다'라는 주제를 통해 함께 상락아정을 이루고 싶다. 현재에서 과거를 돌아보며, 기록하고, 역사의 전통을 반성하고 모색하고자 왕실문화와 불화를 통해 전통을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이번 전시와 자신의 작품 세계를 설명했다.

정혜성 작가는 개인전 2회와 국내외 초대전 · 아트페어 · 공모전 · 그룹전을 열었다. 2015년 대한민국 행복나눔 봉사대상,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상(화가부문)을 수상했다. 현재 불화작가와 전통채색화가, 송헌 전통채색화 연구소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작품은 청와대, 동국대, 조계종 총무원 등에서 소장하고 있다.

박재완 기자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성화불교예술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주·야 상담합니다
조형물 · 동상 · 작품 모든 주물 가능함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 031)641-2747, 010-5302-1022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임란 朝·日 갈등 조정자 ‘불교’ 였다”

이철헌 소장, 종교교육학회 춘계대회서 주장

임란 직후 교역 끊어진 대마도
국교·교역 재개 조선에 요구해
조선, 일본에 유정 스님 파견

日 주요인사 대부분 佛心 돈독
불교, 양국 갈등 조정 ‘공통분모’
유정·일본 외교승 신뢰가 해결책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임진왜란으로 인해 조선과 일본은 최악의 관계가 됐다. 이 같은 전란 후 파탄난 조선과 일본 양국의 관계 개선에 ‘불교’가 조정자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철헌 동국대 경주캠퍼스 갈등치유연구소장은 4월 20일 한국종교교육학회가 ‘갈등치유와 종교교육’을 주제로 개최한 춘계학술대회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소장은 ‘임진왜란 직후 조·일 갈등 해결을 위한 승려들의 활약’을 통해 전란 이후 양국 정세를 분석하고, 조선과 일본의 승려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살폈다. 이 소장에 따르면 조선은 임진왜란 전까지 왜구의 약탈을 막기 위해 부산포·제포·염포에 왜관을 설치하고 일정 수준의 무역을 허용하는 회유정책을 폈다. 하지만, 전쟁으로 무역은 끊어지고 매년 대마도에 보냈던 세사미(歲賜米) 200석도 받지 못하게 됐다.

경작지가 적고 쌀이 수확되지 않는 대마도의 경우 빨리 조선과의 교역이 재개되는 것이 시급했다. 이에 대마도주 요시토시는 전쟁 직후인 1599년 사신을 보내고 조선인들을 돌려보내면서 강화를 요청했다. 1600년 일본을 통일한 토쿠카와 이에야스도 조선과의 화친을 적극 추진했지만 조선의 반응은 차가웠다.

1604년 2월 13일 대마도로부터 돌아온 김광이 상소를 올려 “화친을 허락하지 않지 않으면 일본이 군사를 출동시켜 침략할 것”이라 말했으며, 함께 온 다치바나도 “이에야스의 명이라면서 강화를 하지 않으면 또 다시 변란이 발생할 지도 모른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후 조선은 일본의 사정을 탐색할 필요성을 느끼고 수년간 미뤄 보내지 않았던 탐적사로 유정 스님을 보내기로 했다.

유정이 대마도에 도착하자 대마도주 요시토시는 이 사실을 이에야스에게 통보하고 이에야스는 교토에서 유정을 만나기를 원했다. 이에야스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유정 스님이 정식 사신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와의 만남을 조선과 일본의 갈등을 해결할 실마리로 생각했다. 유정과의 회담에 매우 만족한 이에야스는 회담을 주선한 요시토시에게 히젠에 1,800석의 영지를 주고, 요시토시의 가신인 야나가와에게 1,000석을 줬다.

왜 조선 조정은 관료가 아닌 승려를 사신으로 보냈을까.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일본 주요인사가 독실한 불자였고, 승려들이 외교를 담당하고 있는 특수한 사정을 요인으로 들었다.

실제 일본을 통일한 도쿠카와 이에야스는 정토종의 열렬한 신도였고, 임란 당시 제2군 대장으로 이에야스의 측근이 된 가토 기요마사는 일련종 신도로 조선에서 데려간 소년들을 일련종으로 출가시키도 했다.

이 교수는 “유정은 전란 당시 기요마사의 적진에 들어가서 기개를 보였고, 기요마사와 일본 외교승들에게 존경받게 됐다. 일본인들에게도 송운대사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면서 “오랫동안 일본의 외교문서는 승려들이 맡아 왔으므로 같은 승려인 유정이 일본 승려와 만나 외교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유리했다. 또한 양국에 대해 중립적 입장을 가진다는 인상을 주기에서도 유정이 적임자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국의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조선과 일본의 신뢰를 쌓기 위한 공통분모가 필요했고, 불교가 이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신뢰 구축이 필요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관계치유가 필요하다. 이러한 요인을 두루 갖추고 조선과 일본의 갈등을 조정한 이들이 바로 두 나라 승려들”이라며 “임진왜란 직후 조선과 일본, 두 나라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실마리는 불교였다”고 주장했다.

치유명상으로 신행·포교 확장하자

불광연구원 4월 27일 35차 학술연찬회 개최

음악·경관·사진 명상 등 새로운 프로그램들 소개



이주연 중앙승가대 겸임교수가 불광연구원이 4월 27일 ‘치유명상을 통한 신행의 확장과 전법’을 주제로 개최한 제35차 학술연찬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치유명상을 통한 불교 신행과 전법 방법론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불광연구원(이사장 지홍)은 4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치유명상을 통한 신행의 확장과 전법’을 주제로 제35차 학술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음악·컬러·전통사찰·북(drum)·사진이라는 새로운 매개를 통한 치유명상프로그램이 소개됐으며, 이를 통한 전법론을 모색했다.

‘음악을 통한 명상과 치유’를 발표한 이주연 중앙승가대 겸임교수는 음악치유에 대한 실례들과 전법의 측면에서 본 음악치유명상의 효과에 대해 소개했다. 이 교수는 악보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좋아하는 음악을 직접 연주해 봄으로써 심신의 안정과 편안함, 긍정적인 마음상태로의 변화됨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것이 전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연주하고, 행복한 나로 인해 일어나는 움직임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면 이것이 진정한 음악으로 하나 되는 힐링”이라며 “이런 것들이 진정성으로 통하게 된다면, 대중에게 음악으로 어필할 수 있고, 올바른 전법을 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붓다의 가르침대로 수행하고 정진 하는 모습인 진정한 전법으로 연결된다”고 밝혔다.

미소선원장 혜림 스님은 지금까지 보고되지 않은 빨강, 파랑, 노랑색을 이용한 트라이앵글(triangle) 컬러 명상치유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스님에 따르면 빨강색은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으로 경제적 욕구와 분노, 적개심이 특징이며, 빨강색에 많이 노출되면 뇌혈관질환, 관상동맥질환, 당뇨, 중풍, 소화기, 궤양 등 성인병에 잘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부작용을 치유할 수 있는 색으로는 노란색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란색 역시 많이 노출되면 권위에 쉽게 굴복하고, 화나 분노를 억제하며, 감정을 외부로 노출하지 않게 된다. 그러면서 “빨강, 노랑, 파란색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트라이앵글 구도를 이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영경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는 ‘전통사찰과 경관치유’를 통해 전통사찰의 배치와 조경, 주변 경관이 가지는 치유적 역할과 기능에 대해 발표했으며, 서영심 동명북명상연구원장은 ‘북(drum) 치유명상 프로그램’의 사례와 전법교화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사진을 활용한 명상과 치유’라는 주제로 사진치유명상의 사례와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통한 전법교화의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신성민 기자



평창 오대산 월정사 적멸보궁 보물된다

문화재청 1일 지정예고… “조선 전기 양식 가치 높아”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28호였던 평창 오대산 월정사 적멸보궁<사진>이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승격된다.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월정사 적멸보궁’을 ‘평창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平昌 五臺山 中臺 寂滅寶宮)’이란 명칭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5월 1일 밝혔다.

<삼국유사>와 <오대산사적> 등의 기록에 의하면 오대산은 신라 승려 자장(慈藏)이 당나라에서 석가모니의 사리를 가져와 봉안한 후 비석을 세웠다고 전해지는 곳으로, 오대산 신앙의 중심지이자 신라 이후 현재까지 법통이 이어져 오고 있는 불교의 성지다. ‘평창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이 있는 오대산 중대에는 진신사리 봉안처와 석비가 함께 있다.

내·외부가 이중 건물로 된 불전 건축물인 오대산 적멸보궁은 한국 건축사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진다.

실제 오대산 적멸보궁은 정면 3칸·옆면 2칸의 건물 내부에 다시 정면 3칸·옆면 2칸의 건물이 있다. 이는 국내에서 유례가 없는 독특한 구조로, 내부 건물과 외부 건물이 시대를 달리하고 내부 공간을 확장·보호하기 위해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내부와 외부 건물 모두 동일하게 정면 3칸, 옆면 2칸으로 구성되었으며, 외부 건물은 익공식(翼工式), 내부 건물은 다포식(多包式) 건축양식이다. 외부 건물은 조선 후기(19세기)의 보편적인 이익공양식 구조를 보이지만, 내부 건물은 조선 초·중기의 심원사 보광전(1374년, 황해도 황주군), 봉정사 대웅전(국보 제311호, 1435년 중창), 숭례문(국보 제1호, 1448년 중수) 등과 유사한 고식기법을 가지고 있다.

문화재청은 “평창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은 국내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내·외부 이중구조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서 “내부 건축물은 구조·장식적인 면에서 조선 전기의 다포식 목조건축양식을 잘 유지하고 있어 건축·예술·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힐링과 종교의 상관관계는?

서강대 연구팀, 5월 4~5일 국제학술대회

종교와 힐링의 접근 방향에 대해 논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서강대 종교와 힐링 글로벌연구네트워크 사업팀은 5월 4~5일 교내 김대건관에서 ‘제2차 종교와 힐링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종교와 힐링: 다양한 현대적 접근’을 주제로 열리는 국제학술대회에서는 △김동규(서강대)의 ‘무속 치유의 종교적 원리’ △인요한(연세대)의 ‘종교와 힐링에 대한 의학적 성찰’ △인경 스님(동방대학원대학)의 ‘명상과 힐링’ 등이 발표됐다.

또한 사미 아이아두와함 사우디 아라비아 문화원장이 이슬람과 힐링에 대해서 발표하며, 스티븐 엥글러 캐나다 몬트로얄대 교수는 힐링과 종교에 대한 이론화 연구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학술대회에 대해 서강대 연구팀은 “다양한 종교 전통에서 이뤄지는 힐링에 대한 여러 현대적 접근을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이라며 “ 복잡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궁극적으로 그들의 삶의 가치를 되새기며 참된 삶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사형수 포교 50년
삼중 스님의 남기고 싶은 인연
⑨ 억울한 사형수 한춘도

불륜이 빚은 억울한 사형수… 수감중 佛法에 귀의

"억울한 사형수 한춘도 씨를 살려주세요"

1991년 초 한 여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사형수 한춘도(40)가 억울하니 구명해 달라는 것이었다. 한 씨는 정부(情婦)의 남편을 살해(공범)한 죄로 사형수가 됐다. 내가 한 씨를 만나게 된 건 당시 한 씨와 함께 복역 중인 여러 재소자들의 노력 덕분이었다. 전화를 걸어온 그 여인은 한 씨와 함께 복역 중인 재소자의 부인이었다. 그 여인은 남편을 면회하면서 남편으로부터 한춘도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남편의 부탁으로 나에게 전화를 한 것이다. 1997년 한춘도 그가 형집행으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는 나에게 결백을 주장하는 500여 통의 편지를 보내왔다. 그 때의 한춘도를 생각하면 아직도 안타깝기만 하다. 잘못된 만남이 부른 비극이었기 때문이다.

1990년, 부산에서 버스운전기사로 일하던 한 씨는 동료들과 부산의 한 카바레에 놀러 갔다가 임 여인을 만나게 됐다. 임 씨는 한 씨에게 자신을 과부라고 소개했다. 두 사람은 자주 만나게 됐고, 급기야 깊은 관계가 됐다. 불륜이었다. 한 씨는 처와 두 자녀를 둔 가장이었다. 얼마 후 두 사람의 관계는 위기를 맞는다. 자신을 과부라고 소개했던 임 씨 역시 불륜이었다. 임 씨는 유부녀였다. 중동으로 취업을 나가 있던 남편이 귀국을 했고, 임 씨의 남편이 임 씨를 수상하게 생각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들통난다.

어느 날, 한 씨가 임 씨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낯선 남자가 전화를 받았다. 돌아온 임 씨의 남편이었다. 임 씨는 그때서야 한 씨에게 자신이 유부녀임을 밝혔다. 임 씨의 남편이 임 씨를 의심하게 되면서부터 임 씨는 남편과 자주 다투게 되었고, 남편으로부터 손찌검까지 당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어느 날, 임 씨는 한 씨에게 청산가리를 구해달라고 부탁한다. 임 씨는 남편이 외국에서 술을 많이 마셔서 시력이 안 좋아졌다며, 눈을 치료하기 위해 시골로 요양을 가려고 하는데 그 동네에 꿩이 많아 보양으로 쓸 꿩을 잡는 데 쓰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처음엔 한 씨도 구할 방법이 마땅히 없어 거절했으나 임 씨가 몇 차례 더 부탁을 하자 할 수 없이 청산가리를 구해준다. 그 청산가리가 비극의 시작이었던 것이다. 임 씨는 그 청산가리로 꿩을 잡은 게 아니라 자신의 남편을 살해한다. 그리고 임 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병사로 신고를 했고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려고 했다. 그런데 임 씨 남편의 가족들이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됐고 임 씨의 범행이 밝혀졌다. 임 씨가 살인죄로 구속 기소되는데, 문제는 한 씨도 공범으로 구속 기소된 것이다. 청산가리가 문제였다. 임 씨는 의심의 여지없이 사형이 확정된다. 그리고 한 씨는 1심에서 범행 실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삼중 스님(좌)이 한춘도의 가족들을 자비사로 초청해 위로하고 있다.

청산가리 구해준 죄로 살인 누명
"佛法 좀 더 일찍 만났다면…"
"법 집행 책임 있고 신중해야"

무기징역을 받는다. 하지만 기소 자체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한 씨 입장에서 무기징역은 말도 안 되는 결과였다. 한 씨는 당연히 항소를 했다. 그런데 이번엔 그 항소가 문제가 되었다. 반성이 없다는 이유로 형이 더해졌다. 한 씨에게도 사형이 선고됐다. 한 남자의 인생은 순식간에 엉망진창이 된다.

한 씨가 사형을 선고받은 이유는 임 씨의 번복된 진술 때문이었다. 처음 임 씨의 진술은 한 씨가 범행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임 씨가 범행을 한 씨와 공모했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이다. 나중에 들으니 수사기관과 연관이 있었다. 경찰은 한 씨를 처음부터 공범자로 확신했고, 그 확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임 씨의 진술을 유도했던 것 같다.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한 씨는 사형 확정판결이 난 후 각계에 자신의 결백을 호소한다. 그중 한 씨의 결백에 공감하게 된 재소자들도 나섰고, 마침내는 나와 만나게 된 것이다.

한 씨는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 스스로 머리를 깎고 계와 불명을 받아 불법(佛法)에 귀의했다. 그리고 교도소 안에서 '교화'에 앞장섰다. 그런 한 씨의 모습은 같은 재소자들에게도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한 씨와 함께 수감생활을 했던 재소자들 중에는 출소한 후에 한춘도의 구명에 적극적으로 나서기고 했다.

나는 한 씨가 한 때의 잘못된 판단으로 벌인 불륜으로 사형수에 이르게 된 것은 법과 그 제도를 집행하는 사람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 사람들이 좀 더 신중했다면, 한 씨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여주었다면 한 사람의 인생은 또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법무부에 두 차례나 집행연기를 신청했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김영삼 대통령에 진상조사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그리고 부산변호사회가 재수사에 나서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구명운동에도 불구하고 한 씨는 1997년 12월 30일 형장에서 세상을 떠났다.

긴 세월 여러 재소자들을 위해 구명과 교화를 해왔지만 사형수 한춘도는 너무나 안타까운 인연 중의 하나다. 그가 부처님 법을 좀 더 일찍 만났다면 그는 아마도 그렇게 이 세상에서 멀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길이 아닌 길에 발을 디디지 않았다면 그런 비극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부처님 말씀 전하는 일이 불사 중의 불사인 이유를 또 한 번 깨닫게 한 인연이었다.

정리=박재완 기자



이란 보살의 '밥 짓는 소리'
⑨ 활성스님 · 소윤아가





스님은 법이다.
고요한 소리를 보고 듣고 삼키신다.

나는 따라쟁이다.
밥짓는 소리로 향기로 뜸을 들인다.

◀





태어나는 것도 인연
만나는 것도 인연
떠나는 것도 인연
인연을 맺고 인연의 끈으로 인연을 불러옵니다.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손녀
아가의 웃음이 식구를 자석처럼 빨아들입니다.
아가의 존재는 가족을 한데 묶는 강한 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땡큐. 땡큐 보살입니다.
와 주어서 고맙습니다.

▶



정견(正見,바른안목)이
대작불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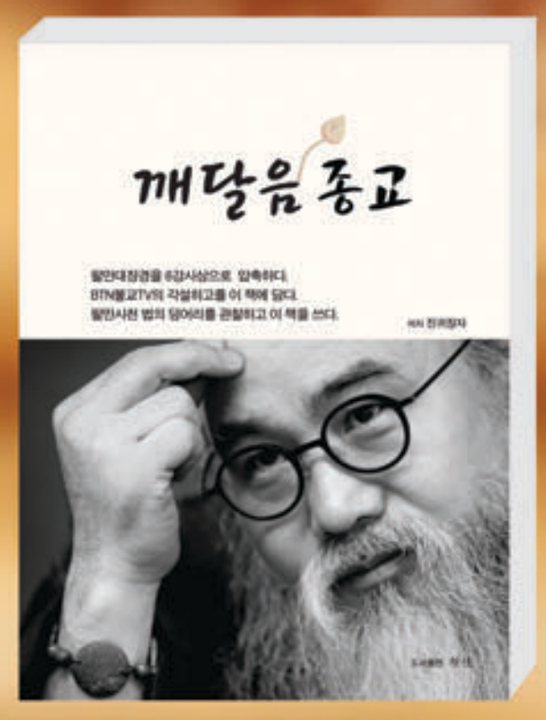
정견(正見)의 씨앗에는
고통과 병통의 싹이 돋을 수가 없다

정견(正見)을 증득한 선지식이 아니고선
지독하고 질긴 고통과 병통을
벗어 날 길은 없음이로다

요즘같은 말법시대에
지구를 열 바퀴 도는 여행은 할 수 있으나
〈깨달음 종교〉와 인연짓기는
참으로 어렵고 어렵도다

붓다의 법은?
마음 밖 유위법으로 해결하려는
외도들의 도움없이
홀로이 스스로 정견(正見)이 깨어남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것을.....

이를 참된
대작불사(大作佛事)라 함이로다.....



NAVER 깨달음 종교 검색
Daum 진귀장자 검색
Google 진귀장자
문 의 : 1899-9532

※ 전국서점 및 인테넷서점에서 구입 할 수 있습니다